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9 호 9월 1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60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잡 지

제 9 호(178)

1960년 9월 15일

차 례

천리마 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에서 한 연설 1960년 8월 22일

김 일 성

(전원 총 기립. 오래 계속되는 우뢰와 같은 박수 속에 등단)

친애하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여러 동무들!

영광스러운 해방의 명절에 뒤'이어 이 자리에서 소집된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는 새 생활의 창건을 위하여 떨쳐 일어난 우리 근로자들의 충천하는 혁명적 기세와 고상한 공산주의적 풍모를 과시하는 력사적 모임입니다. 지금 전체 근로자들은 커다란 흥분과 감격 속에서 이 대회의 사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천리마의 기수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류례 없이 빠른 속도로 전진시키는 영광스러운 선구자들이며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공산주의의 광명한 앞날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당의 붉은 전사들입니다.(우렁찬 박수)

당신들은 자랑찬 천리마 시대의 참다운 주인공들로서 전체 인민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훌륭한 행동과 특출한 업적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으며 무한히 고무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륭성과 번영을 위하여 당신들이 영웅적 로동으로 쌓아 올린 위대한 공적은 우리 나라의 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후손 만대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나는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이 대회에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전체 천리마 기수들에게 충심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전원 총 기립.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동무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로동당의 령도 밑에 조국 땅 우에 인민의 행복한 락원을 더 빨리 건설하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불타는 애국심을 반영하는 것이며 당에 의하여 교양되고 당의 기치 밑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나아가는 우리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시위하는 것입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영웅적 조선 로동 계급이 창조한 우리 시대의 훌륭하

고 위대한 공산주의의 학교입니다.

작년 3월 강선 제강소 진 응원 작업반원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기된 이 훌륭한 운동은 불과 1년 반 동안에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대되였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전국 각지에서 8천 600 여개의 작업반들이 이 운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벌써 766개의 작업반들이 천리마 작업반의 칭호를 받았고 그 중 13개의 작업반은 2중 천리마 작업반의 높은 영예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과 생활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온 새로운 군중적 혁신 운동이며 가장 높은 형태의 사회주의 경쟁 운동입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거대한 의의는 그것이 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이며 자각된 근로자들의 대중적 경제 운영의 훌륭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 교양의 방법으로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운동의 참가자들은 생산, 기술, 문화, 사상, 도덕의 모든 령역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 다 같이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살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전체 성원들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며 집체적 지혜와 집체적 창발성을 발휘하여 생산과 기술의 발전에서 집단적 혁신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천리마 기수들은 생산 공정을 기계화하고 자동화하며 부단히 새로운 생산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일은 더욱 쉽게 하면서도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키고 있습니다.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전체 성원들이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며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며 공산주의적 도덕을 배양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배우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단의 교양과 집단의 방조에 의하여 어제'날의 소극 분자가 오늘은 적극 분자로 되고 어제'날의 락후 분자가 오늘은 선진 분자로 되며 모두가 다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류의 리상이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주의, 리기주의, 자유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서 커다란 장애로 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리상을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낡은 사상 잔재들을 청산하고 락후한 사람들을 개조하여 모두가 다 인민 대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며 공산주의를 향하여 확신성 있게 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천리마 작업반은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하며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집단입니다. 우리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생산과 기술 분야에서 보수주의와 신비주의, 온갖 소극적이고 침체한 것을 대담하게 타파하고 일대 혁신을 일으킨 운동이며 사상과 도덕 분야에서 낡은 사회로부터 넘겨 받은 온갖 부패하고 락후한 것을 결정적으로 쓸어 버리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의 전면적 승리를 보장하는 력사적 운동입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위대한 힘은 이 운동 참가자들의 실천적 활동에서 뚜렷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오지 탄광의 2중 천리마 청년 작업반장 리 승환 동무는 청년들을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으로 부단히 교양하여 작업반원들의 자각적 로동 규률을 확립하고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급격히 높임으로써 생산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동무가 지도하는 작업반 성원들은 한 개 채탄장에서 한 달에 5천 톤의 석탄을 캐던 것을 지금은 1만 톤 이상의 수준으로 높였으며 년말까지는 1만 5천 톤의 수준에 올릴 것을 목표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룡성 기계 공장 2중 천리마 청년 작업반장 주 성일 동무를 비롯한 작업반 전체 성원들은 8메터 타닝반, 3천 톤 프레스, 기타 대형 기계들을 제작하는 데서 커다란 공훈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라는 당의 부름에 따라 모든 애로와 난관들을 용감하게 극복하고 각종 창의 고안을 도입함으로써 제품 가공 시간을 수배, 수십배씩 단축하였으며 가장 힘든 부분들의 가공을 훌륭히 보장하였습니다. 이 작업반 동무들은 로동 생산능률을 5배 이상으로 높여 근 2만 공수의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벌써 7월 말 현재로 금년 계획을 초과 완수하였습니다.

평양 제사 공장 천리마 작업반장 길 확실 동무는 자기의 작업반을 천리마 작업반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 자진하여 일도 몇 곱절 힘들고 수입도 훨씬 떨어지게 되는 가장 락후한 작업반으로 넘어 가서 그것도 천리마 작업반으로 추켜 세웠습니다. 그는 로동 규률도 잘 지키지 않으며 작업에도 성실히 참가하지 않던 락후한 동무들을 인내성 있게 교양하고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전체 집단을 단결되고 각성된 집단으로 만들었으며 과거에는 생산 계획을 70%밖에 수행하지 못하던 것을 오늘은 140%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평양 의대 병원 안과 과장이며 2중 천리마 작업반장인 정 성희 동무는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며 그들의 불행을 덜어 주려는 일념으로부터 거듭되는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있는 열성을 다하여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각막 이식 수술법을 도입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앞 못 보던 사람들을 500 여명이나 눈을 뜨게 하여 주었습니다. 지금 정 성희 동무의 성의 있는 치료에 의하여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된 사람들은 이 동무를 우리 시대의 심 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박수)

만년 광산의 길 만식 동무, 해주 수산 사업소의 녀성 선장 김 순복 동무, 덕흥 광산의 녀성 광부 최 련옥 동무, 원산 화학 공장의 김 순금 동무와 오 덕자 동무, 흥남 비료 공장의 김 석태 동무, 함흥 3. 1 종합 상점의 김 순자 동무, 본궁 화학 공장의 주 창로 동무, 평양 기관구의 리 종호 동무, 신의주 피복 공장의 배 정실 동무, 개성 직물 공장의 리 영순 동무, 개천 철도 관리국의 박 학주 동무, 평양 방직 공장의 최 혜순 동무들도 다 대중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천리마의 기수들입니다.

우리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선구자들은 수십명인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들의 훌륭한 업적들과 미거들을 도저히 다 렬거할 수 없습니다.

천리마 기수들의 안중에는 자기 개인의 향락도, 개인의 공명도 없으며 그들은 항상 집단과 전체의 리익을 생각하며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고상한 애국주의와 공산주의 도덕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며 진실한 인민의 충복입니다.(우렁찬 박수)

천리마 작업반에서는 관료주의도, 형식주의도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개조하고 동지적 우애와 공산주의적 호상 방조로써 모든 일을 훌륭히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선구자들은 다만 생산 혁신자들일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관리 일'군들이며 능숙한 조직자들이며 세련된 정치 일'군들입니다.

이와 같이 천리마의 기수들은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을 훌륭히 계승하고 있으며 당의 정책을 자기의 살과 피로 만들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공산주의자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발전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증명하는 것이며 당과 인민의 확고 부동한 통일을 시위하는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이 운동은 대중을 믿으며 항상 그들에 의거하고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우리 당의 인민적 사업 방법과 군중 로선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 중앙은 당신들이 이 운동을 발기하고 거기에 광범히 참가하여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하고 있으며 당의 정책을 받들고 일편단심 힘차게 전진하는 당신들의 충실성과 혁명적 기개를 높이 평가합니다. (전원 총 기립.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 운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더욱 광범히, 더욱 전면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근로자들과 전체 작업반들이 이 운동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업 부문 뿐만 아니라 농업, 건설, 운수, 상업, 교육, 보건, 과학, 문학, 예술 등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리마 작업반의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며 이 운동을 한 계단 더 높여 천리마 작업반으로부터 천리마 직장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천리마 운동의 급속한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성, '국 지도 일'군들로부터 지방 당, 정권 기관 일'군들과 공장의 지배인, 기사장, 직장장들에 이르기까지 각급 기관의 일'군들이 이 운동의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인식하

고 그것을 적극 지지하며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천리마 기수들의 모범을 따라야 하며 그들에게서 허심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디서나 천리마 작업반을 창설하고 천리마 직장을 창설해야 하며 전체 근로자들이 천리마 기수로 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무들!

지금 우리 앞에는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가져 오게 될 7개년 계획의 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8. 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 보고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7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입니다.

우리는 전후 짧은 기간에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였으며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다같이 일하며 의식주에 대한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편히 살 수 있게 되였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일하면서 배우며 자녀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있으며 병이 나면 언제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오래 동안 천대 받고 가난에 시달리던 우리 인민이 오늘 어떠한 압박과 착취도 없는 좋은 세상에서 즐겁고 희망에 가득 찬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거대한 전변입니다.(박수)

그러나 우리는 달성된 성과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데 불과합니다.

앞으로 7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는 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일은 헐하게 하면서 나라의 재부를 더욱 풍족하게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부유하고 문명하게 만들자는 것이 7개년 계획의 목적입니다.

7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총 생산액은 2.5배 이상으로 장성할 것입니다. 1967년에 가서는 한 해 동안에 전력은 170억 키로와트시, 석탄은 2천 300만 톤 이상, 강철은 250만 톤, 세멘트는 430만 톤, 화학 비료는 150만 톤, 직물은 5억 메터 생산될 것입니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 알곡 총 수확고는 1.5배 이상으로 장성하게 될 것이며 육류, 기름, 우유 등의 생산량도 상당히 증가될 것입니다.

공업과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위해서는 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하며 거기에 따르는 기계와 설비들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농촌에서도 수리화 사업을 더 진행하며 새 땅을 더 많이 개간하여야 하며 지금 있는 땅을 잘 정리하기 위한 토지 건설 사업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합니다. 특히 2모작 면적을 확대하여 사료 작물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성하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주택과 상점 및 각종 봉사 시설들의 건설 사업을 더욱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학교와 과학 기관, 연구소들도 더 많이 지어야 하며 각종 문화 시설들을 더욱 확장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업을 수행하여야만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하게 될 것이며 우리 인민은 더욱 부유하게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 건설에서 거대한 사업을 하여 놓았지만 앞으로 하여야 할 사업은 더 웅대하고 방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대하고 웅대한 과업은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을 가지고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공장,광산, 농촌, 어촌 할 것 없이 어디에서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기술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전면적 기술 혁명의 시기에 들어 섰습니다. 기술 혁명은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고되고 힘겨운 로동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숭고한 혁명 과업입니다.

우리는 산간 벽지에 이르기까지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지방 산업, 건설, 운수, 수산 부문들에서 아직도 손로동과 등짐으로 하는 일을 모두 기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현대적 기계로 장비된 부문들에서는 기계화를 완성하면서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현 계단에서 우리 당이 내세운 기술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야 하겠습니다.

7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며 기술 혁명의 요새를 점령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능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후 모든 것이 파괴된 재'더미 우에서도 경제를 단시일에 복구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현저히 향상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제 토대는 매우 튼튼하며 우리는 이미 새 사회 건설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근로 대중의 혁명적 기세는 충천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이 당에 튼튼히 의거하여 당 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당이 또한 대중에 의거하여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동원한다면 어려운 과업도 승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도취하지 말아야 하며 더욱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혁명은 결코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용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 발전 법칙에 의거하여 낡은 것을 부단히 새 것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며 계속적인 전진과 혁신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창조적 로동으로 낡은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빨리 개조하면 할수록

근로 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더 빨리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새 사회를 건설하는 공산주의의 혁명 투사들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정열적인 투쟁으로써 우리 나라의 락후성을 속히 퇴치하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 중대한 력사적인 과업을 우리 시대에 반드시 완성하여야 합니다. 이 력사적인 과업의 실현은 바로 우리 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7개년 계획의 승리적인 완수에 달려 있습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선구자들인 당신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천리마의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더욱 높은 기세로 계속 전진하며 계속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고 사는 위대한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수 많은 기적을 창조한 당신들에게 나는 기술 혁신의 숭고한 과업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정력과 열의를 다 바쳐 투쟁할 것을 호소합니다. (전원 총 기립.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모두다 기술 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인민들의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하여,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우리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전원 총 기립. 장내를 진동하는 우뢰와 같은 박수,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원수 만세!》 환호 소리 오래 계속)

현대적 화학 공업의 기지를 창설하기 위하여

비날론공장건설 관계부문 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60년 9월 1일

김 일 성

동무들!

오늘 이 회의에는 비날론 공장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제 17 건설 트레스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그리고 이 공장 건설에 직접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계 설비를 제작하여 공급하며 자재를 보장해 주고 있는 각 공장, 기업소들의 책임 일'군들과 로동자 동무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자기들의 토론에서 이 공장을 기한 내에 훌륭히 건설할 굳은 결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를 물론하고 비날론 공장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동무들은 다 당이 제시한 기한보다 더 빨리 건설을 끝내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있으며 기계 설비들과 자재를 보장해 주는 동무들도 다 기한 전에 보내 주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기한 내에 건설을 완성하겠다고 하면서 명년 5. 1절에 우리가 이 공장에 와서 테프를 끊어 달라고 하는데 더 오래 회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틀 동안 하자고 하던 회의를 오늘 하루에 끝내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충분히 토론되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천리마 시대에 회의만 계속하겠는가?

우리는 당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명년 5. 1절 전으로 이 커다란 공장을 완성하자고 하는 동무들의 결의가 반드시 실천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비날론 공장을 건설하는 의의에 대하여서는 보고에서 이미 지적되였고 토론하는 동무들도 많이 말하였습니다.

비날론 공장이나 염화 비닐 공장, 염료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 나라 공업 발전에서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입니다.

우리는 중공업 부문에서 이미 발전소도 건설하였고 용광로와 평로도 세우고 제강소도 복구 신설하고 기계 공장들도 많이 차려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중공업의 튼튼한 기초를 닦아 놓았습니다.

화학 공업 역시 중공업인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무기 화학 계통에서는 흥남 비료 공장을 비롯한 일련의 현대적인 대규모 공장들을 건설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기 화학 부문에서는 아직 해놓은 것이 적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비날론 공장을 건설하면 무기 화학에서 뿐만 아니라 유기 화학 방면에서도 커다란 기초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실정으로 보아 화학 공업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발전 전망도 대단히 큽니다.

오늘에 와서는 기술적 진보에서 기계화와 함께 화학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날론 공장을 건설해 놓는다면 화학화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기초는 더욱 튼튼히 축성될 것입니다.

리 승기 박사도 토론한 바와 같이 화학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에 있는 원료에 기초하여 화학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없는 원료를 가지고 화학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공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동무들이 아시다싶이 우리 나라에는 카바이드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가 매우 풍부합니다. 석회석이 무진장으로 있고 무연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력도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력 자원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력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또 무연탄을 가스화하면 연료와 동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화학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 생활의 향상과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나라는 경지가 적기 때문에 목화를 심어서 섬유 원료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주의 나라들 중에서 우리 나라는 경지 면적이 제일 적은 나라입니다. 공화국 북반부의 경지 면적은 2백만 정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과밭이요, 뽕나무밭이요 하는 것을 제외하면 실지 경지 면적은 불과 180만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적은 땅에서 알곡도 내고 가축 사료를 얻어내여 육류와 우유도 생산하자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 섬유까지 충분히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몇 해 동안 시험해 보았는데 우리 나라 기후 조건에서 목화는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화학 공업을 발전시켜 나무와 갈'대, 옥수수'짚 등으로 스프와 인견사를 만들며 카바이드에서 섬유를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프 공장을 많이 건설하고 비날론 공장, 염화 비닐 공장을 건설한다면 우리는 흉풍을 겪으면서 밭에서 자연 섬유를 얻는 것보다도 질 좋고 다양한 화학 섬유를 훨씬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며 그들의 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방도를 두고 구태여 없는 땅을 힘들게 개간하여 목화를 얻자고 할 필요가 어데 있겠는가?

2만 톤의 비날론에 해당하는 자연 섬유를 얻으려고 하면 20만 정보의 땅이 요구되는데 이만한 땅을 새로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계화를 한다고 하여도 새 땅을 얻는 데는 많은 로력과 자금이 요구되며 더우기 우리 나라에는 새로 개간할 만한 땅이 별로 없습니다.

화학화를 광범히 실시한다면 자연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고 화학 섬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 더 많은 비료와 농약 등을 공급해 줌으로써 농업 생산을 급속히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화학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섬유 원료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많이 요구되는 합성 고무도 앞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고무는 어디서나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뜨락또르나 자동차를 굴리려 해도 고무가 요구되고 여러 가지 인민 소비품을 만들려고 해도 고무가 요구됩니다.

건재 부문에서도 염화 비닐과 기타 합성 수지 공업을 발전시킨다면 철이나 목재 대신에 훨씬 값싸고 간편하고 보기 좋은 프라스마스재를 광범히 리용할 수 있습니다. 염화 비닐과 기타 합성 수지 원료로써는 훌륭한 비옷이나 신발도 만들 수 있고 가구, 문화용구, 장난'감과 가지각색의 소비품들을 훌륭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결정적으로 화학화의 방향에서 출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오래 전부터 화학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힘을 돌렸습니다. 리 승기 선생을 비롯하여 려 경구 선생 그리고 우리의 과학자들은 당의 지도 밑에 전쟁 시기부터 우리 나라 원료를 가지고 화학화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당의 옳은 령도와 과학자들의 인내성 있는 노력에 의하여 우리는 화학 공업 부문의 과학 연구 사업에서 찬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오늘 대규모의 비날론 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비날론 공장 건설의 거대한 의의는 그것이 1억 5천만 메터의 천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더욱 충분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화학 공업의 강력한 기지를 축성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공장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앞으로 화학 공업의 여러 가지 부문들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화학화를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당이 화학화의 기초를 조성하는 비날론 공장 건설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모든 힘을 여기에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나라 과학 일'군들이 연구 사업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우리 당이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 하나하나 체계 있게 건설하여 나간다고 하면 우리 인민은 아주 부유하게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은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화학화의 기초로 되는 비날론 공장의 제 1 계단 공사를 명년 5. 1절까지 끝낸다는 것은 곧 우리가 7개년 계획의 첫해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하나의 중요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가 이 방대한 공사를 단시일 내에 한다고 하면 조선 사람들이 무슨 허풍이나 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굳게 단결된 우리 인민은 당이 하자고 내세우는 과업을 못 해본 일이 없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특히 정전 후 6~7년 동안의 우리의 복구 건설 력사가 이것을 뚜렷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전 후 벽돌 한 장, 세멘트 한 그람, 철재 하나 없는 빈터에서 복구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함남도에 올 때마다 정전 직후 본궁 화학, 흥남 비료 공장 등에 처음 왔던 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 때의 비료 공장이나 본궁 화학 공장은 여지없이 파괴되여 형태조차 알아 보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그 길로 화학 공업 대학에 찾아 갔습니다. 그 당시 화학 공업 대학 학생들은 다 마사진 집 복도에서 토막 널판자를 깔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공장에 나가서 재'더미 속에서 부속품을 꺼내여 정비도 하고 조사 사업도 하고 설계도 하여 공장 복구에 방조를 주면서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정전 직후에 우리 나라 형편은 이와 같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들, 공장과 기업소들을 이렇게 혹심하게 파괴함으로써 조선 인민을 다시는 일어 서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원쑤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되였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동무들이 다 보는 바와 같이 비료 공장이나 본궁 공장은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것보다 몇 배나 더 좋은 공장으로 건설되였습니다.

우리는 중공업의 기지도 축성하였고 기계 제작 공업도 창설하였습니다. 수리화를 단시일 내에 기본적으로 완성하자고 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복구와 건설을 많이 하여 전쟁 전보다 경제적 토대가 더 튼튼해지고 생산력이 몇 배로 장성된 오늘 우리는 비날론 공장 건설 사업을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와서 돌아 보고 동무들의 높은 열의와 건설 성과에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동무들은 이미 많은 일을 해놓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초 공사들이 거의 완성되였고 이제는 건물을 세우고 설비를 설치하면 됩니다. 이것이 다 누구를 막론하고 일편단심 당 주위에 뭉쳐 당이 내세운 비날론 공장 건설을 속한 시일내에 완수함으로써 명년 상반년에 7개년 계획의 첫 고지를 점령하려는 동무들의 열성적 노력의 결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설은 자재를 제때에 생산 보장해 주고 운반해 준다면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습니다. 이 건설 공사에 관계된 공장, 기업소 일'군들은 반드시 필요한 강재, 목재 기타 자재들을 정확히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공장에 설치할 기계 설비를 제때에 훌륭히 생산 보장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날론 공장 설비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동무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과거 우리 나라가 락후한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무슨 일 하나 자체로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관차를 모는 일조차도 조선 사람들이 알가봐 두려워서 조선 사람은 겨우 화부노릇이나 시켰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조선 사람들이 무엇을 자체로 온전히 해볼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해방 후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밑에 과거에 해보지 못한 일들을 훌륭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민 정권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회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며 국가를 훌륭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 많은 현대적 공장과 기업소들을 건설하였고 그것을 다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본 일이 있는가?

지금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각종 기계 설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룡성 기계 공장에서 만들어 낸 8메터 타닝반같은 것은 그전에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던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이였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날론 공장 설비를 만드는 일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기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고 주저하며 동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일'군들 속에서 신비주의는 거의 없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신비주의를 타파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만 가지고 대담하게 실천한다면 설계도 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또 만들어 낸 것을 갖다가 장치할 수도 있습니다.

동무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하되 그것이 설치되여 아무런 지장이 없이 훌륭히 움직일 수 있게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생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수 부문에 있는 동무가 아까 토론한 데 의하면 생산된 자재나 설비의 운반 문제에 대해서도 근심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재와 설비가 제때에 보장되는 조건에서 문제는 건설하는 동무들이 짧은 시간 내에 건설하면서도 그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리 승기 박사도 토론한 바와 같이 건설 기간을 단축하며 그 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건설자들과 과학자들의 력량을 옳게 배합하여 서로 도와 주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처음하는 일인만큼 공사 과정에서는 반복 시공을 하는 일도 혹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시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과학자들과 건설자들, 설계가들이 다 서로 힘을 합하여 모든 공사를 기술적으로 정확히 보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장과 트레스트, 공사에 참가하고 있는 군부대 지도부와 성 기관에서는 조직 사업을 면밀하게 잘 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당면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과동 준비 사업입니다. 겨울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로동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을 더욱 강화하고 과동에 필요한 후방 공급 사업을 잘 하여야 합니다. 채소 기타 부식물의 보장 준비, 석탄 공급과 주택의 난방 장치 등 일체 과동 준비 사업을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설 공사에서는 겨울 동안에 지장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사전에 모든 작업 조건들을 잘 지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직 사업들을 진행하여 모든 문제들을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난관들을 돌파하고 전체 인민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비날론 공장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명년에 7개년 계획의 첫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지구에서의 방대한 공업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더 말하려고 합니다.

함흥과 흥남은 우리 나라에서 화학 공업의 중심 기지입니다. 이 기지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앞으로 많은 새로운 대책들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화학 공업 기지에 적응한 령도 체계가 수립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보다 더 강유력한 화학 공업을 건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화학 공업을 지도할 수 있는 령도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당 중앙 위원회에서 토론한 후 적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화학 공업 관리국이나 혹은 화학 공업성을 직접 여기에다 둔다든지 하여 관리 체계를 결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만 우리 나라 화학 공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전망성 있게 발전시킬 수 있고 강력한 화학 공업 기지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지구에서의 과학 연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리 승기 박사를 비롯한 화학자 및 기술자들과 며칠 동안 담화를 하였는데 그들은 화학자들이 다 흥남에 집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평양에 앉아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화학 공업의 기지에 화학 실험실이나 화학 연구소들을 설치하고 화학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연구 사업을 직접 생산과 결부시켜 진행할 수 있는 그들의 전당을 여기에 건설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사업과 생산을 밀접히 결부시키는 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함흥, 흥남 지구에는 이미 이러한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규모의 화학 공장들이 있고 새로운 공장들이 건설 중에 있고 또한 화학 공업 대학, 동력 대학도 있고 기타 조건들도 다 구비되여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함흥과 흥남은 공화국에서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화학 공업의 중심지로 되여야 하며 이에 적응한 령도 체계와 연구 체계들이 확립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하여야 할 것은 지금 흥남시에서 로동자들에 대한 공급 체계가 잘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남시 인민 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흥남에는 본궁 화학 공장, 흥남 비료 공장, 룡성 기계 공장, 제련소, 제약 공장 등이 있고 또한 여기에서는 방대한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요업 공장, 진구 공장 등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흥남과 함흥 지구에는 수 많은 로동자들이 집결되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공장들이 있는 조건하에서 과거와 같이 매개 공장이 자체로 로동자들의 먹을 것도 해결하고 주택도 짓고 생활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돌보아 주려고 한다면 공장의 발전에 지장을 가져 올 것입니다.

지배인이 공장을 잘 꾸리고 공장의 설비를 더 증강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본 문제에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배추가 몇 포기며 명태가 몇 키로그람인가 하는 생활 문제에 머리를 더 쓰게 됩니다. 물론 궁벽한 산간에 들어 가 있는 광산이나 탄광같은 데서는 이런 일까지 지배인이 다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큰 도시에 있는 공장들에서는 경리 부장이나 지배인이 로동 공급 사업에서 기본적인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시 인민 위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시 인민 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민 정권 기관으로서 시내에 있는 로동자, 사무원, 기술자들에게 주택을 보장하며 채소를 공급하며 육류를 공급하며 석탄을 공급하며 유치원, 탁아소, 목욕탕, 리발소 등 봉사 시설들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로동자들의 자제를 교육시키는 교육 기관을 창설하고 운영하는 일들도 해야 하며 극장, 영화관, 도서관 등도 잘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시 인민 위원회에서 이러한 생활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로동자들은 안심하고 공장에 나가 일할 수 있고 지배인은 공장의 생산 발전에 주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흥남시 인민 위원회는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남시 인민 위원회에서 호구 조사와 주민 등록 사업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무엇을 해 놓은 일이 있는가? 로동 공급 사업도 대부분 공장 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로동자들의 주택도 다 공장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목욕탕, 리발소 심지어 구급처까지 매개 공장에 설치되여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시 인민 위원회는 시내에 있는 생산 협동 조합이나 지도하는 외에 신통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방대한 공업 도시의 시 인민 위원회가 시 인민 위원회다운 역할을 하자고 하면 과거에 공장이 한두 개 있을 때의 낡은 사업 체계와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오늘 흥남시에서는 공장이 많아졌고 또 공장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금 흥남시의 인구는 약 13만 명인데 앞으로 공장들이 계속 건설된다고 하면 수만 명의 인구가 더 증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 만약 흥남 비료 공장이나 본궁 화학 공장 지배인이 로동자들에 대한 식량, 주택, 피복 문제를 맡아 본다면 그는 결국 경리부장의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며 공장 관리 수준의 제고, 생산과 기술의 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낡은 식의 시 인민 위원회의 사업 방법은 우리 천리마 시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인민 위원회는 응당 자기 사업을 개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군 당 사업을 개편할 것을 강서군 당에서 제기하였는데 흥남에 와 보고 이제는 시 인민 위원회 사업들을 새 환경에 맞게 개편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양시 인민 위원회는 금년에 자기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평양시 인민 위원회에서는 각 공장, 기업소 로동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더 관심을 돌리게 되였으며 시 인민 위원회가 주인이 되여 공장 로동자들의 주택을 건설하며 휴식 조건을 보장해 주고 편의 시설도 보장하여 주게 되였습니다.

흥남시도 평양시와 같이 자기 사업을 개편하지 않고서는 더 전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일을 공장 지배인이 하고 호구 조사만 하는 따위의 시 인민 위원회의 사업 체계를 결정적으로 뜯어 고치는 동시에 불합리한 행정 구역 체계도 반드시 개편하여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시 인민 위원회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흥남시와 함흥시를 한 개 시로 합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한 개의 대도시를 만들고 시 인민 위원회가 책임지고 시내 로동자, 사무원들의 모든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비날론 공장 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우리 나라 화학 공업의 기지를 조성함으로써 화학화를 위한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나는 함남도 당 단체와 비날론 공장 건설에 동원된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군인들, 그리고 련대적 책임을 진 각 기관, 기업소 일'군들이 최대의 열성을 발휘하여 이 공장 건설을 기한 내에 보장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력사적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전 조선 인민 앞에 조국 통일과 민족 번영의 새로운 위대한 강령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조국의 통일 문제에 대하여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과 평화적 통일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다시금 천명하고 새로운 방안들을 제기하였다.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김 일성).

조선에서 일체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조국의 통일을 전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외국의 간섭하에서가 아니라 조선 인민이 자주적으로, 강제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남북 조선 인민들의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총 선거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주장이며 확고 부동한 립장이다.

우리 당은 이 확고한 립장을 항상 견지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가능한 모든 방도를 다 강구하였다.

조선 문제는 조선 사람 자신의 문제이므로 조선 사람 자체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또 해결될 수 있다. 1945년 12월에 모쓰크바 3상 회의에서 조선 문제가 토의 결정되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에 벌써 우리 당은 이것을 확고히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1946년 신년사에서 민주주의 통일 전선 문제, 민주주의 국가 건설 문제가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문제는 결국에 가서 우리 조선 인민 자체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 민주 기지를 창설하고 이를 조국 통일의 확고한 담보로 만들데 대한 로선도 우리 당의 조국 통일에 대한 문제, 조선 혁명의 기본 문제에 대한 자주적인 립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미제 침략자들이 계속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앉아서 민족 분렬, 전쟁 도발을 흉모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우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강화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이 주체적 력량이 없이는 조국 통일을 주동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강화하는 문제가 선결적으로 요구되였다.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의 정당성은 그후의 사실들이 증명하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북반부 민주 기지가

제때에 창설 강화되지 않았더라면 지난 3년 간의 전쟁 시기에 우리 조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였으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또 오늘 공화국 북반부의 거대한 사회주의 력량이 없다면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그처럼 고무하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력사적 사실과 현실이 증명해 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 력사에서 외래 침략을 받은 수난의 시기를 한두 번만 겪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일치 단결하여 외래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 강토를 수호하였다. 가까운 실례로 일제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 우리 민족의 비운이 극도에 달했을 때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은 손에 직접 무기를 들고 강대한 적을 상대로 끝끝내 싸워 승리하였고 민족의 영예를 고수하였다.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지혜와 총명은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남김 없이 발휘되였다. 우리는 일제가 남겨 놓고 간 빈 터전 우에서 훌륭히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새 사회를 건설하였다. 특히 미제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3년간의 가렬한 전쟁을 겪고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 재'더미로 된 폐허 속에서도 락망함이 없이 용감히 일떠서 오늘의 지상 락원을 건설하여 놓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 인민이 자기 운명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늘 조선 인민은 자체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된 후에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복구하고 전 조선에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력량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력량이 비상히 장성 강화되고 혁명적 민주 기지가 반석같이 공고화되고 있는 사실이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는 결정적으로 승리하였으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튼튼히 구축되였다. 북반부 인민들의 정치 도덕적 통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오늘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력량의 급속한 장성은 조국 통일의 결정적 담보로 되고 있다.

북반부 인민들의 찬란한 성과에 고무되면서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이 항쟁의 불'길을 막을 힘은 없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 실현을 더욱더 앞당기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와 평화의 력량이 제국주의 세력을 단연 압도하고 있으며 승승장구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사실도 평화적 통일의 실제적 가능성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로선과 원칙이 날이 갈수록 그 정당성이 실증되며 그 실현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그의 주구들은 대세를 거역하고 사태를 외곡하면서 계속 평화적 통일을 방해해 나서고 있다.

리 승만 독재 《정권》이 전복된 후 남조선의 반동 지배층은 감히 《북진》을 떠벌리지 못하게 되였으나 《유엔 감시하의 선거》를 주장하면서 조선 문제 해결에 계속 미제를 끌어 들이려고 시도하

고 있다.

미국 침략자들의 감시 밑에서 자기 나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매국 배족한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실지로 지난 기간 남조선에서 《유엔의 감시》하에 진행된 수차례의 《선거》가 어떤 것이였는가를 조선 인민은 잘 알고 있다. 미제는 총칼로 인민들을 선거장으로 내몰았다. 그 어느 선거치고 야만적인 테로와 탄압, 협잡과 공갈로 날조되지 않은 것은 없다. 미제 총칼의 비호 밑에서 진행된 이러한 살인적 《선거》가 어떻게 인민의 민주주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겠는가.

더우기 《유엔》은 조선 전쟁에서 미제의 침략 도구로 직접 리용되였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이 어떻게 조선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유엔 감시하의 선거》란 결국 우리 조국을 영구히 분렬시키고 우리 인민을 미제의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는 흉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은 이러한 요구를 접수할 수 없다.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또한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의 실시는 《용공》으로 되며 《적화》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접수할 수 없다고 떠들고 있다. 심지어 장면은 경제 교류와 서신 왕래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리 승만 역도가 《평화 통일》이란 말만 하여도 《용공》이요, 《국시 위반》이요 하면서 검거, 투옥, 학살한 것과 다른 것이 없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운명을 우려한다면 결코 공산주의자들을 두려워할 수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철저한 애국자이며 민족적 리익의 옹호자이다. 과거 일제의 야만적 탄압 속에서 민족의 운명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일제를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15개 성상이나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여 민족의 영예를 고수한 사람들이 바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아니고 누구였던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인민을 새 사회 건설에로 인도하였다. 북반부 인민들은 이미 오래 전에 공산주의 사상을 접수하고 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되였다. 만일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라면 어떻게 북반부에서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고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였겠는가. 사실상 오늘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젖혀 놓고는 민족의 통일이란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엄연한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며 인민을 기만하여 민족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을 계속 미제의 식민지 통치하에 두려는 흉책밖에는 되지 않는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켜야 한다. 미제 침략군은 우리 민족 분렬의 원흉이며 조국 통일의 가장 큰 장해물이다.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있는 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실현될 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즉시 철거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자유로운 남북 조선 총 선거를 통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이란 것은 오늘 누구에게나 명백하며 론박할 여지가 없다.

김 일성 동지는 남조선 당국이 남조선이 다 공산주의화될가 두려워서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를 접수할 수 없다면 우선 민족적으로 긴급하게 제기되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과도적 대책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대책으로서 남북 조선의 련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남북 간의 접촉과 협상을 보장함으로써 호상 리해와 협조를 가능케 하며 호상 간의 불신임도 제거하여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의 실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파국에 처한 남조선 경제를 수습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남조선 당국이 이러한 련방제 실시까지도 접수하기가 곤난하다면 남북 조선의 실업계 대표들로 구성하는 순전한 경제 위원회라도 조직하여 남북 조선 간의 물자를 교역하며 경제 건설에서 서로 협조할 것을 재차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 간의 문화 교류, 자유로운 래왕과 편지 거래, 남북 조선의 군대 축소 등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며 남조선의 경제를 정상화할 데 대한 것도 거듭 제의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우리 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다시금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다.

이 모든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조선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흉금을 털어 놓고 서로 협의해야 한다. 우리 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와 손을 맞잡고 나갈 것이란 것을 루차 성명하였다.

오늘 우리 앞에는 조국 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고 있다. 이러한 국면 앞에서 조국 통일의 결정적 력량인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시기로 될 1961～1967년 간 인민 경제 발전 7개년 계획의 장엄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7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총 생산액은 2.5배 이상으로 장성할 것이며 알곡 총 수확고는 1.5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7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1967년 한 해 동안에만 1954년부터 1959년까지의 6년 동안 즉 전후 3개년 계획과 5개년 계획 수행의 전 기간에 걸쳐 생산한 것과 거의 같은 량의 공업 제품이 생산될 것이다. 그때에 가서 우리 나라에서는 한 해 동안에 170억 키로와트시의 전력, 2,300만 톤 이상의 석탄, 250만 톤의 강철, 430만 톤의 세멘트, 150만 톤의 화학 비료, 5억 메터의 직물과 140만 톤의 수산물을 생산하게 된다.

7개년 계획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7개년 계획의 거대한 의의는 무엇보

다도 그것이 우리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비할 바 없이 강화하는데 있다.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비상히 강화함이 없이는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수 없으며 조선 혁명을 주동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은 우리 혁명의 결정적 력량이다. 7개년 계획의 수행은 북반부 민주 기지를 철옹성같이 강화할 것이며 우리 혁명 력량을 비할 바 없이 장성시킬 것이다.

북반부에서의 혁명 력량의 비할 바 없는 장성은 남반부 인민들로 하여금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결정적 구국 투쟁에 나서게 할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리 승만 파쑈 독재 《정권》을 전복함으로써 자기들의 투쟁에서 거대한 첫 승리를 쟁취하기는 했으나 아직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했으며 그들의 생활상 요구도 해결하지 못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이 완전한 민주주의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이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철저한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남반부 인민들로 하여금 결정적인 반미 투쟁에 나서게 하는 것도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에 달려 있다.

7개년 계획의 수행은 장차 통일된 후 파괴된 남조선의 경제를 복구하고 인민 생활을 개선하는 강력한 물질적 담보로 된다. 우리 혁명 앞에는 조국을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된 후 미제에 의하여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급속히 복구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켜야 할 과업도 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힘을 보다 급속히 증대시켜야 한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7개년 계획은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 기술 혁신을 전개하고 부단한 전진, 부단한 혁신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인공적으로 량단된 우리 나라가 통일될 것은 력사 발전의 필연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여야 한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력량이 더욱더 강화되고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결정적 투쟁에 나설 때에 우리는 미국 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평화적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김 일성).

오늘 모든 정세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일떠 선 조선 인민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 남북 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위대한 강령을 받들고 더욱 용감히 투쟁하자.

우리 당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 전통의 위대한 생활력

하 앙 천

우리 인민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의 령도 밑에 지난 15년 간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 동안 걸려서도 하지 못한 일들을 수 많이 하여 놓았으며 조국의 륭성 발전과 후손들의 번영을 위한 백년 대계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락후한 식민지 농업 국가로부터 자립적 경제의 기초를 가진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의하여 나라의 생산력은 급격히 발전되고 있으며 인민 생활은 날로 유족하고 즐거워지며 조선 인민의 유구한 민족 문화는 찬란하게 꽃피고 있다.

실로 조선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과 기적적인 성과들은 형제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선량한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지어 우리를 반대하는 적들까지도 이 엄연한 사실을 부득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오늘과 같은 자유와 행복을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오래 동안 동경하고 또 이를 위하여 투쟁하였던가! 애국 선렬들이 갈망하던 리상은 오늘에 와서야 실현되였다.

조선 인민은 오늘의 자유와 행복이 우리 당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 전통이 있음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더욱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

* *

맑스-레닌주의 당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레닌은 사회주의가 빈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인류가 달성한 고귀한 유산과 혁명 전통을 기초로 하여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력사적으로 형성된 우수한 민족적 유산과 혁명적 전통의 의의를 거부하는 민족 허무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면서 《우리 인민의 투쟁 력사를 거부하고 무슨 밑천으로 혁명을 하겠는가? 이런 것을 다 버리면 우리 인민은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것으로 된다》(《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선집, 제 4 권, 1960년도 판, 329페지)라고 말씀하였다.

혁명 전통은 매개 민족들이 자기 나라의 혁명을 추진시키는 바탕으로 되며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자기 나라 현실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우리 당 규약 제 1조에는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의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일본 및 기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조선 인민의 혁명적 전통의 계승자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여 있다.

우리 당이 계승한 혁명 전통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형성된 고귀한 혁명적 유산이다. 이 전통은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 발전을 위하여 또는 우리 당이 혁명과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는 투쟁에 있어서 승리의 튼튼한 토대와 밑천으로 되여 왔다.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는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계급적 원쑤들을 항거하여 일어 선 애국적 및 혁명적 투쟁으로서 충만되여 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 일제를 반대하여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의 해방을 위한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장기간에 걸쳐 굽임 없이 전개되여 왔다. 그러나 조선 인민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이 민족 해방 투쟁이 백전 백승의 무기—맑스-레닌주의와 결합된 것은 1930년대부터이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진행된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처음으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정확한 로선과 전략 전술에 의하여 진행되게 되였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이전의 투쟁은 의병 운동이나 독립군 운동이나를 막론하고 모두 민족주의적 립장에서 자연 발생적이며 분산적으로 진행되였다. 10월 혁명 이후 2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 전개된 각종 투쟁들도 그것이 비록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영향 밑에 맑스-레닌주의의 사상에 고무되면서 진행된 것이기는 하나 진정한 공산주의적 령도 핵심을 가지지 못한 조건하에서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하였으며 혁명적 리론과 실천의 유기적 통일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항일 빨찌산 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혁명 전통은 선행 시기의 모든 우수한 유산들을 계승하고 사회 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혁명 투쟁의 새로운 추세에 적응하게 그를 일층 발전시킴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혁명 전통은 필승 불패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철두철미 맑스-레닌주의적 전통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신념과 정열과 지혜와 투쟁의 결정체이며 그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맑스주의 사상에 대한 굳은 신념은 항일 빨찌산들의 량식이였다. 항일 빨찌산 투쟁의 위대한 힘과 생활력은 바로 그가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에 의하여 지도된 데 있다.

동시에 이 전통은 자체에 고유한 일련의 특성들로 말미암아 더욱 비할 바 없는 위력과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

그 특성은 이 전통이 극히 간고한 투쟁 속에서 형성되였으며 또한 준엄한 시련 속에서 검증된 데 있다. 일반적으로 혁명 전통은 간고한 투쟁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이 투쟁은 매개 나라가 처한 환경과 조건, 구체적인 계급적 력량 관계, 투쟁이 진행되는 기간 등 구체적인 실정으로 말미암아 그 간고성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 당이 계승한 혁명 전통은 력사에서도 보기 드문 장기적이고 간고한 빨찌산 투쟁 속에서 형성되였다. 항일 빨찌산이 상대로 한 적은 수량상 많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야만적이며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 제국주의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이러한 적을 상대로 하여 15 여 성상이나 영용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적과의 투쟁에서 항상 승리하였다. 이것은 결코 쉽게 얻어낸 승리가 아니였다.

이와 같은 어려운 투쟁 속에서 형성된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은 어떤 간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필승 불패의 신념을 북돋아 주며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낳게 한다.

다음으로 이 전통은 우리 인민의 탁월한 령도 핵심인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결합된 자원적 집단—항일 빨찌산에 의하여 형성되였다.

항일 빨찌산 집단의 의식성과 자원성은 언제나 혁명의 신심을 굽히지 않고 온갖 곤난과 애로를 뚫고 나가는 혁명 투사들의 의지의 통일과 굳은 단결의 힘의 원천으로 된다.

다음으로 이 전통은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와 국제주의적 단결의 뉴대에 의하여 형성되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각계 각층 인민의 반일적 진출과 결합되여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혁명 운동의 대중적 지반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들은 투쟁의 전 행정을 통하여 쏘련을 무장으로 보위하며 중국 인민과 공동 투쟁을 진행하며 시종일관 국제 혁명 력량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과감한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항일 빨찌산 투쟁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불가분적 통일의 산 모범으로 된다.

다음으로 이 전통은 자체 속에 혁명에 필요한 고귀하고도 풍부한 모든 경험을 전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우리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인 준비로부터 통일 전선, 인민 정권 형태, 교육 문화 정책, 인민 무력 건설에 이르기까지 일체 문제들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완전한 해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들에서의 사업, 조국 광복회와 민족 해방 동맹 등 조직체를 통한 사업 등 항일 무장 투쟁의 전 행정을 통하여 실천에 옮겼으며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창건의 력사로 보아서는 청소함에도 불구하고 혁명 앞에 나서는 어렵고도 복잡한 과업 수행에서 능란하고 솜씨 있는 조직적 수완과 능력을 발휘하는 굳센 당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해방 후에 창건되였으나 빈터에서 창건된 것이 아니라 항일 빨찌산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직접 계승하고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형성되고 검열된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레닌적 령도 핵심에 의하여 창건되였다. 이것이 우리 당의 력사적 근원이며 뿌리다. 해방 후 우리 당은 이 령도 핵심에 의하여 지도되였으며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작성한 로선, 정책과 축적된 경험은 해방 후 새로 조성된 정세에 적응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발전되였다.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사업은 미제와 그 앞잡이 매국노들을 반대하는 조

국 전선 사업으로 확대 강화되였고 인민 정권 형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국가 주권 기관들로서 구현되였다. 항일 빨찌산을 골간으로 하여 조선 인민군이 창건되였고 이 인민 무력이 있음으로 하여 조국 해방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조국 광복회의 10대 강령은 해방 후 김 일성 동지가 발표한 20개조 정강으로 발전되였으며 이것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의 모체로 되였다.

우리 당이 강한 원인이 바로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을 계승한 데 있으며 우리 당의 힘의 원천이 바로 이 뿌리가 튼튼한 데 있다. 1925년에 창건된 조선 공산당을 마사먹은 박 헌영, 최 창익 등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은 해방 후 남조선의 혁명 운동을 파괴하고 북반부의 민주 기지마저 파괴하려고 악랄한 책동을 하였으나 우리 당이 의거하고 있는 이 뿌리와 이 뿌리에 의하여 성장한 대중의 혁명 력량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우리 당은 장기간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인민 대중 속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당과 혁명의 원쑤들도 이것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겁내며 될수만 있으면 이 뿌리를 짓밟으려고 어리석게도 발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쑤들의 발광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당의 뿌리는 약화된 것이 아니라 더욱 힘있게 뻗었으며 더욱 그 위력을 과시하였다. 우리 당의 뿌리는 어느 때나 흔들리지 않았고 이 뿌리에서 솟아 나온 가지들은 힘있게 자라났고 잎은 더욱 무성하여졌으며 꽃은 더욱 만발하게 되였다.

우리 당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 전통은 이처럼 무궁무진한 불패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일 빨찌산들이 이룩하여 놓은 사상 체계,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 등에 대한 혁명 전통 교양 사업은 우리 당 사상 사업에서 선차적인 과업으로 되여 왔으며 또 되고 있다.

혁명 전통 교양은 우리 당이 자기 주체를 살리며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우리 당 사상 사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혁명 전통은 그 자체가 우리 혁명의 주체적 특성을 철저하게 살린 모범으로 되기 때문에 혁명 전통의 계승 그 자체는 우리 당 사상 사업에서의 주체를 살리는 것이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지도부의 의도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당적 사상 체계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 시기 우리 혁명 앞에 제기된 과업에 비추어 우리 당에 의한 혁명 전통 교양은 사상 사업에서의 교조주의, 민족 허무주의적 편향들을 극복함에 있어서 결정적 힘으로 되고 있다.

동시에 우리 당의 혁명 전통 교양은 현 시기 공화국 북반부를 단일한 정치 력량으로 전변시키며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을 남김 없이 당의 붉은 전사로 만드는 공산주의 교양 사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현 시기 우리 당이 추구하고 있는 공산주의 교양의 종국적 목적은 근로자들을 참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하는 데 있다. 그런데 바로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우리는 항일 빨찌산 투사들에게서 본다.

우리 당이 계승한 혁명 전통은 바로 이러한 참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형성되였으며 바로 공산주의적 사상, 공산주의자의 위대한 행동들의 집중적 발현들이다. 우리 당이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함에 있어서 혁명 전통 교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왜 우리는 혁명 전통을 계승해야 하는가? 혁명 전통을 계승해야만 선렬들이 과거 혁명 투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할 수 있으며 매개 사람들에게 열렬한 애국심과 혁명적 투지를 북돋아 줄 수 있다》(《량강도 당 단체들의 과업》 선집, 제 5권, 1960 년도 판, 503페지)라고 교시하였다.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 조국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 사업의 성과적 수행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 ❊

최근 년간에 우리 당은 정치 사상 사업 전반에 걸쳐 혁명 전통에 대한 교양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다.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들 속에서 혁명 전통에 대한 학습과 연구는 일대 사회적 기풍으로 되였다.

우리는 직장 안에서만 아니라 기차와 뻐스칸에서 공원과 유원지에서도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읽기에 여념이 없는 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회상기는 무려 40~50만 부씩이나 발행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점에서는 하루 사이에 다 팔리고 말았다. 평양 견방직 공장 박 봉녀 동무는 회상기를 전부 정통하여 가지고 담화 대상의 특성에 따라 한 대목씩 리용하고 있으며 청산리 문 정숙 작업반에서는 분공 륜독의

방법으로 학습하여 매 개인이 그 내용을 소유하게 한다. 이렇듯 혁명 전통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열의는 비상히 제고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 간 중국 기자 대표단 동무들은 자기들의 소감을 이렇게 쓰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국토상에서 어디를 가던지 항일 빨찌산 시기의 혁명 가요를 듣게 된다…혁명 가요는 라지오 방송에서도 매일 울려 나오고 있다. 모든 학교들에서 항일 빨찌산 시기의 혁명 가요를 배우고 있다. 우리들이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관람한 몇 개의 공장 및 농업 협동 조합 써클 공연에서도 첫 종목은 모두 항일 빨찌산 시기의 혁명 가요 합창이였다》.

혁명 전통 교양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논 것은 로동당 력사 연구실 운영과 함께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와 그들과의 상봉 모임 등이였다. 또한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창작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서광》, 《붉은 기'발 휘날린다》, 《밀림아 이야기하라》, 《불사조》, 《미래를 사랑하라》, 《벗들이여 우리와 함께 가자》 등 작품들의 출판과 공연, 상영을 통한 대중적인 교양은 항일 빨찌산의 정신 세계를 더욱 폭 깊게 인식하게 하였다.

혁명 전통 교양을 통하여 우리의 근로자들은 모두 항일 빨찌산의 혁명 사상과 투쟁 정신으로 무장하며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새 형의 인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되고 있다. 항일 빨찌산들의 매개 영웅들의 형상은 우리의 머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그들의 높고 거룩한 정신 세계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불멸의 불'길을 타 오르게 하고 전진할 용기를 북돋

아 주고 있다.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정신과 사업 작풍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기술, 문화 각 부문에 침투되면서 천지를 뒤집고 세인을 경탄케 하는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천리마의 기세로 내닫는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불러 일으킨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의 위력은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된 혁명 전통의 실생활에의 구현의 산물이다. 국제 반동의 반쏘 반공 깜빠니야와 이에 발맞추어 미제의 충복 리 승만 매국 도당의 《북진》 소동이 계속되고 우리 내부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의 책동이 감행되고 경제적으로도 곤난한 환경 속에서 우리 당은 대중의 지혜와 력량을 동원하는 군중 로선에 의거하여 곤난을 극복하며 내부 원천을 발동하여 우리 자체의 힘으로 제 1차 5개년 계획을 초과 완수할 방도를 찾았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 과업 수행에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주체성 있게 적용할 줄 아는 능숙성, 난관 극복의 강인성, 승리에 대한 확신성과 예견성, 대중을 믿고 대중에 의거하는 혁명가적 사업 작풍 등 고귀한 혁명 사상의 발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항일 빨찌산이 이룩한 혁명 전통이 얼마나 거세찬 힘을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들에게 고무적 힘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당 정책 관철에서의 천리마 기수들의 높은 자각성과 책임성, 불요불굴의 완강성과 고도의 창의 창발성에서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1959년 5월 30일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상무 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에서 첫 봉화를 올린 주을 아마 공장 로동자들은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은 손에 한 조각의 쇠부치도 없이 총과 수류탄을 만들어 내였다는데 현재 우리는 공작 기계를 세대씩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왜 공작 기계를 더 만들 수 없겠는가! 하고 궐기한 결과 44대의 각종 공작 기계와 2대의 반 자동화된 용선로를 생산하였으며 아마 직물을 짤 수 있는 완전한 직기와 로쁘 기계를 생산하였다. 룡성 기계 공장 주 성일 영웅은 더 많은 기계와 부속품을 깎아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보내라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실천함에 있어서 곤난에 부닥칠 때마다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승리에 대한 신심과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리하여 그는 대중의 지혜를 발동하여 100날이 걸려야 한다던 압연기 스텐드를 단 15일 동안에 가공하였으며 우리 나라 기계 공업 발전에 일대 기술적 혁신으로 되는 8메터 타닝반을 제작하였으며 3,000톤 프레스를 제작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였다. 평양 의학 대학 병원 안과 과장 정 성희 동무는 인민의 의사가 되라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과학적인 환자 치료 사업을 더욱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연구 실험에서 실패하고 애로가 생길 때마다 회상기와 연극 《불사조》 속에 나오는 항일 빨찌산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곤난을 극복하고 계속 인내성 있게 연구 사업을 거듭하였다. 그 결과 끝내 각막 이식 수술에 성공하여 앞 못 보는 환자의 눈을 500 여명이나 눈 뜨게 하여 《현대의 심청》이라는 찬양을 받게 되였다.

황해 제철소의 용광로 복구를 위한 투쟁, 해주-하성 간의 철도 부설 공사, 8.15 해방 15주년을 기념하여 완공된 평양 대극장, 옥류교 건설 등 천리마 기수들이 달성한 기적적 성과들은 우리 근로자들의 당 정책 집행에서의 무한한 충실성을 보여 주었으며 조선 인민의 고도의 애국주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세계에 시위하였다.

이 모든 것은 혁명 전통 학습을 통하여 당과 혁명에 충실하며 무엇이든지 극복 못 할 요새가 없다는 공산주의 투사들의 품성을 배웠으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긴 결과 얻어진 고귀한 열매들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이 발휘하고 있는 불요불굴의 강의성의 특성은 그것이 어떤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일관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과거 우리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들에도 물론 간고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일관한 지속성이 부족하였다. 오직 맑스-레닌주의의 유물 변증법에 철저히 립각한 항일 빨찌산들의 투쟁과 이 투쟁 과정에서 이룩된 혁명 전통을 계승한 오늘의 우리 인민들의 불요불굴의 강의성과 난관 극복의 투쟁만이 끝을 모르며 정체와 약화를 모르는 일관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혁명성을 보여 주면서 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능력을 발동시켜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 적극 로력하는 대중적 영웅주의, 집단적 혁신 운동으로 표현되였다.

천리마 행군에서의 혁명 전통의 위대한 생활력은 이 운동 참가자들이 단순히 생산 계획을 초과 완수하는 데서만 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료원의 불'길과 같이 일어나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비단 이 운동 참가자들을 경제 건설에서의 생산 혁신자로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능숙하고 세련된 관리 일'군, 정치 일'군으로 만들며 당의 군중 로선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조함으로써 새 형의 공산주의 투사를 육성하는 사회주의 경쟁의 가장 높은 새로운 형태이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위대한 공산주의의 학교》로 되고 있다. 이리하여 이 운동 참가자들은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사는 새 형의 인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평양 제사 공장 길 확실 영웅을 비롯한 천리마 기수들은 모두 당에 의거하여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각계 각층 군중을 쟁취하여 교양 개조함으로써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우수한 정치 일'군들이다. 그들은 항일 빨찌산들의 군중 공작 방법인 설복과 교양의 방법을 지침으로 삼고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몸소 모범을 보이며 군중의 실정을 료해하며 아픈 점과 애로를 해결하여 주며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양을 주어 긍정적인 측면을 키우고 부정적인 측면을 퇴치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자유주의 습성이 농후한 고아에게 영화 관람을 통하여 자기 부모가 어떻게 희생되였는가를 회상시켜 점차 그를 각성시켰으며 말 안 듣고 일 안 하고 써클만 좋아하는 동무에게는 써클 사업에 대한 분공을 주고 우점을 발견하여 찬양하여 주는 한편 그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그를 점

차 개조하였으며, 계모 슬하에 동생을 두고 근심에 쌓여 사업에서 열성을 잃은 동무에게는 계모를 감동시키는 편지를 써서 계모까지 개조함으로써 그의 적극성을 발동시키는 등 《적대 분자를 제외하고는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다. 특히 자기 수입이 낮아지고 곤난이 많은 것을 예견하면서도 자진하여 락후한 작업반에 달려 가서 온갖 애로를 극복하면서 그 반을 선진적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는 이 운동은 공산주의 교양 사업에서 거대한 정치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 이룩된 혁명적 군중 공작 방법은 이렇듯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활짝 꽃피고 있다. 특히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에서 산 모범으로 구현된 《청산리 정신》은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심장을 장악하면서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과 인간 의식의 개변에서 위대한 전변을 가져 오고 있다.

항일 빨찌산들의 원칙적 단결과 동지애의 모범은 오늘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의 전체 당원들의 강철같은 통일과 단결에서 집중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우리 나라 로동 운동을 분렬시키며 각종 파괴적 책동을 감행하던 종파 분자들을 청산하고 1920년대부터 내려오던 종파주의의 력사적 오물을 제거한 것은 가장 큰 성과의 하나이다.

특히 전후 시기에 이르러 농업 협동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승리적으로 완성되고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동지적 단결은 그의 계급적 기초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오늘 우리의 동지적 단결은 호상 방조와 신뢰, 사랑과 존경으로써 특징되는바 이것이 어디까지나 우리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투쟁 속에서 발현되고 있다는 데 그의 위력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 위대한 생활력을 시위하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바로 《동지 호상간의 우애와 방조를 강화하는 것을 집단 생활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수 많은 천리마 기수들은 《한 홉의 미시'가루》, 《이 총을 받아 주!》, 《돈화의 수림 속에서》 등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에서 참다운 인간 관계의 모범을 찾았다. 추운 겨울에 이동 판매차를 밀고 다니는 동지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제 손으로 장갑과 보선을 기워 준 당의 상업 전사가 있는가 하면 어린 학생을 데리고 모내기에 나가 자기 몸의 아픔과 괴로움을 무릅쓰고 의복과 넥타이를 전부 빨아 주는 붉은 교원이 있고, 일손이 없어서 곤난해 하는 후방 가족에게 물을 길어 주고 나무를 하여 주는 농업 전선의 모범 일'군들이 있는가 하면 앞을 잘 못보는 남편에게 당 정책을 알려 주면서 그 사업을 방조하여 농장 천리마 작업반장까지 되게 한 마음씨 고운 안해가 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눈물 겨운 사실들인가!

※ ※

해방 후 15년 간 우리 인민이 달성한 성과는 실로 거대하다. 그러나 우리 조국은 아직 통일되지 못하였다.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과업이 제기되고 더욱 힘찬 투쟁이 요구된다.

김 일성 동지가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제시한 7개년 계획의 강령적 과업과 기술 혁명 과업을 성과 있게 실천하며 조국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새 방안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에서 더욱 정력적인 혁명 전통 교양이 필요하다.

공화국 북반부의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을 항일 빨찌산의 사상 체계로 무장시켜 물질-정신적으로 주체적인 력량 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남반부의 로동 계급과 전체 애국적인 인민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리해시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에서 가장 철저한 애국자이며 적들의 감옥과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민족의 지조를 지켜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온갖 난관과 신고를 다 겪으면서도 오직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기를 들고 15 여 성상이나 피어린 투쟁을 한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조선 인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그 정체를 은폐하기 위하여 소위 《반공》을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력사와 현실이 똑똑히 증명하여 주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철저한 애국자이며 민족의 리익의 가장 충실한 옹호자일 뿐만 아니라 민주와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가장 철저한 투사들이다. 이것은 오늘 남조선에서 진정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참으로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공산주의자를 반대하고 《용공》을 반대할 아무러한 리유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국토를 량단시켰으며 남조선 인민을 기아와 실업과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은 미제와 그 앞잡이인 소수 매국 도당들이다. 전체 조선 인민의 투쟁의 화살은 여기에 집중되여야 한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혁명 력량이 더욱 강화되고 남조선 로동 계급과 모든 애국 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결정적 투쟁에로 나설 때 미제 침략자는 물러 가게 되고 조국은 평화적으로 통일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국제 국내적으로 보다 유리한 정세에 처하여 있다.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 체계는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남반부에서 인민 항쟁의 불'길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들은 쏘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모든 력량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 경주하여야 한다.

조국 통일의 위업을 촉진시키며 사회주의의 더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더욱 계승 발전시카며 이 땅 우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공산주의의 위력을 과시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천리마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제차게 전진하자.

반관료주의 투쟁을 위한 강령적 문헌

(1955년 4월 1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보고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가 가지는 력사적 의의)

김 진 택

조선 로동당이 조선 인민의 믿음직한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옳게 수행함에 있어서 당 사업 방법을 개선하며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금년 2월에 있은 김 일성 동지의 강서군과 청산리에 대한 지도가 모든 분야에서의 사업에 새로운 활기와 고조를 이룩한 것은 바로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의 개선이 혁명 발전 전반에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똑똑히 보여 준다.

우리가 만약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과소 평가한다면 그것은 혁명 사업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1955년 4월 전원 회의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일 우리 당과 정권 기관의 일'군들이 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그릇된 사업 작풍과 방법으로 하며 광범한 군중을 이 사업에 동원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의 정당한 정치적, 조직적 대책들은 모두다 수포로 돌아 가고 말 것이다》(《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선집, 제 4권, 1960년도 판, 239페지).

우리 당은 그의 창건 첫날부터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잡는 문제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이에 있어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반관료주의 투쟁이였다.

우리 당에 있어서 반관료주의 투쟁은 심지어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의정에 독립적인 문제로서까지 제기되였다. 이것은 반관료주의 투쟁이 우리 당내에서 얼마나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되였는가 하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 당 발전의 특수한 사정과 관련된다.

우리 당은 해방 후에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장기간의 혁명 투쟁에서 검열되고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을 지도적 핵심으로 하여 창건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인민 대중을 혁명의 승리에로 능숙하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당 창건 초기에 우리 당에는 혁명 사업의 경험을 가진 일'군들이 비교적 적었다. 그런데 우리 당 앞에는 당 대렬의 조직 사상적 강화를 위한 사업과 새 국가 건설을 지도하는 과업이 동시에 제기되였다. 그리하여 당은 혁명 사업의 경험도 없고 정치 실무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적지 않은 일'군들을 당 및 정권 기관과 경제, 문화 기관들에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의 적지 않은 일'군들

속에서 낡은 사회 지배 계급의 통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부분적이나마 나타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당내에서 반관료주의 투쟁이 날카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한때 당의 지도적 위치에 우연히 기여든 반당 종파 분자들이 낡은 행정식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을 류포시키고 조장시킨 사실과 관련된다.

본래 우리 당은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적 군중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계승하였으며 또 이 줄기가 있음으로 하여 비록 당의 력사는 청소하나 총체적으로 인민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보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에 잠입한 소수 시정배들은 자기들의 개인적 정치적 야욕을 추구하면서 우리 당이 계승한 혁명 전통 전반을 말살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자기들의 《틀》을 만들어 놓고 썩어빠진 관료주의적 사업 방식을 적극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혁명적 사업 방법을 소유하지 못한 적지 않은 일'군들이 이것을 본받게 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일'군들의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퇴치하는 문제는 당이 대중 속에서 지도적 역할과 전투적 기능을 부단히 제고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군중 로선의 관철을 전 당적인 문제로서 항상 강조하여 왔으며 낡은 사업 방법과 틀을 마스기 위한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력사적인 2월 연설을 비롯한 많은 교시들에서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옳게 인식하며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작풍을 체득할 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였다.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인민적인 사업 작풍을 확립하는 문제가 결코 하루 이틀에 한 개의 깜빠니야로써 해결될 수 없는 것만큼 당과 김 일성 동지는 변천되는 환경과 제기되는 새로운 혁명 과업에 따라 부단히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하여 왔다.

특히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 본격적으로 들어 서는 시기에 우리 당은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반관료주의 투쟁을 가장 긴박한 문제의 하나로서 제기하였다.

그러면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 본격적으로 들어 서는 시기에 왜 이 문제를 그와 같이 날카롭게 제기하였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은 기백만 대중의 창조적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대중의 자각적 열성의 비상한 제고를 요구한다. 더우기 전후 시기 극히 어렵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근로 대중의 비상한 정치적 열성과 창발성을 요구하였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붙을 건 동시에 대중의 창발성을 억제하는 관료주의에 대하여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게 되였다.

다시 말하면 당은 전후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인 보장을 위하여 대중의 의식적 활동을 제고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전면적인 반관료주의 투쟁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과업을 제기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견성 있고 능숙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고조를 불러 일으킨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의 대담하고 현명한 조치들이 빈터에서 실현된 것은 결코 아니다.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 전 당적인 반관료주의 투쟁을 위한 예견성 있는 조치는 대중의 정치적, 로력적 앙양을 위한 실제적 조건들을 이미 한걸음 한걸음 조성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55년 4월 전원 회의에서의 김 일성 동지의 보고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가 가지는 력사적인 의의는 전후 사회주의 건설의 초기

에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잡을 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줌으로써 대중과 지도 일'군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였다는 데 있다.

보는 바와 같이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작풍을 시정할 데 대하여서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일'군들이 사업 작풍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며 그들의 지도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할 데 대하여 교시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보고에서 제기한 문제들과 명제들은 당시 즉 사회주의 건설의 초기에서만 값은 리론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늘에 있어서도 그의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반관료주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변천된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게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잡는 문제는 계속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 ❇

반관료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관료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옳게 파악해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관료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관료주의—이것은 봉건 제도나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절대 다수의 피압박 인민 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지배 계급들의 반인민적 통치 방법이다》(우와 같은 문헌, 239페지).

이 규정은 관료주의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에 대한 가장 결정적 투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된다. 소수 착취자들이 인민 대중을 억압하는 방법은 인민 자신이 정권을 행사하는 우리 제도하에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관료주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 우리 제도하에서의 령도 방법과 작풍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제도하에서는 관료주의를 산생할 그 어떤 사회적 근원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 일'군들의 사업에서는 관료주의적 작풍이 종종 발로되는가.

그것은 우리 일부 일'군들이 개인 리기주의, 출세주의, 고용자적 노예 근성 등의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 데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혁명과 당의 리익이 자기의 리익보다 높다는 것을 실제에 있어서 모르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일'군들의 사업에서 발로되는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우선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이라고 지적하였다. 《관료주의는 과거 리조 봉건 제도나 일본 제국주의 통치 제도에서 물려 받은 썩어빠진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이다》(우와 같은 문헌, 241페지).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이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인만큼 이는 하루 이틀 동안에 갑자기 소멸될 수는 도저히 없으며 그를 퇴치하기 위하여서는 봉건 사상 또는 부르죠아 사상을 반대하는 일상적이며 체계적인 사상 투쟁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관료주의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로서 낡은 사상 잔재, 낡은 사업 방법을 반대하는 심각한 사상 투쟁을 제기하였다.

반관료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투쟁과 함께 관료주의 작풍이 나올 수 없게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또한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들은 관료주의의 근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청산하기 위하여 심각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관료주의를 퇴치할 수 있는 실제적 대책들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248페지).

그러면 이 실제적 대책들이란 무엇인가.

우선 그것은 정확한 령도 방법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방법이란 대중을 교양하여 대중 자신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각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맑스주의자들은 령도의 정확성 여부를 대중이 얼마나 자각적으로 발동되며 당 주위에 단결하는가 하는 데서 그의 척도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당적 령도 방법은,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마비시키고 그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마비시키는 관료주의적 방법과는 도저히 량립될 수 없다.

령도 방법에 대하여 교시하면서 김 일성 동지는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는 원칙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일반적 지도는 일'군들의 지도 사업에 목적 의식성과 방향을 옳게 잡게 하며 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적 지도를 가능하게 하며, 개별적 지도는 해당 지역의 구체적 실정과 대중의 의식 수준에 적응하는 구체적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지도 사업에서 량자 중 그 어느 것이라도 결핍된다든지 또는 량자가 옳게 배합되지 못한다면 그 지도 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반적 지도에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킴으로써만 당의 결정과 지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 조건과 대중에게 적합한 투쟁 형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사업의 중심 방향을 명확히 알고 경중을 갈라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249페지).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결합은 당적 지도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의 하나이다.

김 일성 동지의 모든 현지 지도가 항상 대중을 새로운 정치적 열성과 로력적 위훈에로 불러 일으키는 요인의 하나는 바로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능숙하게 결합시키는 데있다. 우리 일'군들이 오늘과 같이 자기의 지도 능력과 수준을 현저히 제고 시킬 수 있은 것은 정확한 령도 방법에 대한, 특히는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결합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열심히 연구하고 그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노력한 데 크게 의존된다. 우리는 계속 이 령도 예술을 더욱 심오히 연구하며 부단한 실천 과정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며 세련시켜야 한다.

령도 방법에 대하여 교시하면서 김 일성 동지는 모든 사업의 집행에서 설복과 해설의 방법을 관철시킬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오직 설복과 해설의 방법만이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하고 대중의 자각적인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게 하며, 대중의 자각적인 투쟁이 있어야만 혁명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 지모와 개별적 지도의 결합, 설복과 해설의 방법 등이 지도 사업의 성과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지만 물론 이것이 령도 방법의 전부로는 될 수 없다. 이 원칙과 함께 우리 당 지도부가 항상 능숙하게 실현하였으며 특히 최근 시기에 와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문제들 즉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 시키는 문제, 중심 고리를 옳게 포착하여 그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는 문제, 집체적 협의제를 강화하는 문제 등등은 모두다 맑스주의적 령도 방법의 불가결의 요소들이다. 이 모든 원칙들을 옳게 소유하고 실천에서 원만히 적용할 때에만 우리는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대중에 대한 지도를 보장할 수 있다.

령도 방법이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혁명 정세의 변천에 따라 령도 방법은 부단히 발전하며 완성될 뿐만 아니라 혁명 과업의 성격에 따라 령도 방법의 이러저러한 측면들이 더욱 완성되며 더 중요하게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

술한 제 원칙들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부차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단언할 수도 없으며 또 단언해서는 안 된다. 가령 1955년 4월 전원 회의 당시 김 일성 동지는 령도 방법 일반에 대하여 교시하면서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원칙을 특별히 강조하였다면 최근 변천된 환경에서 중심 고리 포착에 대한 문제, 정치 사업 선행에 대한 문제를 더욱 강조하였으며 또 이런 측면들을 통하여 당의 령도 방법을 새로운 수준에로 제고시켰던 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우리 당 지도부가 발전시키고 있는 령도 방법의 제 측면들 특히 군중 공작 방법의 산 모범인 《청산리 사업 방법》을 전면적으로 연구 체득하며 그것을 구체적 혁명 과업 해결과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더욱 심화시키는 데 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결합의 원칙이 오늘에 와서 그의 의의를 상실하였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 원칙은 상술한 바와 같이 어느 때 어느 곳에 있어서든지 지도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준수되여야 한다.

다음으로 김 일성 동지는 관료주의를 반대하며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실체적 조치로서 일'군들에 대한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원래 작풍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군들의 성격상 문제 또는 능력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일'군들의 세계관, 사상 관점 또는 당적 사상 체계와 관련되여 있는 것이다. 옳바른 사상 관점이 서지 않고 당적 사상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일'군들에게서 우리는 인민적 사업 작풍을 기대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옳은 계급적 립장, 당적 립장에 서는 것—이것이 바로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하는 전제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지난 시기의 경험은 일부 일'군들이 그릇된 사업 작풍을 발로시키는 원인이 적지 않은 경우에 그들이 우선 옳은 사상 관점, 당적 립장에 서지 못한 데 기인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의 적지 않은 일'군들이 그릇된 사업 작풍을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리유의 하나는 그들이… 혁명적 원칙, 로동 계급의 립장에 튼튼히 서지 못한 데 있다》(우와 같은 문헌, 250폐지).

그렇기 때문에 반인민적인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과 기타의 모든 그릇된 사업 작풍을 퇴치하고, 인민적 사업 작풍을 체득하기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적 세계관으로 더욱 확고히 자기를 무장하며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로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우리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에서 사소한 편향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항상 모든 사업을 혁명의 관점에서, 당과 인민의 리익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품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251폐지).

이 문제는 4월 전원 회의 당시에만 날카롭게 제기된 것이 아니라 오늘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적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우리는 계속 이 방면에서 노력해야 하며 투쟁해야 한다.

또한 김 일성 동지는 관료주의를 퇴치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로서 집체적 지도 원칙을 강화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집체적 지도는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에서 개인의 주관적 독단을 방지함으로써 문제 처리에서의 일면성과 우연성을 극복하고 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보장한다. 만약 우리 일'군들이 사업 집행에서 다수의 의견과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집체적 지혜에 충분히 의거한다면 관료주의의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집체적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과 국가의 각급 지도 기관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252폐지)라고 교시하였다. 이 교시는 사회주의 건설이 급속히 진척되고 우리 앞에 복잡하고 방대한 과업이 제기됨에 따라 더욱더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당 중앙 위원회는 최근 시기 국가 및 경제 문화 기관들에서 당 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다. 례하면 국가 기관 및 경제 문화 기관 등 모든 기관들에서 당 위원회가 최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데 대한 사업 체제를 확립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방지하며 당의 정책과 로선을 더욱 성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된다.

끝으로 김 일성 동지는 관료주의를 퇴치하며 옳바른 사업 작풍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군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일'군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문제는 오늘 새로운 각도에서 즉 새로운 방대한 혁명 과업이 제기된 조건에서 더욱 긴절하게 제기된다.

원래 우리의 적지 않은 일'군들은 해방 후부터 처음 혁명 사업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그의 정치 리론적 수준이 높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는 사업은 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으며 또 옳바른 사업 작풍을 수립하는 것도 이와 많이 관련되여 있다.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 우리의 많은 일'군들은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아직 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 리론 수준과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양과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그들에게 정확한 사업 방법을 가르쳐 주는 문제는 우리 당 앞에 제기된 중요한 과업이다》(우와 같은 문헌, 253폐지).

4월 전원 회의에서 제기한 과업을 실천하는 투쟁을 통하여 오늘에 와서는 우리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그러나 새로운 혁명 과업이 계속 제기되며 당의 요구 수준도 계속 높아지는 조건에서 우리는 자만할 하등의 근거도 없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사업 수준이 혁명 과업과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적지 않게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시기에 와서 특히 작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전 당이 학습하며 전체 당원들과 특히 일'군들의 지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업은 계속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월 전원 회의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보고는 전원 회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심오하고 전면적인 교서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들의 지도 방법과 사업 작풍을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헌으로 된다.

* *

1955년 4월 전원 회의가 있은 이후 우리 당은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은 대중에 대한 지도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고귀한 경험들을 축적하였다. 그리하여 김 일성 동지는 그 이후의 수 많은 로작들에서 당의 풍부한 실천적 활동의 경험에 기초하여 4월 전원 회의에서 제기한 기본 사상들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풍부화시켰다.

특히 청산리와 강서군에서의 교시는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령도 방법의 견지에서 본 이 지도의 의의는 우선 새로운 변천된 조건 즉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생산력이 계속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제반 협동 경리의 규모가 커진 환경에 적응하는 사업 체제와 령도 방법을 전면적으로 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의 산 모범을 실천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데 있다.

우리는 이 교시에 포함된 중요한 사상을 통하여 우리의 지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김 일성 동지가 몸소 보여 주신 령도 예술에서 무한히 귀중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는 인차 우리 당원들과 일'군들의 사업에서 거대한 전변을 일으켰으며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건설 전반에서 거대한 동원적 역할을 놀았던 것이다.

우선 김 일성 동지는 변천된 새로운 환경에서 생산력을 어떻게 계속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였다.

이와 함께 청산리와 강서군에서 김 일성 동지는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는 원칙에서 어떻게 매개 당 단체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빠짐 없이 발동시킬 것인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낡은 사업 체제와 형식주의와 교조주의 사업 방식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가,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교시를 주었다. 이 교시는 현재 우리 나라의 모든 사업 단위에서 대담하게 낡은 사업 체제를 개편하며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을 한 계단 올려 세우기 위한 명확한 지침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교시에 포함된 심오한 내용을 정확하게 체득하기 위하여서는 당 건설과 당적 령도에 관한 그 이전 시기의 로작들, 특수하게는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를 함께 연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당과 수령이 당적 령도 방법을 어떻게 부단히 완성시켜 왔는가를 력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에서 이룩된 력사적 경험으로 무장됨으로써만 청산리와 강서군에서의 교시를 깊이 체득하며 이를 실생활에 성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더우기 청산리와 강서군에서의 일련의 교시들은 이미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에서 제시한 사상을 변천된 환경에 적응하게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청산리와 강서군에서의 교시는 4월 전원 회의에서의 교시의 연장이며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 당 지도부가 당적 령도를 완성시키기에 얼마나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저작들과 함께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를 오늘의 실천적 견지에서 더욱 심오히 연구해야 한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 기계화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 달 선

우리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데 대한 력사적 과업을 제기하면서 오늘 우리 나라 기술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농촌 경리의 기계화라고 규정하였다.

과거 식민지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제일 락후한 부문이 바로 농촌 경리였다. 우리 농업에서는 과거 손 로동이 전적으로 지배하고 극도로 유치한 소농 기구들이 사용되고 있었던 관계로 우리 당에 의하여 수리화 및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기계화에서 큰 전진이 있은 오늘에 와서도 손 로동이 가장 많이 남게 되였다. 기술 혁명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문이 바로 농촌 경리이며 오늘 농촌경리 부문에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심 고리는 농촌 경리를 기계화하는 것이다.

기계화는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우리 농민을 고되고 힘겨운 로동으로부터 다시 한 번 해방함으로써 로동을 홍겹고 능률적인 것으로 되게 하며 손 로동을 기계 로동으로 대치시킴으로써 그들의 사상 의식의 개변을 촉진시킨다. 이리하여 기계화는 우리 농민을 진정으로 문명한 사회주의 근로자로 되게 한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는 나라의 공업화를 위하여 많은 인원을 내보낸 농촌의 긴장된 로력 사정을 풀며 논밭 2모작을 실시하고 토지의 리용률을 높이며 알곡을 위주로 하면서 농촌 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농산물의 급격한 증대를 가져 오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우리 농촌을 풍족한 식량, 기름, 채소, 고기 생산의 튼튼한 기지로 되게 함으로써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위한 현실적 토대를 구축하게 한다.

농촌 경리를 기계화함으로써만 농업 생산력을 새로운 기술 토대 우에서 급격히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것을 한 계단 더 높이고 공업과 농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완전한 승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오래 전부터 예견성 있게 농촌 경리를 기계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여 왔으며 금년부터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이미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농기계 공장도 없었으며 또 농업 협동 정리도 없었던 전쟁 전 시기에 벌써 우리

당은 국가 소유인 뜨락또르와 현대적 대농기계를 개인 농민 경리가 지배하던 우리 농촌에 도입하였다. 그것은 부농들의 착취로부터 빈농민을 옹호하며 농민들에게 기계화된 대규모 경리의 우월성을 과시하였으며 농촌에서 협동화의 전제를 준비하였다. 전후 시기 농기계 작업소 망의 계속되는 확장은 협동화의 완성을 촉진시켰으며 농업 협동 조합들의 통합은 또한 농업 기계화를 위한 더욱 광활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었다.

오늘 농업의 기계화는 농업 기술 혁명의 통일적 과업의 완성으로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되였다. 농업 기술 혁명의 첫 단계에서 기본 고리였던 수리화는 그 방대하고 힘든 공사들을 기계화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었으며 수리화의 실현은 농업 기계화를 위한 유리한 포전 및 작물 배치 조건들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기계화의 실현을 촉진하였다. 전기화 역시 기계화의 힘에 의하여 촉진되면서 기계화를 위한 유력한 동력 원천을 조성하여 주었다.

농업 협동화의 완성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도 완성됨으로써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된 유리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보다 높은 대고조가 일어났으며 바로 이 대고조 속에서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하에 수리화 및 전기화가 결정적으로 승리하였고 기계화에 주요한 력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 더우기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방침에 의하여 특히 력량을 집중한 황해남도와 평안남도에서는 기경 작업과 수송 작업이 기본적으로 기계화되였다. 이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는 앞으로 최단 기간 내에 산간 벽지에 이르기까지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것을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기술 혁신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서 전개할 수 있게 되였다.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위한 물질적 토대가 전혀 없었던 빈터로부터 또한 전대미문의 파괴적인 3년 간의 전쟁을 겪은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불과 몇 해 동안에 이와 같이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 서게 된 것은 전후 우리 당 경제 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또 이는 농촌 경리의 기계화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전적으로 정확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준다.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규정함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의 지대적 특성 및 기후 조건과 그에 따르는 영농 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으며 다른 편으로는 우리 나라 농기계 공업 발전의 수준을 옳게 타산하였다. 그리하여 기계화하여야 할 지대 및 작업에 대하여서는 평지대로부터 점차 산간 지대에로 이행하며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으로부터 점차 종합적 기계화에로 이행하는 방향과 기계화 수단의 동원 및 리용에 있어서는 대기계와 중소 기계, 현대적 기계화와 간단한 소기계화를 결합시키는 방향을 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이것은 기계화 대상에 비하여 기계화 수단이 부족한 조건, 특히 아직 소형 뜨락또르가 대량 생산되지 못하였던 조건하에서 최단 기간 내에 기계화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유일하게 옳은 방침이였다.

그러나 금년도 완충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천 대의 중형 뜨락또르를 비롯한 수만 대의 련결 농기계를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한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이 오늘 소형 뜨락또르도 대량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된 사정과 또 한편 황해남도 및 평안남도에서의 기계화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은 소형 뜨락또르를 광범히 도입한다면 산간 지대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작업을 기계화할 수 있으며 산간 벽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촌에서 기계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8월 확대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평지대와 산간 지대에서 동시에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방침을 규정하였다.

이 새로운 방침에 근거하여 1963년까지 중형 뜨락또르는 2만 대, 5~15마력짜리 소형 뜨락또르는 3~4만 대 생산 공급하며 화물 자동차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각종 련결 농기계 및 탈곡기, 사료 분쇄기, 양수기, 전동기 등을 대량적으로 생산 공급한다면 경지 100정보당 뜨락또르는(15마력으로 환산하여) 2대에 달하게 되며 중요한 영농 작업을 거의 다 기계 동력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농촌에서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8월 확대 전원 회의가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농촌 경리가 가지고 있는 락후성의 마지막 근원을 뿌리 빼는 이 혁명 과업을 가까운 년간에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업은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 및 각종 농기계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 보장하는 문제이며, 다음으로는 뜨락또르와 기타 농기계들을 옳게 리용하며 그 사용 년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공고한 수리 기지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촌 기술 혁명의 거점인 농기계 작업소들의 역할을 한층 더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　　*

농촌 기계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뜨락또르 및 각종 련결 농기계들과 화물 자동차를 대량적으로 생산 공급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그의 질과 시기성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농기계 생산에서 량과 질과 시기성은 다 같이 선차적으로 해결되여야 할 문제들이다.

그런데 농촌 기계화의 속도, 범위 및 기계의 질 등은 전적으로 공업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의 발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농기계 공장들에서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며 농기계 사용자들과의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보다 정밀하고 쓸모 있는 기계들을 생산하는 것은 농촌 기계화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와 함께 전원 회의는 농기계 생산에서 중앙 공장들은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 등 현대적 농기계들을 생산하며 각 도 농기계 공장들은 간단한 농기계들과 축산 기계들을 생산하며 군 농기계 공장들은 축력 농기계들과 소농기구

들을 생산하는 방향에서 전문화할 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농기계 공장들의 현존 기술 토대에서 농기계 생산을 질량적으로 적시에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이다.

현 시기 중앙 공장들에서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존 생산 능력을 현저히 확장하는 동시에 이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데 있다. 지난 시기 이 분야에서 기술 장비가 계속 강화되였고 거보의 기술적 전진이 이루어졌으며 완충기의 과업 수행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 생산의 기계화 및 자동화 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에 있는바 특히 조립 부문과 소재 생산 부문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조립 및 소재 생산 부문에서 기계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특히 선진 주조 방법과 프레스 작업의 비중을 높이며 기계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된 가공 부문에서는 자동화에로의 이행이 당면 문제로 제기된다.

기본 생산 부문에서의 기술 혁신의 촉진은 보조 생산 부문의 기계화 수준을 급격히 제고할 것을 또한 요구하며 대량 생산을 위한 흐름식 운반 체계의 확립을 절실히 요구하게 된다.

현 시기 뜨락또르 및 자동차 생산의 증대를 보장하며 그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비의 하나는 생산 조직을 한층 개선하며 생산의 정상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금년 상반년 기간에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에서는 률동성이 보장되지 못하였는바 이것은 생산 계획을 량 및 질적으로 수행함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생산의 률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기업소에서 매개 직장들 간의 생산 능력을 옳게 타산하며 소재 생산을 가공에 선행시키고 중간 조립품들의 균형을 보장하여야 하며 매개 직장들에서는 작업 대상을 기술 공정 및 품종별로 고착시키며 기업소 내부 전문화를 촉진함으로써 해당 직장 단위별로 중간 조립품을 완성하는 등 기업소 생산 조직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뜨락또르 및 화물 자동차 공장들과 협동 생산을 하고 있는 모든 공장들에서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질량적으로 보장된 협동 생산품을 제때에 생산 공급하는 것은 농기계 생산의 정상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앞으로 일정한 생산적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공장들과 계속 협동 생산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뜨락또르, 자동차 공장들은 일반적 금속 가공품에 대하여서는 자체 생산의 비중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한다.

당은 대형 및 중형 뜨락또르와 함께 산간 지대의 작은 포전들에서와 일반적으로는 논 작업 및 과수, 채소 재배 등에 유리한 소형 뜨락또르를 옳게 배합 리용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평지대에서 뿐만 아니라 산간 지대에서도 동시에 여러 종류의 작업을 기계화할 수 있고 기계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

소형 뜨락또르 공장 건설을 촉진시키며 그의 대량 생산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설계의 표준화와 부속품의 규격화를 광범히 도입하여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의 력량을 집중적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조성하며 협동화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있다.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의 급격한 증대에 따라 련결 농기계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련결 농기계 생산에는 현재 우리의 거의 모든 기계 공장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앙 기계 공장들이 기본 과제 이외에 복잡한 련결 농기계 생산을 겸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매개 기업소들에서 련결 농기계 생산을 위한 직장, 직구들을 신설하고 그 기술 토대를 강화하며 농기계 생산과 기타 생산 지표 수행을 옳게 결합시킬 수 있는 계렬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서는 매개 기업소 및 이 부문 지도 기관들에서의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 소 농기계 생산의 급격한 증대와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도 및 시, 군에 있는 지방 공업 기업소들의 생산 설비들을 더욱 정비하고, 그에 농기계 생산 품종들을 되도록 고착시키며 농기계 및 부분품, 부속품들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광범히 실시하며 설계 사업을 생산에 선행시킬 뿐만 아니라 그에 더욱 접근시키며 생산 조직과 공급 사업의 계획화 수준을 현저히 제고할 것이 요구된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할 데 대한 완충기의 중심 과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련결 농기계, 중 소 농기계들이 대량적으로 농촌에 공급됨으로써 그의 품종과 량은 급격히 증가되였으며 또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 예견된다. 이에 따라 그것들을 옳게 리용하며 사용 년한을 연장시키기 위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바 이것은 수리 기지의 창설 강화를 절실하게 요구한다. 뜨락또르 수리 능력을 확대 강화하며 농기계 작업소들과 국가 농목장들의 수리 설비를 더욱 확장할 뿐만 아니라 지방 공장들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도 일정한 소농기계 수리 시설을 갖추게 함으로써 농기계의 수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원 회의는 이러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사리원 뜨락또르 수리 공장의 능력을 2배로 확장하며 건설 중에 있는 함흥 뜨락또르 수리 공장의 조업을 금년 내에 개시하도록 하며 각 도에 점차 수리 공장의 건설을 예견하는 등 농기계의 수리 능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거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뜨락또르 수리를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뜨락또르 부속품의 40%를 차지하는 규격품 생산을 높은 정밀도에 기초하여 중앙 기계 제작 공장들에서 생산하며 각 도 지방 공장은 일반 부속품을 생산하는 문제가 또한 절실하게 나선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공급된 뜨락또르, 련결 농기계 등 현대적 기계 기술들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현대적 기계 기술이 국가 소유로서 농기계 작업소에 집중되여 있는 우리 조건하에서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농촌 기술 혁명의 거점인 농기계 작업소들의 역할을 한층 제고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선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제고하는 데

있다.

뜨락또르 가동률의 제고는 뜨락또르 대당 년간 작업량의 증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량의 작업을 기계화함에 소요되는 뜨락또르 대수의 감소를 의미하며 막대한 사회적 로동의 절약을 의미한다. 그것은 뜨락또르에 따르는 련결 농기계의 소요 대수, 수리소의 건설 및 설비를 위한 비용을 축소하며 뜨락또르 및 농기계 보관을 위한 건설 비용과 소요 간부수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지난 상반년 간의 우리 농기계 작업소들에서 뜨락또르의 계획 가동률은 아직 85%에 도달하지 못하고 78.6%에 불과하였다. 뜨락또르들이 뜨락또르 운전수들에게 인도되기 전에 벌써 년간 재적 대수의 26.19%는 정차하고 있었는바 그 중 뜨락또르의 주기적 정비에 의한 정차가 년간 재적 대수의 12%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나머지 14.19%는 뜨락또르가 작업에 동원되기 전에 벌써 정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된다. 이것은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지도 일'군들이 특히 사업 조직을 잘 하고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 시기 농기계 작업소들에서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되여야 할 문제는 정차의 분포와 원인을 매개 환절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 부서, 작업소, 운전수들의 정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원인별로 그 퇴치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 즉 관리 일'군들은 뜨락또르들을 재적 대수가 모두 가동할 수 있도록 제때에 부속품을 해결하여 주고 수리를 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운전수들은 기술 정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당이 요구하는 85% 이상으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서는 또한 뜨락또르 운전수들로 하여금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이도록 물질적 자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원 회의는 뜨락또르 작업의 량에만 치중하고 질을 홀시하는 경향과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특히 강조하였는바 이에 있어서도 역시 작업소의 역할을 높이는 동시에 작업반 및 분조, 매개 운전수에 이르기까지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련결 농기계들에 대한 기술 정비를 실속 있게 하기 위한 대책에 심중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농기계 작업소들에서 기계화 작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뜨락또르 작업반의 옳은 조직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해의 황해남도 농기계 작업소들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와 청산리 당 총회에 대한 현지 지도가 있은 후 뜨락또르 작업반 사업에서는 근본적 개편이 있었으며 현저한 개선이 있었다. 그리하여 현재는 동일 작업소 내에서도 군내의 구체적 지대 조건에 따라 뜨락또르 작업반들의 규모가 합리적으로 규정되였으며 작업반장의 조직 지도 기능이 높아졌고 기술 지도원이 계획적으로 순회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수들에 대한 정치 교양 사업을 위하여서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였다. 특히 황해남도와 평안남도의 평지대에서는 이미 중형 이상의 뜨락또르는 소정 대수가 충분히 들어 간 곳이 적지 않으며 뜨락또르 작업반의 분조와 조합 간의 관계에서 현저한 전진이 있었다. 온천 농기계 작업소의 뜨락또르 작업반의 분조들은 조합에 자체 기술 기지를 가졌으며 생활 근거를 잡고 조합 생산에 깊이 침투함으로써 현저한 성과를 올렸다. 이 경험은 다른 모든 작업소들에서도 급속히 보급되여야 할 것이다.

현 시기 우리 당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기계 작업소들의 역할을 한층 더 높임에 있어서 독립 채산제의 도입은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작업소들로 하여금 뜨락또르의 작업 원가의 저하를 위하여 투쟁할 필요를 환기시키고 절약 제도를 강화하게 한다.

이에 있어서 앞으로 점차 작업반 내부 채산제에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내부 결제 가격의 제정을 더욱 과학적 원칙에서 개선하여 나가는 것은 작업소 독립 채산제 강화의 중요 조건으로 된다. 이에 기초하여 작업 원가를 부단히 저하하며 수익성을 높이도록 작업소 일'군들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농기계 작업소들에서 뜨락또르 작업 원가를 저하할 수 있는 결정적 예비는 원가의 57.1%를 차지하는 유류비의 절약에 있다. 유류 랑비와의 투쟁—여기에 최대의 예비가 있는 것이다.

농기계 작업소들에서 사회주의적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더우기 기계 설비 등 재산 관리에서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률을 적용하는 것은 현 시기 농기계 작업소들에서의 모든 사업 성과의 출발점으로 된다.

농기계 작업소들이 사회주의적 제도와 질서를 강화하고 기계화 작업을 원만히 보장하여 농민들에게 생산적 리익을 줌으로써만 그것은 조합 생산에 대한 조직자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능히 다할 수 있으며 농민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영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적극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미 있는 현대적 기계화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농기계들을 창안 제작해야 하며 농기계의 합리적 리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 연구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소농기구들을 적극 개량하여 작업 능률을 현저히 높일 데 대하여 심중한 관심을 돌리는 문제가 중요하다.

농기계 생산, 리용 및 수리 부문에서 일하는 전체 일'군들은 자체의 기술 기능 수준을 계속 높이며 농촌 청년들은 당의 부름에 따라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누구나가 다 과거에 소를 몰던 것처럼 뜨락또르를 자유자재로 운전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 시기 농촌 기계화의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기계화를 위한 투쟁에 전 군중적으로 동원될 때 8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은 철저히 관철될 것이며 농촌에서 기술 혁명 과업은 성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기계화의 촉진은 지방 공업 발전의 결정적 담보

남 인 호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지방 공업 발전을 위한 가장 절박하고도 성숙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지방 공업 부문에서 2~3년 내에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 지방 공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황해북도에 있어서도 6월 전원 회의 이후 각지에서 우후죽순처럼 공장들이 일떠섰으며 현재 매개 시, 군들은 평균 12개의 공장들을 가지게 되였다. 지방 공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수(가내 공업반까지 포함)는 도'적으로 2만 6,000명 이상에 달한다.

우리 도 지방 공업의 총 생산액은 1949년에 비하여 13.7배로 장성하였는바 이것은 1949년 1년 동안에 생산하였던 것을 불과 25일 간에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월 전원 회의 직전인 1958년 상반년에 비하여도 금년 상반년 공업 생산액은 2.7배에 달한다.

이 결과 우리의 지방 공업은 도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소비품들의 수요를 많은 부문에서 도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되였다.

농촌 경리를 기계화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뜨락또르, 자동차 등과 일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내 기계 공장들에서 능히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축성하게 되였다.

이와 같은 커다란 성과는 큰 국가 투자 없이 지방에 잠재하고 있던 예비를 탐구 동원함으로써 달성한 것이다. 이것은 대 중 소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우리 당 경공업 정책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

지방 공업 분야에서 달성된 성과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 당이 제시한 7개년 계획의 웅대한 강령적 전망 과업 특히 최단 기간 내에 인민 생활 필수품을 유족하게 생산하며 산간 벽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촌에서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과업에 비추어 볼 때에는 그것은 아직 불만족한 형편에 처하여 있다.

우리 당은 계속 인민 소비품 생산 분야에서 대규모적 중앙 공업과 함께 전국 각지에 산재하여 있고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다양한 원료를 가공하는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인민 생활을 더욱 급속히 향상시킬 것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규모 중앙 공업이 새로운 기술 토대 우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을 때 지방 공업이 계속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 토대 우에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 당의 이 방침은 성과적으로 관철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은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근로자들의 다종다양하고 부단히 변화하는 일상적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또한 우리 당은 현 시기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상응하게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착취로부터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들고 고된 로동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시킬 것을 가장 기본적인 혁명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금년에 벌써 우리 나라 공업 총 생산액에서 40%, 소비재 생산에서 5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지방 공업은 아직 다른 그 어느 부문보다도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에 토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방 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현대적 기술과 함께 수공업적 기술도 리용하였기 때문에 단숨에 수 많은 공장들을 건설하고 인민 경제 발전에 큰 리익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기계화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였으며 우리 지방 공업에서도 락후한 수공업적 생산 방법을 현대적 방법으로 대담하게 교체할 때가 왔다.

지방 공업의 기술적 락후성을 급속히 퇴치함으로써만 우리 나라 기술 혁명의 전반적 과정과 사회주의 건설의 완전한 승리가 촉진될 것이다.

지방 공업의 기계화는 지방 공업 자체 발전 과정의 일련의 구체적 사정들에 의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즉 지방 공업에서의 기계화가 없이는 지방 원료 원천을 리용하여 생산량을 더욱 장성시키며 제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 경제에 막대한 리익을 주어야 할 지방 공업의 사명을 충분히 다할 수 없다.

우선 지방의 풍부한 원료 원천을 남김 없이 동원하여 이를 잘 가공함으로써 더 많고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생산 공정을 기계화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지방 공업을 지방 원료 원천에 확고히 기초하여 발전시킬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 우리 나라 각지에는 농촌 경리 부문에서 생산되는 원료들, 산간의 야생 원료 원천들, 대규모 중앙 기업소의 부산물과 페설물들, 회수하여 재생 가공할 수 있는 고자재 원천들 등 각종 많은 지방 원료 원천들이 있다. 이것들을 수집 리용하는 것은 사회적 부의 원천을 추가적으로 얻는 것으로 되며 인민 생활 향상에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우리의 산과 들에는 도토리, 밤, 딸기, 다래, 멀구, 돌배 등 산과실들이 풍부하며 초물 제품, 기류 제품 원료들도 많다.

황해북도의 실례만 보아도 금년에 우리는 도토리는 1만 톤 이상, 밤은 3,500톤 이상, 다래, 멀구, 돌배를 비롯한 각종 야생 과실류는 2,500톤 이상 각각 채취할 수 있는 원천이 있다. 만일 도토리 1만 톤을 가공한다면 술 1만 키로리터, 단닝엑스 600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1만 두 이상의 돼지를 길러낼 수 있는 사료 단위를 획득할 수 있다.

산중 재부의 동원은 산간 지대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도 큰 의의를 가지며 나아가서는 국가 재정에 주는 수입도 대단히 큰바 개략적 계산에 의하더라도 도'적으로 1천만 원 이상에 달할 것이 예견된다.

이상과 같이 막대한 리익을 줄 수 있는 지방 원료 원천의 채취 및 가공은 결정적으로 능률적인 채취 도구의 도입과 기계화에 달려 있다. 이때까지 지방 원료 원천의 동원은 로력 문제와 함께 특히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이것은 오직 채취 도구들을 부단히 개선하고 그의 기계화 수준을 높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으로써만 풀릴 수 있는 문제이다.

야생 원료의 채취 수집 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가공 사업에 있어서 작업 공정을 기계화하지 않는다면 제품 생산의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는 례들이 적지 않다. 왕골로 생산하는 여름 모자는 순전한 손 로동으로 생산할 때에는 6~

7공수의 로력이 필요한바 이렇게 되다면 모자 한 개의 생산 원가는 15~16원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값 비싼 모자가 인민들에게 소용될 수 없다.

지방 공업에서 기계화가 성과적으로 촉진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 원료 원천에 기초하여 다종다양한 많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지방 공업이 가일층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가 좌우된다.

다음으로 생산 공정을 기계화함이 없이는 지방 공업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오늘 우리의 지방 공업 생산에서는 그의 량적 장성 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지방 공업 제품들 중에는 인민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질이 낮은 제품들이 적지 않다.

제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 공업의 기술적 장비도를 제고하는 문제이다. 손 로동을 그대로 두고는 가공 제품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

방직 공업의 실례만 보아도 수직기로는 위사를 20~25오리 이상 넣을 수 없으나 력직기로는 그를 30오리 이상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기를 력직기로 교체한다면 더 튼튼하고 보기 좋고 입기 좋은 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수지 제품 생산에 있어서도 수동 프레스로는 제품의 두터이를 균일하게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 이러한 실례는 허다히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계화 수준이 낮을 때, 특히 손 로동에서는 정밀도가 고도로 보장될 수 없으며 생산자의 기능 수준, 기타 개별적 사정들이 제품의 량과 질에 주는 영향이 기계화 정도가 높을 때보다 더욱더 크다. 이러한 개별적 조건, 우연적 사정들이 생산물의 질에 적은 영향을 주도록 하며 제품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기계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은 인민들에게 더 아름답고 튼튼한 제품들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공장(지방공업 공장—필자 주)들을 기계화하고 로동자들의 기술 수준을 급속히 높인다면 지방의 모든 자원을 광범히 동원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일용품의 품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제품의 질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김 일성, 《조선 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또한 지방 공업에서 기계화의 촉진은 모든 기업소에서 수익성을 높이고 국가에 더 큰 리익을 주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지방 공업 부문에서는 중앙 공업 부문에 비하여 로동 생산 능률이 현저히 낮으며 생산 원가도 높은 형편에 있다. 공업에서의 국가 거래세 수입 총액의 37%를 지방 공업이 담당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지방 공업 부문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 제고와 원가 저하의 예비를 백방으로 동원하여 그의 수익성을 높이는 문제는 국가 축적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황해북도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방직 공업에서 아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직기를 력직기로 교체하며 호브, 위권, 해사 등 준비 공정들의 손 로동을 기계화한다면 직물 공장에서의 종업원 1인당 생산량을 5배 이상으로 능히 높일 수 있으며 직물의 원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 식료 가공품, 일용 필수품과 기타 제품 생산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지방 공업에서의 기계화는 이 부문 일'군들의 사상 의식을 개변시킴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지방 공업 부문 일'군들의 대부분은 어제'날의 농민들과 가정에 파묻혀 있던 부양 가족들이다.

이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오랜 세기를 두고 내려온 수공업적 생산 방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작업 공정 자체를 선진적인, 기계화된 것으로 이행시킴으로써만 이 부문 근로자들의 머리 속에 뿌리 박혀 있던 낡은 사상 잔재를 종국적으로 퇴치하고 선진적인 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 공업 부문에서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지방 공업의 자체 발전을 위하여 가장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지방 공업에서 기계화를 실현함으로써 그의 기술적 락후성을 퇴치하고 우리 나라의 전반적 공업화의 완성과 사회주의 공업국으로의 력사적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방 공업의 발전은 종전까지 농민들이 집집마다 수공업적으로 생산하던 식료 가공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더욱더 농사에 주력케 하며 그들의 생활을 보다 문화적인 것으로 되게 하고 농촌 경리에서의 로력의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며 나아가서는 지방적 자원을 종합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전국 각지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가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지방 공업의 기계화를 완수하여 우리 나라 방방곡곡이 현대적 기술로 튼튼히 장비된 지방 공업 공장망으로 뒤덮일 때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한 우리의 전진 운동은 보다 촉진될 것이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소멸되고 높은 생산력에 토대하는 공산주의의 래일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 *

당 중앙 위원회 8월 확대 전원 회의가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지방 공업에서 기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오늘 각 도에는 도 종합 기계 공장들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기계 공장들이 있으며 우리 당의 예견성 있는 조치에 의하여 많은 기술자들이 중앙 공업으로부터 지방 공업에 진출하여 사업하고 있다.

황해북도만 보더라도 도 종합 기계 공장은 낡은 선반 1대밖에 없던 락후한 형편으로부터 79대의 공작 기계를 가진 큰 공장으로 전변되였으며 도 내에 수백 대의 공작 기계와 1만 2,000 여 톤의 주물 능력이 있다. 이러한 능력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지방 공업의 기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계 설비들을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능히 자체로 생산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자체로 기계화를 추진시킨 우수한 경험들도 가지고 있는바 이것은 앞으로 기계화의 촉진에서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송림 철공 생산 협동 조합에서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의 성과에 토대하여 일부 보조 작업을 제외하고는 전체 작업 공정의 80%를 기계화함으로써 생산량을 금년에 작년 동기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였고 제품의 질도 현저히 개선한 것은 그의 단적인 실례로 된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지방 공업에 내재하는 가능성들을 옳게 조직 동원만 한다면 기계화의 과업을 능히 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그의 해결 방도를 전면적으로 제시한 데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현명성이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지방 공업에서의 기계화는 도 경제 위원회를 비롯한 이 부문 일'군들의 꾸준하고 완강한 투쟁과 면밀한 조직 사업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촉진될 수 있다.

이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이 사업에 전체 대중들을 적극 참

가시키는 데 있다.

기술 혁신은 어느 한 개인이나 지도 일'군들만으로는 성과적으로 전개될 수 없다. 모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때 도처에서 새로운 기술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지방 공업 부문 일'군들 중에 남아 있는 새 기술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퇴치하는 문제가 선차적 의의를 가진다.

이 부문 일부 일'군들 중에는 아직 지방 공업에서는 수공업적인 생산 방법이 응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 기술 도입을 주저하는 보수주의가 퇴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식료품은 가정에서와 같이 수공업적으로 가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낡은 관점이 남아 있다.

이것은 생산력 발전에 관한 경제 법칙을 리해하지 못한 데로부터, 인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지방 공업이 담당하고 있는 중대한 사명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나온 견해이다. 이러한 관점을 타파하지 않고는 대중적인 기술 혁신도, 지방 공업의 새로운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지도 일'군들은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기술 혁명이 갖는 정치 경제적 의의와 특히 우리 나라 기술 혁명에서 지방 공업의 기계화가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전체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인식시키고 그들 속에서 보수주의와 소극성, 《신비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자기의 제1차적 임무로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지방 공업에서의 기술 혁신은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모든 사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지방 공업의 기계화에서도 중심 고리를 옳게 포착하고 로력의 랑비가 많고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작업 공정으로부터 중점적으로 력량을 집중하여 우선 기계화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로력 랑비가 큰 각종 식료품 가공의 공업화와 그의 기계화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기계화한다고 하여 단꺼번에 전체 공장들과 모든 공정들을 선진 기계 설비로 장비할 수는 없다. 이것은 지방 공업의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

현대적 기술은 가장 선차적인 공정부터 점차적으로 도입하면서 종전의 수공업적 기술도 개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개조하여 사용함으로써 가장 적은 투자로써 가장 큰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 공업 기술 혁신의 핵심 력량으로 되는 도 종합 기계 공장을 우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공업에서의 기계 생산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바 그의 하나는 지방 공업 자체에 필요한 동력 작업 기계의 생산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적 특성에 알맞는 농기계 생산이다. 이 두 부문은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있어서 농기계 공장을 강화함으로써 도 종합 기계 공장이 농기계 생산에 매달리는 현상을 퇴치하고 그가 지방 공업 공장들의 기계화에 주력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도 종합 기계 공장만으로는 시, 군에 수다히 포치되여 있는 공장들의 기계화에 필요한 기계 설비 및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 공급할 수 없다. 따라서 매개 공장들은 자체의 힘으로 기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백방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선후차를 규정하고 기계화를 촉진시킴에 있어서는 각 부문별로 한두 개의 선진 기업소들을 만들어 그 모범을 해당 부문 전체 기업소들에 보급시키는 것이 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수 많은 기업소들에 동시에 도'적인 기술 지도 력량을 파견하여 기술 혁신을 지도할 수 없다는 사정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일'군들에게 구체적 실물로써, 직관적으로 기계화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데서도 유리하다.

사실 지방 공업의 많은 로동자들은 새로운 기계들과 설비들을 다루어 본 경험이 없으며 기능자들이라 하여도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에 토대한 기능공들이다. 따라서 이 부문 일'군들의 보수성과 소극성을 퇴치하는 것은 꾸준한 해설 설복 교양에 실물 교양을 옳게 배합함으로써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대중의 적극적인 혁신 운동을 추진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 공업에서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에 파견된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며 그들과 로동자들 간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로 무장된 기술자들이 하여야 할 일은 지방 공업 부문에서 더욱 많다. 모든 지도 일'군들은 기술자들의 력량을 옳게 조직함으로써 아직 일부 공장에서와 같이 기술적 타산에 근거하지 않고 주먹치기 식으로 생산을 조직하는 것과 같은 결함들을 퇴치하며 기술 일'군들을 차요한 일에 종사시키는 현상들을 근절하여야 한다.

구체적 경험들은 기술자들이 이 부문 사정에 정통하고 있는 로동자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적극 높이면서 직접 생산 현장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커다란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지방 공업의 기계화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대규모 중앙 기업소들과의 협조 방조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중앙 공업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을 지방 공업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며 지방 공업에서 제기되는 기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선진 중앙 공업 기업소가 지도 방조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오늘 지방 공업의 기술 혁신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지방 공업에서 기계화를 촉진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이 부문 모든 근로자들 특히 지도 일'군들로부터 새 기술을 부단히 배우는 문제가 극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새 기술을 모르고는 기술 혁신을 일으킬 수 없으며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에 토대한 지방 공업을 지도하던 지난날의 경험만 가지고서는 오늘 새 기술로 부단히 장비되고 있는 지방 공업을 지도할 수 없다.

이 부문 지도 일'군들은 부단히 새 기술을 배우며 관리 지도 능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만 지방 공업의 기계화를 능히 추진시킬 수 있다.

지방 공업의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는 기계화의 촉진을 위한 영예롭고도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힘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 황해북도 경제 위원회 위원장)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공산주의의 학교

강 용 섭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는 《로동당의 령도 밑에 조국 땅 우에 인민의 행복한 락원을 더 빨리 건설하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불타는 애국심을 반영하는 것이며…

영웅적 조선 로동 계급이 창조한 우리 시대의 훌륭하고 위대한 공산주의의 학교이다》라고 김 일성 동지는 말씀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7개년 계획의 웅대한 강령적 과업을 수행하며 기술 혁명의 요새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전국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이 운동의 내용과 의의를 심오하게 천명하였으며 그 발전 방향을 명시하였다.

1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가장 높은 형태의 사회주의 경쟁 운동이다》(김 일성).

전후 시기에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천리마 운동) 행정에서 사회주의 경쟁은 집단적 혁신 운동에까지 발전하였는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쟁 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이며 가장 새로운 형태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의 산물로서 천리마 운동의 집중적이며 조직적인 표현 형태로 된다.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의 행정에서 도시와 농촌에서의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은 생산력의 급격한 장성을 조건 지은 동시에 력사적인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의 과업을 절박하게 제기하였다.

또 5개년 계획의 승리적 완수와 관련하여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튼튼히 구축되여 현대적 중형 기계들을 비롯한 거의 모든 기계와 설비들을 국내에서 생산 공급하며 기술 혁명,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능히 우리 손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도 당면한 기술 혁명, 문화 혁명 수행에 모두다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끔 장성되였다.

원래 혁명성이 높고 남보다 빨리 나가려 하며 당에 의하여 공산주의적 의식으로, 특히 혁명 전통의 정신으로 교양 받는 우리 근로자들의 당에 대한 헌신성, 당 정책을 무조건 관철시키려는 혁명적 열의는 대고조 행정에서 더욱 고도로 제고되였다. 근로자들의 이 헌신성과 혁명적 열의는 당이 제기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의 절박한 과업을 보다 빨리 실현하며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하루 속히 점령하려는 불가항력적인 의지로 나타났다.

당은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과 관련하여 기술 혁명의 당면 과업과 함께 사회주의의 새로운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웅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당은 천리마의 진군을 저애하는 일체 낡은 사상 잔재의 질곡으로부터 근로자들을 해방하기 위한 사상적 령도를 강화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은 사회주의의 대고조를 한 계단 더 높이는 데로 근로자들을 불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행정에서 조성된 이와 같은 객관적, 주관적 조건들이 결합된 토대 우에서 발생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9월 전원 회의 후 당의 붉은 편지에 고무되여 고도의 정치적 로력적 열의로 불타는 근로자들 속에서는,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고도의 집단주의 정신과 불요불굴의 투지, 고상한 도덕적 품성으로 무장되고 높은 기술 기능을 소유한 이 운동의 선구자들,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의 싹들이 배출되였다. 이 선구자들은 전체 집단을 교양하고 동원하여 당의 주위에 한사람같이 묶어 세움으로써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로 궐기시켰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축성을 촉진하며 공산주의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할 것을 지향하는 경쟁 운동이다. 그것은 이미 산업 운수 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촌 경리, 류통 및 봉사, 교육, 문화, 보건 등 경제, 문화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행정에서 준비된 이상과 같은 물질적, 정신적 요인들이 당의 정확한 령도와 결합된 결과로서 발생 발전하는 합법칙적 현상이다.

2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이며 자각된 근로자들의 대중적 경제 운영의 훌륭한 방법》(김 일성)이다.

생산을 장성시키며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기본 요인은 로동 생산 능률이다. 모든 천리마 작업반들은 로동 생산 능률을 장성시키는 데 제 1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혁신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전국 500개의 천리마 작업반들에서, 칭호 쟁취 후 6개월 간의 로동 생산 능률은 운동에 참가하기 전 6개월 간에 비하여 131.4%로 장성하였으며 특히 기계 부문의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156.1%로 장성하였다. 한개 채탄장에서 석탄 생산량을 월 5,000 톤 수준으로부터 1만 톤 수준으로 비약시킨 아오지 탄광 리승환 2중 천리마 청년 작업반, 광산 전체 종업원의 4.3%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광산 총 생산량의 60%를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한 덕흥 광산 최 련옥 천리마 작업반 등등은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서의 대표적인 례로 된다.

이상의 수'자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생산력과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여 준다.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은 높은 기술과 생산 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전제로 한다. 모든 천리마 작업반들에서의 로동 생산 능률의 비약적 장성은 무엇보다도 기계화, 자동화의 도입에 의한 기술적 혁신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500개의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만도 이 운동에 참가한 후 6개월 간에 총 3,864건의 창의 고안들을 생산과 건설에 도입함으로써 기술적 장비를 개선하고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는 데 현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평양 제침 공장 변 명선 천리마 작업반을 비롯한 많은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이미 생산 공정을 완전히 기계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부단히 기술적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을 소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새 기술을 배우며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 모든 열성을 발휘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는 지난 8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전면적 기술 혁명의 과업을 제기하였다. 당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며 이를 위하여 전체 근로자들이 새 기술을 습득하며, 기술 혁신을 위한 투쟁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주요한

내용으로 되게 하라고 호소하였다.

전체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은 지금까지도 그러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당의 호소를 받들어 기술 혁명의 과업을 영예롭게 실현할 것이며 7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완수 초과 완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력량으로 될 것이다.

천리마 기수들은 기술 혁신과 생산 장성을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모두가 재능 있는 관리 일'군들로서 대중적으로 경제를 관리 운영하는 훌륭한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발전시키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직일 반장제를 실시하여 모두가 작업반의 전 생산 공정에 정통하고 그것을 훌륭히 관리하고 있으며 또 그들은 창의 고안들을 제때에 도입하며 작업반 채산제를 실시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다. 지금 많은 천리마 작업반들에서는 검사원을 없애고 로동자들 자신이 제품의 질을 검사하고 있으며 정량원의 참가 없이 자기가 수행하는 로동의 기준량을 자기들이 제정하고 있다. 결과에 제품의 질과 로동 기준량은 계통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오작품은 근절되여 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기술 혁신과 생산력 발전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며 대중적 경제 운영의 훌륭한 새로운 방법으로 되는 동시에 거기서 매개 근로자들이 높은 기술과 경제 관리 운영의 방법을 습득하는 학교로 되고 있다.

3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것은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 교양의 방법》(김 일성)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가일층의 촉진을 위하여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예롭고 선진적이고 영웅적인 일이다. 그러니만치 그것은 수천수백년래의 온갖 낡고 락후한 의식과 습성의 잔재들을 극복하고 고상한 공산주의적 의식과 품성을 소유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에서의 보고와 토론들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어디서를 물론하고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개인주의, 리기주의, 그의 변종인 본위주의, 안일성과 무규률성,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 신비주의 등 일체 낡은 사상과 습성의 잔재를 청산하고 사람들을 당적 사상 체계로, 당 정책과 공산주의적 의식으로 무장시키며 당의 주위에 묶어 세우기 위한 선구자들의 교양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공산주의 교양 사업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기본 내용의 하나로 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력한 방도는 긍정적 모범에 의한 교양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들은 자기 집단 성원들과 다른 집단 동지들을 교양하고 감화하는 데 있어서 례외 없이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의 교양, 항일 빨찌산들의 고귀한 공산주의적 모범의 힘에 의거하였으며 또 스스로 실천에서 모범을 보여 주는 방법에 의거하였다.

항일 빨찌산들과 같은 절세의 애국자-혁명가-공산주의자들의 모범은 도처에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심한 리기주의자도, 락후 분자도 가장 헌신적인 애국자로, 선진 분자로 전변시키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은 항일 빨찌산의 모범과 운동 선구자들의 실천적 모범에서 모든 우수한 것들을 배우며 무한한 용기와 신심을 얻어내고 있으며 혁명 선렬들의 정신으로 투쟁하며 생활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고 집단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한사람같이 묶어 세우는 여기에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기적을 창조하는 기본 요인이 있다.

이리하여 오늘 전체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은 이 운동을 통하여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교양되였으며 또 교양되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 혁명 과업을 무조건 집행하며 관철시키려는 불굴의 의지로 충만되여 있다.

당과 조국에 대한 충실성은 바로 로동과 국가 재산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여야 한다. 천리마 기수들은 바로 당과 수령이 항상 가르치고 있는바 그대로 조국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성실하고 영웅하게 로동하여 국가에 보다 많은 리익을 주려는 고도의 애국주의적, 공산주의적 사상으로 교양 받고 있다.

천리마의 기수들은 또한 운동 행정에서 온갖 보수주의와 소극성과 기술 신비주의 등을 불살라 버리고 당이 가르치는 대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며 계속 혁신하고 부단히 전진하는 혁명적 정신과 불요불굴의 투지로 무장되고 있다.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로동하려는 고상한 태도도 부단 혁명의 정신, 불굴의 투지와 결합됨이 없이는 당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시킬 수 없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의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로동에 대한 높은 자각적 태도,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상—이 모든 공산주의적 사상 의식이야말로 생산과 기술적 혁신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당 정책을 무조건 관철시키며 인민 경제 발전을 강력하게 추동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허다한 사실들 중에서 하나를 들기로 하자.

림 춘환 동무가 사업하는 희천 정밀 기계 공장 유압기 직장 2중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에게는 금년 내에 3,000대의 뜨락또르 생산을 위한 유압기 생산을 보장할 데 대한 당적 과업이 제기되였다. 뜨락또르의 심장으로 되며 1,400여 공정을 거쳐야 하는 이 유압기를 생산하는 데서 그들은 허다한 난문제들을 해결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란쟈 부쓔와 변좌의 가공에서 결정적으로 걸리게 되였다. 이 때 전체 작업반원들은 《손발이 움직이고 있는 한 부란쟈 부쓔와 변좌 가공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 결의에 충만되여》 모두가 이 부속품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연구하였으며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이 문제 해결에서 무려 24회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았으며 25회만에는 드디여 생산에 성공하였는데 로동 생산 능률은 종전의 200배로 높이는 기적을 낳았다.

불요불굴의 정신,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상,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없고서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만으로써 그들의 모든 기적적 성과들과 업적들을 설명할 수는 없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은 또한 이 운동을 통하여 고도의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 받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새 형의 인간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오늘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 속에서는 교대나 작업반에 구애됨이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저마다 먼저 수행하며 다음 교대나 다른 작업반들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조건을 지어 주며 서로 돕고 협조하여 전체의 생산 장성을 보장하며 모두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새 형의 인간 관계가 확고하게 자라나고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벌써 개인적 또는 작업반적 계획 수행에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집단과 기업소 전체의 계획 수행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들은 뒤떨어진 사람들과 집단들을 도와 선진 수준에 올려 세우는 것을 자기들의 응당한 의무로 간주한다.

현재 진 응원 작업반에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발기하던 당시의 반원 10명 중 3명밖에 남지 않고 모두들 다른 작업반을 도와 주기 위하여 옮아 갔다. 오늘 이미 허다한 천리마 작업반원들이 락후한 작업반을 방조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천리마 직장 운동에로 발전시키고 있다. 로력 영웅 길 확실 동무는 자기의 물질적 리해 관계를 돌보지 않고 뜨거운 사랑과 당원의 책임감으로 뒤떨어진 작업반에 내려 가 몹시 락후한 수십명의 동무들을 무한한 열성과 인내성으로써 교양 개조하여 1년도 못되는 동안에 이 작업반을 천리마 작업반으로 이끌어 올렸다.

이 고상한 헌신적 노력은 대중 속에서의 우리 당의 인민적 사업 방법과 작풍의 구현으로 되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개화하는 새 형의 인간 관계의 전형으로 된다.

길 확실 동무의 경험을 비롯한 전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경험은 적대 분자를 제외하고는 열렬한 동지애와 꾸준한 설복, 교양으로써 개조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행정에서는 어떠한 락후한 사람과 집단도 선진분자로, 선진적 집단으로 전변될 수 있다. 이처럼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위대한 학교로 되고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락후한 동무들을 사업에서 방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 생활까지도 돌보아 줌으로써 그들 자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교양하여 모두가 한 집안 식구같이 화목하고 단결되여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로동 및 국가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까지 고상한 도덕적 품성의 소유자로 자체를 육성하고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한 사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영웅이 되여야 한다.… 오늘 조선 사람이 다 천리마를 타고 다 영웅이 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와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의 원칙을 생활에서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강조한 바와 같이 천리마 기수들은 일신의 리해 관계를 돌보지 않고 당과 국가의 리익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며 관료주의도 형식주의도 모르고 오직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개조하며 생산, 기술, 문화, 사상, 도덕의 모든 령역에서 동지적 우애와 공산주의적 호상 방조로써 모든 일을 훌륭히 처리하는 새 형의 인간들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참가자들이 집체적 노력으로써 생산과 기술 혁신에서 기적적 성과를 거두며 모두가 주인답게 관리 운영에 참가하여 검사원도 정량원도 없이 사업하는 대중적 경제 운영의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그들의 높은 자각성과 집단주의 정신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다.

로동 생산 능률과 생산을 장성시키는데 있어서의 우리 근로자들의 높은 의식성의 특별한 역할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더욱 뚜렷이 실증되고 있다.

* *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발생 발전은 우리 당 정책을 근로자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정책으로 접수하며 그것의 관철을 위하여 그들이 어떠한 헌신성을 발휘하는가를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며 우리 당의 군중 로선과 인민적 사업 방법 및 작풍이 근로자들 속에 얼마나 깊이 침투되고 있는가를 웅변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발전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증명하는 것이며 당과 인민의 확고 부동한 통일을 시위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대중을 믿으며 항상 그들에 의거하고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우리 당의 인민적 사업 방법과 군중 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위대한 공산주의의 학교이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높은 기술 기능을 배우며 일반 문화 수준을 높이며 경제 운영의 새로운 방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당적 사상 체계와 공산주의 의식으로,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정신으로, 인민적 사업 방법과 작풍으로, 고상한 도덕적 품성으로 교양되며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으로 육성된다.

이 운동이 이와 같이 공산주의의 위대한 학교로 되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 로동과 교양이 직접으로 결합되여 있기 때문이며 로동, 실천이야말로 인간의 품성과 자질을 형성시키는 기본 령역이기 때문이다. 이 운동 행정에서 사상 교양을 통하여 달성된 사람들의 높은 의식성과 의지의 통일은 직접으로 생산과 기술적 혁신에서 위대한 성과를 가져 오며 이 성과는 그들에게 영예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그들의 의식을 더욱 확고히 해 주며 사업에서의 새로운 성과를 준비해 준다. 실천과 교양과의 이와 같은 유기적 통일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하여금 새 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육성하는 가장 훌륭한 학교로 되게 하고 있다.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위한 투쟁과 기술 문화 수준 제고를 위한 학습과 공산주의 교양을 밀접히 결부시키고 있는 여기에 이 운동의 하나의 현저한 특성이 있다.

레닌은, 보통 로동자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하여 만난을 무릅쓰고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하여 투쟁하며 한 줌의 곡물, 석탄, 철 기타 생산물을 애호 절약하려는 정신이 나타나는 데서 공산주의는 시작된다고 가르쳤다(전집, 제 29권, 512~513페지 참조).

공산주의적으로 로동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적으로 생활할 것을 지향하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공산주의의 훌륭한 싹이다.

당과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제, 문화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당이 제기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과업의 관철을 촉진시키며 공산주의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그 싹을 힘있게 자래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전체 근로자들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신성한 의무이다.

군 당 단체의 사업 체제와 방법을 개선하는 기본 고리

장 기 형

김 일성 동지의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현지 지도가 있은지 반년이 지나 갔다. 이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 모든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염주군 내에서도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실로 거대한 변혁이 일어났다.

군내 농업 협동 조합들, 공장, 기업소들 할 것 없이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는 로동 생산 능률을 수배로 높이기 위한 대중 운동이 힘차게 파도치고 있으며 문'자 그대로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이리하여 군내 농촌 경리 분야에서는 현재의 작황으로 보아 례년에 없는 풍작이 예견되고 있으며 지방 공업 공장들에서도 이미 상반년 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년간 계획을 120% 이상으로 초과 완수할 전망이 바라 보인다. 그리고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는 바야흐로 기술 혁신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기간 군내 근로자들의 정신 생활과 생산력 발전에서 이룩된 이러한 빛나는 성과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김 일성 동지의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현지 지도와 그와 관련된 일련의 교시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현 시기 군 당 단체가 견지하여야 할 사업 체제와 방법에 대하여 명백한 교시를 주시였다. 즉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농업 협동화가 완성되였으며 한 개 리가 하나의 조합으로 통합 확장된 결과 리는 한 개의 생산 단위로 되였으며 리 당 위원회는 생산 단위의 초급 당 단체의 성격을 띠게 되였다. 그러고 개인농 때와는 달리 모든 일을 집단적으로 하게 되였으며 특히는 수리화, 전기화가 실현되고 기계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농민들의 생활과 의식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조합들의 사업 범위와 규모도 전에 없이 확대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사실상 우리 당의 말단 지도 기관으로 된 군 당 위원회는 사무실에 들어나 차리고 앉아서 개인농 시기에 면 당 위원회를 지도하듯이 리 당 위원장들을 불러 올리거나 결정서나 지시문을 내려 보내고 독촉만 하는 식으로 사업할 것이 아니라 직접 리에 내려 가서 리 당 위원장과 같이 군중 속에 들어 가 사업을 료해하며 사업을 조직하며 군중을 교양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항상 당 조직을 튼튼히 틀어 쥐고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철저히 근절하고 전체 당원들과 군중을 발동시켜야 한다.

염주군 당 위원회는 김 일성 동지의 이러한 교시 내용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 중앙 위원회의 직접적 지도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군 당 단체의 사업 체제와 방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력량을 기울였다. 이에 있어서 군 당 위원회가 튼튼히 틀어 쥔 기본 고리는 직접 리에 내려 가 사업하는 것이였다.

일찌기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는 군 당의 모든 일'군들이 매달 15일 간을 하부에 내려 가 사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므로 염주군 당 위원회는 이 교시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의 경험을 걸쳐 7일 간은 리에 내려 가 사업하고 7일 간은 군에 올라 와 사업하는 것이 현재 우리 일'군들의 준비 정도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군내의 실정에 적합한 방법임을 확정하였다.

이리하여 현재 우리 군 당의 모든 일'군들은 7일 간은 리에 내려 가 리 당 단체의 사업을 지도하며 7일 간은 군에 올라 와 있으면서 지도 사업 정형을 총화하여 경험을 일반화하며 부장 회의와 부서 회의(매주 고정된 날)를 하며 학습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한 지도 날'자는 결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이 더 높아지고 회의와 문서 공작이 더 간소화된다면 리에 내려 가 사업하는 날'자가 더 많아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강서군의 교훈에 기초하여 군 당의 모든 일'군들이 7일 간은 리에 내려 가 사업하고 7일 간은 군에 올라 와 사업하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우선 7일 간 내려 가고 7일 간 올라 오도록 지도 날'자를 실정에 맞게 정하는 것도 중요하였지만 그것보다도 군 당의 종래의 사업상 낡은 틀을 대담하게 마스며 리에 내려 가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선차적으로 푸는 것이 더욱 중요하였다.

무엇보다도 회의를 간소화하고 문서 공작을 축소하면서 사업 체제를 바로잡는 것이 선결 문제였다.

종전에 군 당 위원회는 매달 평균 3~4차에 걸쳐 13일 간씩 리 당 위원장들을 불러 올렸으며 수시로 잡다한 지시들을 내려 보내고 독촉하군 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는 군 당 일'군들이 리에 못 내려 감은 물론 리 당 위원장들도 사무실에서 떠날 수 없게 하였고 따라서 당 사업은 다수 경우에 회의와 문서로써 대치되였다.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는 바로 이러한 데서 나왔다.

그러므로 군 당 위원회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우선 군 당 집행 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 하기로 하고 월말에 하는 집행 위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그 달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 달의 당, 정권 기관 및 근로 단체들의 사업 방향을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리 당 위원장들은 한 달에 한 번, 월말에 4~5일 간씩 부르는데 이 기간에 그들을 집행 위원회에 참가시켜 다음 달 사업 방향을 받게 하며 또 당 정책과 정치 실무 강습도 받아 가지고 돌아 가게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리 당 위원회들에서는 5일 간 사업 계획을 세워 조합 관리 위원회와 작업반들에서의 5일 간 작업 계획과 맞물고 돌아 가게 하였다.

한편 군 당 지도원들로는 두 사람을 한 조로 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한 리에는 조직부 지도원, 다른 리에는 선전 선동부 지도원을 배치하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서로 엇바꾸어 지도하게 하였다. 그리고 공업과 농업에 대한 지도를 병진시키기 위하여 조직부 부부장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정권 기관과 근로 단체를 담당시켜 농촌 경리를 보게 하였으며 다른 한 사람에게는 공장, 기업소를 담당케 하였고 지도원들은 군에 올라 와 있는 기간에 각기 자기가 맡은 기관과 공장, 기업소 당 단체 사업을 계속 료해하게 하였다(지도 사업은 별도 계획에 의하여 진행한다). 이 밖에도 군 당 위원회는 집행 위원회와 전원 회의 준비에 책임 간부들이 지도원들과 함께 직접 참가하며 간부 료해 사업, 조직 문제 등을 현지에서 처리케 하는 등으로 사무를 적극 간소화하는 대책도 취하였다.

이러한 사업 체제의 확립은 틀림 없이 회의와 문서를 간소화하고 군 당의 지도 력량을 하부에 접근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군 당의 모든 일'군들이 매달 절반씩 리에 내려 가 사업하게 된 것만큼 당장 걸리는 문제는 지도원들의 정치 실무 수준과 군중 공작 방법이였다.

종전에 군 당 위원회는 당 정책 학습과 실무 학습을 다수 경우에 각자의 자각성에 방임하였으며 좋은 경우에라야 그 내용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쳤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적지 않은 지도원들은 당 정책의 본질을 정확하게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독자적으로 리 당 단체를 지도할만큼 준비되여 있지 못하였다. 지난 기간 혹 경우에 당 정책이 외곡 집행되거나 사업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가 나오게 된 것은 이러한 사정에도 적지 않게 기인되여 있었다.

그러므로 군 당 위원회는 사업 체제를 뜯어 고치는 사업과 함께 지도원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당 정책 학습에 주력하였다. 즉 어떤 정책이 나오면 먼저 책임 간부들이 그것을 군내 실정과 결부시켜 연구해 가지고 발표하며 그 다음에는 각자에게 더 진지하게 연구시킨 후 그의 실행 대책을 토론하는 제도를 세웠다. 이러한 방법은 매개 지도원들로 하여금 군내 실정과 결부하여 당 정책을 연구하면서 그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케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였다.

군 당 위원회는 이러한 당 정책 학습과 함께 리론 학습, 경제 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 글 쓰는 사업 등도 전망 계획에 의하여 강력히 추진시키고 있으며 다른 한편 책임 간부들이 지도원들을 리에 데리고 내려 가 실지 사업 과정에서 배워 주는 사업을 병행시키고 있다.

초기에 군 당 위원회는 부부장 이상 간부의 책임하에 2~3명의 지도원들로써 10개의 지도 그루빠를 조직해 가지고 1개월 간에 걸쳐 군내 23개 리 당 단체를 전면적으로 지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도원들에게 당 정책의 본질을 더 잘 리해하게 하였으며 당 사업 방법, 군중 공작 방법 및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배우게 하였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된 지도원들에게는 리 당 단체에 대한 개별 지도를 위임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지도원들로써는 또다시 책임 간부들의 지도하에 2개의 지도 그루빠를 조직하여 가지고 남압리와 하석리 당 단체를 각각 1개월 반에 걸쳐 지도하면서 당 사업 체제와 방법을 더 잘 배우게 하였다. 이리하여 모든 지도원들이 짧은 기간에 초보적으로나마 능히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군 당 위원회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비로소 군 당의 모든 일'군들이 7일 간 리에 내려 가 사업하고 7일 간 군에 올라와 사업하게 하였다. 당 사업 체제와 방법에서의 이러한 개선은 확실히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전체 당원들과 군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발동시킬 수 있게 하였다.

즉 이 때를 계기로 하여 군 당 일'군들은 리에 내려 가 사업하는 기간에 리 당 위원회의 5일 간 사업 계획을 지도하면서 리 당 위원장과 함께 비교적 일이 잘 안 되는 당 단체에 내려 가 농민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 당 단체의 사업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며 5일째 되는 날에는 리내 지도 일'군들과 함께 5일 간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 5일 간 사업 방향을 제시해 주며 당 정책 강습도 진행하게 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 단체와 당 분조를 통해 전체 당원들에게 분공을 주고 총화하면서 그들에게 군중 공작 방법을 배워 주어 비당원 대중을 적극 발동시키는 조직 사업도 진행하게 되였다.

한편 군 당 일'군들이 리에 내려 갔다 올라온 다음에는 리 당 단체에 대한 지도 정형을 집체적으로 청취하고 잘한 것과 잘 못한 것을 갈라 알기 쉽게 가르쳐 주며 호상 경험을 교환케 하며 개별적 단위들에서 창조된 새로운 경험들을 일반화하는 대책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군 당의 모든 일'군들이 리에 내려 가고 올라 오는 사업을 반복하는 행정에서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은 부단히 제고되여 갔으며 군 당 단체의 지도가 더욱더 대중 속에 심입되게 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찌기 찾아 볼 수 없었던 거대한 앙양을 불러 일으키게 되였다.

군 당 단체의 사업 체제와 방법을 개선하는 것(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지만)도 어려운 일이였지만 이러한 경험을 모든 기관, 기업소 당 단체들에 일반화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였다.

초기 일부 일'군들 속에서는 리에 내려 가 사업하라는 당과 수령의 교시를 다만 군 당 위원회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편향이 있었다. 이러한 일'군들은 군 당 일'군들이 7일 간 내려 가고 7일 간 올라 오는 것은 리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피상적으로 리해하면서 자기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여전히 회의와 문서 공작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현장을 한 바퀴 돌아 오는 것으로 지도 사업을 대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편향은 특히 공장, 기업소 지도 일'군들에게서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일부 지도 일'군들은 리에 내려 가 사업하라는 것을 무턱대고 내려 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리해하고 많은 시간을 하부에 내려 가 종전과 다름 없이 형식적으로 돌아 다니기만 했으며 또 일부 지도 일'군들은 이것을 농민들과 같이 일하라는 것으로 일면적으로만 리해하고 자기의 본신 사업을 모두 집어 치우고 전야에 나가 그저 일만 하였다. 이러한 편향들은 일부 군급 기관 지도 일'군들과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에게서 적지 않게 나타났었다.

리에 내려 가라는 것은 다만 농촌을 지도하는 일'군들에게만 해당되는 교시가 아니다. 이 교시의 본질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당 단체들에서 지도를 대중 속에 접근시키라는 맑스주의적 령도 방법의 기본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있다. 그런 것만큼 모든 당 단체들에서 지도 날'자의 배정에 구애됨이 없이 군 당의 경험(7일 간 내려 가고 7일 간 올라 오는 방법)을 자기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은 사업 체제와 방법을 개선하는 중요 관건으로 된다.

례를 들어 염주 농기계 작업소 초급 당 단체에서는 지도 력량이 초급 당 단체 위원장, 지배인, 책임 기사 등 비교적 준비된 일'군들이며 작업반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실정에서 7일 간은 작업반에 내려 가 사업하고 2일 간은 사무실에 들어 와 총화, 회의, 학습을 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이들은 정상적인 하부 지도 사업을 통하여 당 분조를 강화하고 운전수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제고함으로써 금년도에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87%(작년 하반년 실적 66.5%)로 높이였으며 총 연경 계획을 104%로 초과 완수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기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남시 제염소 당 위원회에서는 《작업반들이 코 앞에 있는데 내려 가긴 어딜 내려 가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킬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결과 여전히 낡은 사업 방법을 답습하고 있으며 생산에서도 혁신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군 당 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대조적인 현상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으면서 우선 일'군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낡은 틀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과 사물을 피상적으로만 관찰하는 형이상학적인 사고 방법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면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당 단체들에서 7일 간 내려 가고 7일 간 올라 오는 군 당의 경험을 자기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지도를 더욱 대중 속에 심입시키도록 지도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의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현지 지도와 그와 관련된 일련의 교시들에 철저히 의거하여 군 당의 모든 일'군들이 7일 간은 리에 내려 가 사업하고 7일 간은 군에 올라 와 사업하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집행한 것은 군 당 단체의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되였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군 당 위원회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가 일상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도와 대중을 련결시키며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는 맑스주의적 령도 방법을 체득하게 되였으며 대중 속에서 나와서 다시 대중 속으로 들어 가는 우리 당 군중 로선을 관철할 수 있게 되였다.

첫째,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는 령도 방법을 비로소 실현할 수 있게 되였다.

종전에 군 당 위원회는 다수 경우에 리 당 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를 주고 독촉하는 데 그쳤으며 좋은 경우에 개별적 단위에 내려 가 경험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지도 사업이 뒤따르지 못하였던 관계로 결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군 당 일'군들이 정기적으로 리에 내려 가 사업하고 그 결과를 총화하게 되였으므로 능히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할 수 있게 되였다. 례컨대 다사리 당 단체를 지도하는 행정에서 우리는 이곳 관리 일'군들이 농사짓는 데 90%의 로력을 떼 돌렸으나 그에 따르는 축력, 운반 도구, 소농기구 등은 소요량의 절반밖에 갖추지 못함으로써 1인당 작업 능률이 오히려 30%나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러므로 군 당 위원회는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얻어 모든 리 당 단체들에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도록 지도를 강화한 결과 농사짓는 데 력량을 집중하라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원만히 관철할 수 있었다.

군 당 위원회는 리 당 단체에 대한 정상적인 지도를 통하여 당 정책 집행 행정에서 나타나는 이러저러한 편향들을 제때에 극복 시정할 수 있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단위들에서 계속 새 것을 조장 발전시키고 모범을 창조하여 부단히 일반화하는 사업도 성과 있게 진행하게 되였다. 현재 군 당 위원회는 남압리와 하석리 당 단체에서 당 사업 체제와 방법의 개선, 룡산리 당 단체에서 위생 문화 사업의 모범을 각각 창조하고 그를 일반화하며 또 농민들 속에서 싹트고 있는 공산주의적 품성들을 제때에 포착해 가지고 농민 대중을 그러한 긍정적 모범으로 계속 부절히 교양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사실은 구경 군 당 일'군들이 대담하게 리에 내려 가 사업하게 된 결과이다.

둘째, **사업의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령도 방법을 실현할 수 있게 되였다.

군 당 일'군들이 리에 내려 가 사업하게 된 결과 군 당 위원회는 하부 실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료해할 수 있게 되였으며 어느 일을 먼저하고 어느 일을 후에 할 것인가도 똑똑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군 당 위원회는 집행 위원회를 통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정권 기관과 근로 단체들에게 사업의 선후차를 가려 정확한 사업 방향을 줄 수 있게 되였으며 중요한 사업이 제기될 때마다 력량을 집중할 중심 고리도 옳게 포착하여 제시해 줄 수 있게 되였다.

금년도의 모내기에 대한 지도가 바로 그러한 실례이다. 방금 모내기를 추진시켜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지도 일'군들은 그 때까지도 어느 고리를 추켜 들고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군 당 위원회는 내중리와 남압리에 지도 그루빠를 파견하여 모내기를 지도하면서 경험을 얻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축력이 적지 않게 부족되므로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훨씬 높이고 중 소 기계화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뉘우치게 되였다. 그리고 2계단 모(륙모와 절충모)의 성육이 늦었다는 것, 전반적으로 모가 모자란다는 것, 모'줄이 소요량에 비해 부족된다는 것 등도 료해하게 되였다. 그러므로 군 당 위원회는 군 인민 위원회에 기경 작업과 써레질을 적극 기계화하는 사업을 중심 고리로 포착하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며 이여의 고리들도 동시에 해결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당 및 근로 단체의 지도 력량을 이 문제의 해결에 조직 동원하였다. 이리하여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작년보다 1

주일 간을 앞당겨 모내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 당 위원회의 이러한 지도 방법은 정권 기관과 근로 단체 일'군들로 하여금 모든 사업 집행에서 항상 명확한 사업 방향과 중심 고리를 포착해 가지고 자신 있게 그에 력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것도 군 당 일'군들이 항상 리에 내려 가 사업하게 된 결과이다.

세째, **지도와 대중이 결합**된 결과 지도자와 피지도자 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였으며 농민 대중의 열성이 비상히 제고되였다.

당 일'군들은 농촌에 내려 가 사업하는 기간에 종전처럼 양복을 입고 가방을 끼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농민들과 같이 일하며 침식을 같이 하며 마당도 쓸어 주고 집도 수리해 주면서 그들에게 당 정책을 알려 주고 긍정적 모범으로 그들을 인내성 있게 교양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들로부터 지방의 실정과 풍습도 배우며 농사짓는 방법도 배운다.

이리하여 오늘에 와서 당 일'군과 농민 대중은 단순히 지도하고 지도 받는 사이가 아니라 다 같은 혁명 동지로서 서로 배우고 배워 주면서 모든 문제를 허심하게 털어 놓고 상론하며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아 당 정책을 관철해 나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에서 농민 대중 속에서는 당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두터워지고 있으며 그들의 사상은 더한층 각성되여 청산리 사람들처럼 빨리 걸어도 부족하여 뛰여 다니는 새로운 기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게 되였다.

네째, **당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이 부단히 제고**되여 가고 있다.

리에 내려 가 사업하고 군에 올라 와서 총화, 회의, 학습하는 행정에서 당 일'군들은 당 정책에 의거하여 부단히 객관 현실을 종합, 분석, 일반화하며 대중에게서 진지하게 배우면서 이미 책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보충하고 풍부화한다. 특히 군에 올라 와 지도 사업 정형을 정기적으로 총화하는 행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항상 대중 속에서 사업하는 것만큼 자기 지식의 부족점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를 보충하기 위한 학습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군 당 일'군들은 현실 자체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당 정책 학습과 혁명 전통 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뜨락또르 운전법, 농업 경제 등도 전망 계획에 의하여 진지하게 학습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 당 일'군들은 대중 속에서 부단히 자기의 군중 공작 방법을 완성해 나아가고 있으며 자기의 사업 경험을 총화하고 일반화하는 글들을 쓰면서 자기의 정치 실무 수준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 당 일'군들이 직접 리에 내려 가 사업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7일 간은 리에 내려 가 사업하고 7일 간은 군에 올라 와 사업하는 것은 김 일성 동지의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현지 지도와 그와 관련된 일련의 교시들을 관철하는 기본 고리로 된다. 만일 군내의 모든 당 단체들에서 한결같이 이러한 경험을 도입하고 자기의 령도 방법을 꾸준히 완성한다면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전체 당원들과 군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더 잘 발동시킴으로써 그의 천리마적 속도를 가일층 촉진시키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염주군 당 위원회는 이미 얻은 성과에 조금도 자만함이 없이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을 더욱더 심오하게 연구하면서 당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가일층 개선 강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필자, 평북도 염주군 당 위원장)

장 면 《내각》은 리 승만 《정권》의 연장이다

김 상 원

남조선에서 리 승만 독재 정권이 전복된 후 지난 7월 29일 실시된 《선거》를 통하여 《새 국회》와 《새 내각》이 조작되였다.

미제와 《민주당》 상층부는 이 《정권》이 마치도 《민주 정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제도 복구하고 인민 생활도 안착시킬 수 있을 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들에게 그 어떤 환상을 던져 줌으로써 밑뿌리 채 뒤흔들리는 저들의 반인민적 통치를 수습 유지해 보려는 어리석은 기만적 술책에 불과하다.

새 괴뢰 정권의 조작 과정, 그의 계급적 본질, 그가 표방하는 《정책》으로 보아 장 면 《내각》은 리 승만 괴뢰 정권의 상속자이며 연장이다.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란 리 승만 도배에 못지 않은 매국 배족의 악정과 학정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장 면 《내각》이 내걸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심지어 그들 지배층 자신들까지도 《빛좋은 개살구》라고 야유하면서 《리 정권의 정책에서 일보의 전진도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새 괴뢰 정권이 어떻게 날조되였는가

4월 인민 봉기에서와 그 이후 남조선 인민들은 다만 리 승만 괴뢰 정부 타도만을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자유당 민주당 다 글렀다》고 웨치면서 미제를 물러 가게 하고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요구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하여 왔다.

그러나 남조선 괴뢰 국회의 《선거》의 진행 정과 결과는 《민주당》의 독판치기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인민들의 의사는 조금치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 인민들의 영웅적 항쟁 앞에서 리 승만 《자유당》이 몰락한 후 실시된 금번 《선거》는 미제 침략자들이 식민지 통치를 위한 쌍두마차의 하나로 조종하여 온 관제 야당인 《민주당》의 반동적 상층부에게 괴뢰 정권을 계승시켜, 위기에 직면한 저들의 식민지 통치 기반을 재수습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한 개의 협잡이며 연극이였다.

미제의 강점이 계속되고 반동적인 선거 제도를 그냥 두고 또한 선거를 조직 집행하는 반동적인 괴뢰 통치 기구를 그냥 두고 있는 조건하에서 백 번 《선거》를 하여도 인민의 의사가 반영되기란 만무하다.

거기에서는 오직 관권과 금력을 휘둘러대며 온갖 사기와 협잡을 자행하는 매국 정상배들의 의사가 지배할 뿐이며 워싱톤 사환'군들을 통하여 《선거》를 조종하는 미제의 간계가 관통될 뿐이다.

그러면 애당초 금번 괴뢰 국회 《선거》 자체가 어떻게 날조되였는가?

4월 인민 봉기 후 미제와 그의 괴뢰들은 《내각 책임제》의 《개헌》을 하며 그에 근거하여 새 《국회》를 《선거》하고 새 《정부》를 조작하면 《인민의 요구가 관철된다》고 떠들어 왔다.

도대체 《대통령 책임제》를 《내각 책임제》로 《개정》한 《헌법》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종래의 리 승만 파쑈 《헌법》에다가 교활하게 몇 개의 조문과 문구를 바꾸어 놓은 것 뿐이다.

오늘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 책임제》니 《내각 책임제》니 등 형식은 각이하나 그의 본질은 다 똑같은 부르죠아 독재 기구이다. 제국주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란 그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괴뢰 도당들은 《대통령 책임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어 《립법부》와 《행정부》가 호상 견제함으로써 마치 파쑈 독재, 1인 독재를 막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음흉한 목적을 결코 은폐할 수 없다.

그들의 소위 《량원》 즉 《참의원》과 《민의원》이 반동적 매국 정상배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만큼 거기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이나 《국무 총리》가 어떤 자들이겠는가 하는 것은 더 말할나위조차 없다.

더우기 괴뢰 국회 《선거》에서의 기탁금제, 거주, 년령 등에 의한 각종 제한과 파쑈적 탄압으로 말미암아 로동자, 근로 농민들이 괴뢰 《국회》에 자기의 대표를 보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대통령 책임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었다 하여, 소위 《국회》가 《국무 위원》들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하여 그의 매국 배족적 반동 통치의 본질은 조금도 달라질 수 없다.

남조선 괴뢰 도당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내각 책임제》니 《립법부》와 《행정부》의 호상 견제이니 하는 간판으로써 마치나 《민주 정치》가 실시되는듯이 인민을 기만하려는 데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개정 헌법》은 리 승만 파쑈 《헌법》을 복사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기만적 《개헌》에 근거하여 괴뢰 국회 《선거》가 진행되였으니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명백하다.

7. 29 괴뢰 국회 《선거》는 과거의 력대 《국회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의원》, 《참의원》할 것 없이 로동자 및 근로 농민의 대표는 한 명도 《선거》되지 않았고 예속 자본가, 지주 및 그들의 정치 사상적 대변인들이 《선거》되여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금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괴뢰 국회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였다.

악명 높은 리 승만식 폭압과 관권과 금력 및 사기 협잡에 의한 부정 《선거》의 수법이 되풀이되였다.

금번 괴뢰 국회 《선거》 진행 과정이 일반적으로 리 승만 통치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에는 더 공공연히 더 조포하게 살인, 위협, 매수, 협잡이 자행된 데 반하여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상층부는 더 교활하게 숨어서, 남조선 통신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능범》의 수법으로 그런 죄행을 감행한 데 있을 뿐이다.

《선거》 운동이 개시되자 미국 상전의 고무 지지하에 집권당의 행세를 하기 시작한 《민주당》 지배층은 한편으로는 허 정 일당으로 하여금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강화케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저들의 《선거》 승리를 날조하기 위한 매수와 협잡을 적극 추진시켜 왔다. 《선거》를 앞두고 아이젠하워의 남조선 방문을 비롯하여 미국 고위 관리, 장교들의 빈번한 남조선 방문, 미국 《대사》의 직접적인 《선거》 간섭, 《대사관 감시반》의 파견,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 《감시반》 성원의 증가, 일련의 군사 도발 소동, 매 《선거》구마다에 경찰 기동대의 포치 등으로 미제는 삼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선거보다도 또 어떤 난리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남조선 한 농민이 말한 바와 같이 《선거》 기간 인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허 정 과도 《정부》는 군용기와 관용차 등을 《민주당》 립후보자들에게 제공하였고 그들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며 부정 《선거》 활동을 로골적으로 비호 지원하는 한편 남조선 인민들의 일반적 지향을 반영하여 새로이 정치 무대에 출현한 《혁신》 정당 립후보자들에게 대해서는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립건 수사하였다.

괴뢰 도당들은 《선거》에 앞서 남북 간의 협상을 주장한 《혁신 세력》에 대해서 《용공》이란 감투를 씌워 탄압과 위협, 공갈을 일삼음으로써 《혁신 정당》들의 《선거》 활동을 억제하였다.

《민주당》 상층부는 《개헌》 당시에 부정 축재자 처벌 조항을 삽입할 데 대한 요구 조건을 거부하고 수 많은 부정 축재자들로부터 장차 《민주당》 집권시에 그들의 리권과 직위를 보장해 줄 약속을 미끼로 하여 막대한 《선거》 자금을 조달하는 데 광분하였다.

이 《선거》 자금을 가지고 《민주당》 상층부는 《선거인》을 매수하는 협잡 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에 어느 《선거》 때보다도 금력에 의한 매수 매표 등 협잡 노름이 성행되였는바 남조선 통신들까지도 이번 《선거》를 특징 지으면서 《술과 돈이 판치는 선거전》, 《돈이 많아 운동전에서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선거》라고 론평하였다.

관권과 금력, 협잡, 테로로 독판을 친 《선거》 연극을 통하여 괴뢰 국회 의석의 다수를 점탈한 《민주당》 지배층은 소위 《개헌》의 결과 실권 없는 《대통령》 자리보다 실권 행사자인 《국무 총리》 자리의 쟁탈을 둘러싼 신구파 간의 정권 쟁탈전에서 신파가 승리하여 장 면을 두목으로 한 《내각》이 조작되였다.

장 면 《내각》은 리 승만 《정권》의 연장이다

7. 29 《선거》노름을 통하여 남조선에 출현한 장 면 《내각》이 리 승만 괴뢰 정권의 재판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의 구성 자체만 보아도 충분하다.

장 면이 발표한 괴뢰 각료 명단을 보면 그의 성원 전부가 예속 자본가, 지주들을 계급적 토대로 하고 있는 친미, 친일파, 민족 반역자로 꾸려졌다. 그 중에는 리 승만 통치 때의 《자유당》 출신 괴뢰 국회 의원들도 《입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민주당》의 신파 내부에서까지도 장 면 《내각》을 가리켜 《일제 시대와 리 승만 정권하에서의 관료 출신이 태반》인 《친일 관료 내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러한 괴뢰 내각이 실시할 《대내 대외 정책》이 어떠할 것인가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장 면이 발표한 8개 항목의 《시정 방침》의 내용만 보아도 그것은 리 승만 본때 그대로 철두철미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반역적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장 면은 그의 《시정 연설》의 첫 마디에서 이른바 《유엔 감시하의 남북 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구호로써 그는 마치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하여 그 어떠한 관심과 성의라도 가지고 있는듯이 사태를 묘사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있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반대하며 미제의 침략 정책을 은폐하려는 교활한 책동에 불과하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조선 인민의 내정 문제이다. 여기에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용허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조선 문제를 조선 사람 자신이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거기에 반드시 외국 사람이 끼여 들 것을 요구하는가? 이러한 주장은 나라의 자주성을 말살하고 민족의 운명을 외래 제국주의의 예속하에 두자는 것이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지난 15년 동안에 남녘땅에서는 《유엔 감시하의 선거》가 여러 번 감행되였다. 그러나 그러한 《선거》가 류례 없는 사기, 협잡, 테로가 란무하는 부정 《선거》였다는 것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유엔 감시하의 모든 《선거》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류혈적 탄압을 동반하였고 미제의 식민지 략탈과 민족 분렬을 더욱 강화하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면 도당의 《유엔 감시하의 선거》 운운은 종래의 《북진 통일》이란 전쟁의 방법으로써도 실현할 수 없었던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침략을 무력으로 뿐만 아니라 허울 좋은 《유엔 감시하의 선거》로 달성하여 미제의 식민지 통치 제도를 공화국 북반부에까지 확대하려는 음흉한 책동에 불과하다.

장 면 《내각》은 출현하자마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미제의 예속하에 두려는 매국 배족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멸공을 국시》로 하고 남북 간의 서신 거래까지도 《위험한 곡선이 내포될 념려》가 있다는 구실하에 이를 거절한 사실,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 기구인 미국, 일본, 남조선 등을 포함한 《동북 아세아 동맹》 조작을 로골적으로 표명한 사실은 바로 그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장 면 《내각》의 이른바 《외교 정책》에서도 미제의 손때 묻은 주구의 본색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 지배층 간에 《현존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면의 뉴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잠꼬대와 같은 구호는 남조선을 미제에 의한 정치, 경제, 군사적 예속과 미국식 생활 양식의 침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민족적 자주권과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전과 괴뢰와의 예속적인 주종(主從) 관계는 벌써 나타나고 있는바 장 면 《내각》은 상전에게 《원조》의 증액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에 《사절단》 파견까지 결정하였다.

미국 지배층도 새 괴뢰 정권에 대하여 《우리는 한국의 신 정권과 극히 좋은 관계에 있으며 신 정권은 구 정권보다 더 협조적이다》라고 떠벌리고 있다.

장 면 《내각》은 미국 《원조》 뿐만 아니라 파쑈적 서부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의 독점 자본까지 끌어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일본 독점 자본의 지배하에서 조선 인민이 식민지 노예의 쓰라린 생활을 겪어 온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일본 자본을 또다시 끌어 들이자는 것은 친일 주구들이 아니고서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장 면 《내각》의 이른바 《대외 정책》이 《반공 국시하의 외교》라는 구호하에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그대로 떠받들고 있는 철두철미 매국 배족적 정책인가 하면, 그의 《대내 정책》에 있어서도 역시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을 보장하며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기에 광분하여 온 리 승만의 반인민적 정책의 재연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장 면 도당이 벌써 《선거 전 공약》으로부터 시작하여 금번 《시정 방침》에서 표명한 《경제 시책》은 처음부터 공담으로 일관된 기만 정책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장 면 《내각》은 《시정 방침》에서 《경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 개발을 위한 투, 융자의 확대》, 《토지 수득세의 금납제》, 《전원(電源) 개발》, 《중 소 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조치》 등 허황한 문구들을 장황하게 라렬하고 있다.

이러한 표방은 리 승만 통치 시기에도 남조선 인민들이 귀가 아프도록 들어 온 바로 그 소리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은 리 승만 통치 시기에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과연 장 면 《내각》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무슨 밑천으로 이 《경제 시책》을 실현할 수 있단 말인가.

금고는 텅 비고 생산은 없고 괴뢰 정부는 인민들에게서 진 부채만 하여도 4천억 환에 달하는 한심한 처지에서 무엇으로 파산된 민족 경제를 복구하고 기아와 빈궁에서 허덕이는 수백만의 실업자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장 면 《내각》의 이른바 《경제 시책》의 허황성은 그들이 8월 27일에 발표한 신년도 예산안 하나만 보아도 충분하다.

신년도 예산안은 재정 수요가 금년보다 23%나 증가된 근 5천 200억 환의 세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바 그 자체가 방대한 적자 투성인 가공 예산이며 세입 원천이라는 것도 조세 수입이 아니면 국채 발행과 같은 채무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

조세 또는 국채 발행을 유일한 세입 원천으로 삼는 적자 가공 예산으로서는 팽창하는 군사, 경찰비와 행정 관리비조차 메우기도 부족한 형편에 있다.

장 면 《내각》은 미국 《원조》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가 남조선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장 면 《내각》은 결코 그의 《경제 시책》을 실현할 수 없다.

지어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지까지도 장 면 《내각》이 표방하는 《경제 시책》의 황당성에 언급하여 《불안정한 한국 경제와 뒤흔들리는 정부 재정은 돈이 많이 드는 이러한 계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장 면 《내각》의 그러한 《경제 시책》은 그들의 계급적 리해 관계로 보아서도 결코 실행할 수 없다.

그것은 《부정 축재자 처리》에 대한 태도만 보아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리 승만 《정부》를 타도한 이후에도 계속 《부정 축재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실업자들과 절량 농민들을 구원하는 데로 돌리자》고 요구하여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부정 축재자들은 리 승만 괴뢰 정권하에서 갖은 협잡과 부정으로서 치부한 예속 자본가들이다. 이 자들은 바로 미제의 략탈적인 《원조》 정책을 실현하면서 남조선의 재부를 미제에게 송두리 채 넘겨 주며 민족 경제와 인민 생활을 파멸에로 이끌어 간 대'가로 부당하게 재부를 횡취하여 치부하였다.

따라서 남조선 인민들이 이 자들을 《엄단》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빈민 구제에 돌려라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그러나 장 면 《내각》은 《국민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혹하지 않고 경제 파탄을 가져 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정 축재자들을 처리》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이것은 우연하지 않다.

워낙 장 면 《내각》 자체가 지주, 예속 자본가에 그 지반을 두고 있는 것만큼 예속 자본가 무리들인 《부정 축재자 처리》를 어물어물해 버릴 것만 사실이다.

한 가지를 미루어 백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이만해도 장 면 《내각》의 반인민적 본질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제반 사실은 장 면 《내각》이 그 날조 과정으로 보나 그 구성상으로 보나 그가 표방하는 《정책》상으로 보아서 철두철미 리 승만 괴뢰 정권의 재판이다.

리 《정권》은 인민들에게 정치적 무권리와 기아와 빈궁 외에는 아무 것도 줄 수 없다.

미국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인 친미, 친일파들과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식민지 반동 통치가 실시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과연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이 계속되고 우리 나라가 분렬되여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누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정권에 들어 앉는다 하더라도 파국에 처한 남조선 사태를 수습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달라진다고 하면 리 승만 정부가 장승만 정부로 개칭되는 것 뿐이고 그 처지와 말로는 한 가지일 것이며 인민들의 생활에도 하등의 개선이 없을 것이다》(《조선 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오늘 남조선에서 갈수록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정권 독점을 위한 지배층 내부의 갈등이 우심하여지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권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계속되는 치렬한 투쟁은 그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 있다.

남조선에서 첨예화되여 가는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 지배 계급 내부 간의 모순은 장 면 《내각》의 위기와 파멸을 기필코 촉진시킬 것이다.

장 면 《내각》이 날조된 후 3주일도 못 되여 벌써 《내각》 《개편》이 진행된 자체가 그의 정치적 위기의 뚜렷한 표현의 하나이다. 괴뢰 각료 자리에서 몇 명의 《신파》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구파》가 들어 앉았다고 해서 그것으로써 장 면 《내각》의 성격이 달라질 수 없으며 그의 정치적 위기를 완화시킬 수 없으며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여 전개되고 있는 인민들의 투쟁을 결코 막아낼 수 없다.

남조선에서 파국에 처한 현 사태를 수습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절박한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고 괴뢰 반동 통치 제도를 종식시키고 남북 협상과 나아가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다.

쏘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사*

Ⅲ

쏘련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이였던 제 2차 세계 대전은 최근세사에서 완전한 한 시기를 이루었다. 력사적 과정의 발전을 일정한 단계들에 따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정확한 시기 구분은 제 2차 세계 대전을 과학적으로 구명함에 있어 큰 의의를 가진다. 전쟁의 시기들이란 군사-정치 정세에서 대변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간을 말한다. 이러한 변동은 무력 투쟁 행정과 그 형태들, 군사 행동의 단계들, 교전국들의 전시 경제의 상태와 국제 정세를 규정하는 전반적인 경제적 및 정치적 요인들에 의하여 야기된다.

제 2차 세계 대전사에서 전쟁 제 1기는 전쟁 개시로부터 쏘련에 대한 독일의 침공까지의 시기를 포괄한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다. 제 2차 세계 대전의 그 이후의 시기 구분은 위대한 조국 전쟁 행정과 그의 주요 시기들에 의하여 규정된다.

위대한 조국 전쟁의 제 1기(제 2차 세계 대전의 제 2기에 해당된다)는 1941년 6월 22일부터 1942년 11월까지의 기간을 포괄한다. 이 시기는 쏘베트 국가에 있어서 전쟁의 가장 어려운 기간으로서, 치렬한 전투에서 파쑈 독일의 《전격전》 계획을 파탄시킨 붉은 군대가 부득이 후퇴한 것으로 특징 지어졌으며 후방과 전선에서 전쟁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조성한 것으로 특징 지어졌다. 이 시기에 파쑈 독일을 반대하는 쏘베트 국가의 무력 투쟁은 주로 방어적 성격을 띠였다. 즉 붉은 군대는 완강한 전투를 진행하여 적의 력량을 소모시키면서 국내 깊이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 기간에 독일은 쏘련에 대하여 두 번이나 대공격을 감행하였으나 두 번 다 제지 당하였으며 히틀러의 전략이 내세운 종국적 목적들은 좌절되고 말았다. 전쟁 제 1기에 쏘련의 무력은 파쑈 침략을 제지하고 적들이 국내 깊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전쟁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였다. 붉은 군대의 1941~1942년 동기 공세 및 모쓰크바 근방에서의 독일 파쑈 무리들의 격멸은 제 2차 세계 대전에서의 독일의 첫 대패배로서 모험적인 《전격 작전》의 완전한 파탄으로 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쏘련 무력은 아직 군사 행동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이 시기에 공산당의 활동은,최단 기간 내에 국내의 일체 생활을 전시 태세로 개편하며 나라를 하나의 통일된 전투 대렬로 전환시키며 히틀러의 《전격 작전》을 좌절시키며 조국 전쟁 행정에서 전환을 준비하는 데로 돌려졌다.

쏘련 공산당의 위대한 공훈은 그가 전쟁의 최초 수개월 간 가장 어려운 조건하에서 난관에 굴하지 않고, 잔인하며 교활한 원쑤의 공격에 당황하지 않고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 조국의 수호에로 궐기시킬 수 있었다는 거기에 있다. 전투 행동이 개시된 시초부터 당의 령도하에 적후에서는 전쟁 과정들에 거대한 역

* 전호에서 계속.

할을 한 전 인민적인 빨찌산 운동이 전개되였다.

이미 전쟁의 제 1기에 쏘련의 군수 경제는 붉은 군대에 주도권이 넘어 오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준비하였다.

이 시기에 반파쑈 련합도 형성되였다. 쏘련 무력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북아프리카, 대서양 및 태평양 교전 구역들에서 반파쑈 련합의 기타 성원국 무력이 성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위대한 조국 전쟁의 제 1기는 또한 쏘베트 군사 예술의 발전에서 중요한 단계로 되였으며 구체적인 전투 경험을 축적하고 연구한 시기였다. 쏘베트 군대는 전투에서 섭취한 경험을 고려하여 방어에서나 공격에서 작전 및 전술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옳은 방도를 찾아냈다.

결국 전쟁 초기에 독일 파쑈 군대의 동부에로의 전진이 저지되고 교전국 쌍방의 전략적 균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 오며 주도권이 쏘련에 넘어 오는 데 필요한 전제들이 조성되였다. 이 시기의 전쟁 과정에서 정점으로 된 것은 히틀러의 진공 계획을 파탄시킨 모쓰크바 근방에서의 독일 파쑈 군대들의 괴멸과 영웅적인 쓰딸린그라드 방어 전투였다.

위대한 조국 전쟁의 제 2기(제 2차 세계 대전의 제 3기)는 1942년 11월 19일부터 1943년 말까지 계속되였다. 이 시기는 전쟁 행정에서의 근본적인 전환, 붉은 군대의 위대한 력사적 승리의 시기였으며 파쑈 독일 군대의 파멸적인 패배의 시기였다. 이 시기는 군수품 생산이 급격히 증대되고 쏘베트 병사들의 전투 기능이 제고되고 전략적 주도권이 붉은 군대에 넘어 온 시기이다. 이 시기에 공산당과 전체 인민의 노력은 나라의 인민 경제에서 생산 능력을 현저히 장성시키며 군수품 생산을 증대하여 쏘베트 군대의 승리적 진공과 전쟁에서의 급격한 전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선에 보장하는 데로 돌려졌다. 이 시기에 공산당이 취한 군사 건설 분야에서의 중요한 조치들은 쏘베트 군사 예술을 가일층 발전시켰으며 쏘련 무력의 전투 기능을 제고시켰다. 이 시기에 있은 사변들은 쏘련의 국제적 지위에서 새로운 큰 변화들이 일어났고 위력이 가일층 강화되였으며 전략적 주도권이 붉은 군대에 넘어 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쓰딸린그라드와 꾸르쓰크 근방에서의 붉은 군대의 승리는 전쟁 제 2기의 정점을 이루었다. 쓰딸린그라드 근방에서의 파쑈 독일 군대의 격멸은 히틀러 독일을 반대하는 투쟁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으며 위대한 조국 전쟁과 제 2차 세계 대전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의 시초를 열어 놓았다. 붉은 군대의 이러한 전 세계사적 승리에서 인류는 파쑈즘에 대한 종국적이며 완전한 승리의 려명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쓰딸린그라드 근방에서의 반공격으로부터 시작하여(1942년 11월 19일부터) 쏘베트 군대는 1942~1943년 겨울에 쏘-독 전선의 남익에서 계속 공세를 개시하였다. 동시에 쏘베트 군대는 레닌그라드의 봉쇄를 돌파하고 다른 전선 지역들에서 작전 및 전략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쏘베트 땅에서 원쑤들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43년 2~3월에 독일 파쑈 지휘부는 붉은 군대의 공세를 저지시키고 상실한 주도권을 다시 쥐여 보려는 시도 밑에 하리꼬브 방면과 돈바쓰의 서부 지역에서 반공격을 개시하였다. 쏘베트 군대는 일시적 방어에로 넘어 가지 않으면 안 되였다. 적극적인 방어 전투들에서 쏘베트 군대는 적들에게 심대한 손실을 주었으며 3월 말에 가서는 적들의 반공격을 종국적으로 저지시켰다. 이 방면에서 전선은 안정되였다.

7월 초에 독일 지휘부는 패배를 만회할 목적으로 꾸르쓰크 지역에서 또 한 번 대공세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히틀러 도배들이 그처럼 기대를 건 이 마지막 전략적 공세도 파멸적인 실패로 끝났다. 꾸르쓰크 근방의 대전투에서 적이 격멸된 결과 쏘베트 군대는 쏘-독 전선의 남익과 중부에서 결정적인 공격에로 넘어 갔

으며 돈바쓰 좌안과 우크라이나 및 로련의 서부 주들의 지역을 해방하였으며 드네쁘르강을 도하하여 우안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 기지들을 확보하였다.

붉은 군대의 승리는 파쑈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미국과 영국 무력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영 미 정부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완전히 리용하지 않았으며 1943년에 구라파에서 제 2 전선을 형성하지 않았다. 테헤란 회의(1943년 11월 28일~12월 1일)에서는 반파쑈 련합 렬강 수뇌자들 간에 1944년에 북부 불란서에서 실시하게 될 미 영 군대의 상륙의 규모와 기일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전쟁의 제 2기는 쏘련의 후방에서 질서 정연하고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특징적인바 그것은 대공격 작전의 진행에 필요한 무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였다.

군사 예술 분야에서 붉은 군대는 이 시기에 전쟁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 전투 기재의 발전 및 그의 집중적인 적용에 기초하여 작전 방법과 전술 방법을 더욱 완성시켰다. 특히 쏘베트 군대는 방어에서 확고한 숙련을 쌓았으며 공격 작전에서 다방면적으로 큰 경험을 쌓았다.

위대한 조국 전쟁의 제 3기(제 2차 세계 대전의 제 4기)는 1943년 말부터 1945년 5월 9일까지 계속되였다. 이 시기의 특징은 붉은 군대가 파쑈 침략자들을 쏘련 땅에서 완전히 몰아냈고, 동구라파 및 동남구라파 인민들을 해방하였으며 히틀러 독일을 종국적으로 괴멸시킨 데 있다. 공산당은 전쟁을 최종적으로 승리하며 히틀러 침략자들로부터 쏘련 령토를 완전히 해방하며 적에게 강점되였던 지역들에서 인민 경제를 성과적으로 복구하며 파쑈 기반하에서 신음하던 구라파 인민들을 해방시킬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로 후방 근로자들과 붉은 륙해군 병사들의 활동을 향도하였다. 군사 정치 정세에서 쏘련에 유리하게 계속 변화가 일어났다. 쏘련 군대는 개별적 계선들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전략적인 전 전선에서의 련속적이며 동시적인 대공격 작전 형태로 진행되는 총 공격에로 넘어 갔다. 붉은 군대의 현저한 량적 및 기술적 우세, 그의 완전한 전략상 주도권, 쏘베트 공군의 제공권은 독일 파쑈 군대에 더욱더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게 하였다.

1943년 12월 말에 쏘베트 군대는 우안 우크라이나에서 공격을 재개하였다. 1944년 1월에 공세는 쏘-독 전선의 북부 방면에로 확대되였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종국적 해방, 레닌그라드 봉쇄의 완전 제거, 레닌그라드주, 크림 및 쏘련의 기타 지역들로부터의 독일 강점자들의 구축을 가져 왔다. 1944년 여름에 쏘련 군대의 공격은 더욱 광범하게 전개되였다. 쏘련 무력은 히틀러 뿔럭 국가들의 국경을 넘어서 군사 행동을 그들의 령토에로 이동해 갔다. 마침내 1945년 동기 작전에서 전쟁 전 기간을 통하여 붉은 군대의 가장 큰 공격이 진행되였다.

반파쑈 련합에 망라된 쏘련의 동맹국들은 히틀러 독일에 대한 군사 행동 형태를 변경하였다. 1944년 6월에 미 영 군대가 북부 불란서에 상륙함으로써 비록 몹시 늦기는 하였지만 마침내 서구라파에서 제 2 전선이 형성되였다. 이때부터 쏘련 무력과 미 영 무력이 협동 작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였다.

파쑈 독일의 정세는 그가 강점하고 있던 벨기와 불란서의 령토를 상실함으로써 악화되여 갔다. 물론 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독일을 격멸함에 있어서 주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한 것은 쏘련 무력이지만 제 2 전선도 독일의 패망을 촉진시켰다.

교전 쌍방의 군수 경제의 력량 대비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파쑈 독일의 경제는 1944년 7월부터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나 쏘련과 전체 반파쑈 련합의 경제력은 계속 장성하였다.

전쟁 제 3기에 쏘련 군대는 원쑤들을 쏘련 경외로 완전히 구축하였으며 또한 파쑈 기반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구라파 인민들의 투쟁에 방조를 주었다. 바로 이 시기에 히틀러

뿔럭의 종국적인 붕괴 과정이 일어났으며 파쑈 독일의 동맹자였던 일련의 나라들은 독일을 반대하여 총뿌리를 돌리였다. 이 모든 것은 국제 정세와 쏘련의 대외 정치 정세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 왔다. 파쑈 노예로부터 제 인민을 해방한 해방자로서의 쏘련의 위신이 더욱더 제고되였다.

구라파에서의 전쟁의 제 3기는 파쑈 독일에 대한 쏘련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이것은 제 2차 세계 대전 전반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았는바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무력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2차 세계 대전의 전 기간에 걸쳐 일본은 파쑈 독일의 동맹자이며 공모자로서 파쑈 독일과 함께 태평양 지역과 동남 아세아에서 반파쑈 련합의 렬강을 반대하여 싸웠다. 비록 일련의 원인으로 하여 일본은 독일과 함께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에 나서지는 못하였으나 그는 항상 독일 제국주의자들에게 온갖 지지를 주었다.

쏘련을 적대시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은 파쑈 독일에 대한 그의 현실적인 원조였는바 왜냐하면 이는 쏘-독 전선에서 40개 사단을 떼여내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원쑤의 침략에 용감히 항거하여 나선 위대한 중국 인민을 반대하여 장기간의 류혈적인 전쟁을 진행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 기간의 일본의 모든 정책은 히틀러 독일이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호전적 제국주의의 강도적 정책이였다. 히틀러 독일이 항복한 후에도 일본은 반파쑈 련합 국가들과 중국을 반대하여 전쟁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의무에 충실한 쏘련은 전체 쏘련 사람들과 아세아의 피압박 인민들의 근본적인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1945년 8월 8일 제국주의 일본에 대하여 선전을 포고하였다. 쏘련 인민은 대일 전쟁에 들어 섬으로써 자기의 해방자적 사명을 계속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리익과 전체 진보적 인류의 리익을 위하여 정의의 전쟁을 계속하였다. 쏘련 인민은 중국 인민, 그의 인민 해방군 및 몽고 인민 혁명군과 함께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의 중국의 해방을 위하여, 제 2차 세계 대전의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무력 투쟁을 전개하였다.

쏘련의 대일 전쟁은 위대한 조국 전쟁의 직접적인 계속이였으며 그의 중요 구성 부분이였으며 그의 특별한 한 시기였다. 그와 동시에 이는 제 2차 세계 대전의 최종기인 제 5기(1945년 5월 9일~9월 2일)의 중요 사변이였다. 이 시기에 쏘련 무력의 행동은 3개월의 평화적 휴식 후 전혀 새로운 조건하에서, 급격히 변한 정치적 및 전략적 정세하에 새로운 지역에서 진행되였다. 쏘련 군대는 중국의 동북, 북조선, 남화태, 천도 렬도에서 일본 군대에 대한 공격으로 넘어 가 일본 관동군과 그 괴뢰군을 섬멸하였다.

원동에서의 쏘련군 부대들의 군사 행동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 영 군대의 행동과 함께 당시 동방에서의 주되는 침략자였던 제국주의 일본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였다. 일본의 항복은 위대한 조국 전쟁과 제 2차 세계 대전의 종결을 의미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쏘련은 일본에 탈취 당하였던 령토를 도로 찾고 원동 국경을 강화할 수 있게 되였으며 또한 아세아의 식민지 인민들의 성과적인 민족 해방 운동을 위한, 위대한 중국 인민의 해방을 위한 유리한 전제 조건들이 조성되였다.

6권으로 된 《1941~1945년 쏘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사》는 이상에 서술된 시기 구분에 따라 구성되여 있다.

제 1권에는 제 2차 세계 대전의 발생, 제국주의 렬강에 의한 쏘련 침공의 준비, 쏘베트 국가의 국방 강화를 위한 공산당과 쏘련 정부와 전체 쏘련 인민의 사업이 서술되여 있다. 년대적으로 보면 제 1권은 30년대 초 즉 재 세계 대전의 두、발원지가 형성되던 시기부터 1941년 6월 즉 독일이 쏘련을 침공하기까지의 사건들을 포괄하고 있다.

제 2권은 위대한 조국 전쟁의 제 1기(1941년 6월 22일~1942년 11월)의 사건들을 포괄하고 있다. 제 2권에는 쏘련에 대한 파쑈 독일의 배신적 침공, 침략에 대한 반격에로의 공산당에 의한 인민 력량의 동원, 붉은 군대의 불가피한 후퇴 및 그의 영웅적인 항전, 쏘련 무력의 첫 반공격, 쏘련을 반대하는 파쑈 독일의 《전격전》의 파탄 및 전쟁에서의 전환을 위한 조건의 조성이 반영되여 있다.

제 3권은 위대한 조국 전쟁의 제 2기(1942년 11월 19일~1943년 12월)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쑤 격멸을 조직하기 위한 공산당과 쏘련 정부의 투쟁, 쓰딸린그라드 전투, 꾸르쓰크 전투 및 1943년에 진행된 기타의 많은 전투들에서 쏘련 무력이 달성한 승리에 의하여 전쟁 행정에서 초래된 근본적인 전환이 반영되여 있다.

제 4권은 1944년에 해당하는 전쟁 제 3기의 사건들과 또한 쏘련 강토로부터의 독일 침략자들의 완전 구축, 동구라파 및 동남 구라파 인민들의 해방과 관련된 사건들을 포괄하고 있다.

제 5권은 위대한 조국 전쟁 제 3기 말(1945년)에 쏘련 무력이 달성한 대승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 승리는 파씨즘으로부터의 구라파 인민들의 해방, 히틀러 독일의 종국적인 괴멸을 가져 왔다. 제 5권에는 또한 제국주의 일본의 패배와 관련된 사건들도 포함되여 있다.

제 6권은 쏘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과 제 2차 세계 대전의 전 세계사적 총화 및 결과를 서술하고 쏘베트 국가의 승리의 원천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전후 시기에 있어서의 쏘련의 평화 옹호 투쟁을 서술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전쟁의 중요 사건들과 그의 결과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주며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전쟁의 발생 원인, 전쟁 행정 및 그 결말을 분석하는 것이 《1941~1945년 쏘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사》의 중요 과업이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이 로작은 독자들에게 전쟁사의 중요 측면들을 보여 주며 1941~1945년 간의 주요 전투들과 쏘련의 경제적 및 사회 정치적 발전 과정을 밝혀 주며 또한 이 시기의 쏘련 대외 정책 문제들을 해명하고 있다. 이 저서는 파쑈 독일 및 기타 제국주의 렬강의 쏘련 침략 준비를 개괄 및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전선과 후방에서의 쏘련 인민의 열렬한 애국주의와 영웅적 투쟁, 붉은 군대와 붉은 해군의 중요 작전들, 전쟁 행정에서 장성된 쏘련 무력의 위력 및 쏘베트 군사 예술의 우월성을 보여 주고 있다.

《1941~1945년 쏘련의 위대한 조국 전쟁사》는 강대하고 잔인하고 음흉한 원쑤를 반대하여 전체 쏘련 인민이 전선과 후방에서 전개한 영웅적 투쟁의 무비의 화폭을 재현하고 있다. 6권으로 된 이 저서는 쏘련 인민의 거대한 위훈을 보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쏘련 무력 및 빨찌산의 군사 행동과 함께 후방의 활동에도 많은 자리가 돌려지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파쑈 침략자들과 그의 동맹자들을 반대하는 전체 평화 애호 인민들의 위대한 결전으로 전화된 사실을 고려하여 저서에서는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 당하였던 구라파 및 아세아의 여러 나라 인민 대중이 파쑈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진행한 용감한 자기 희생적 투쟁에 대하여도 서술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반파쑈 운동이 전개되였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자국의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세계 문명과 문화를 옹호하였으며 파쑈 야만의 야수적 행위와 몽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으로 진출하였다. 이 당들의 자기 희생적 활동은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반파쑈 련합이 달성한 대승리의 중요 전제 조건의 하나였다.

많은 나라 인민들은 전쟁 시기에 자유와 민족적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승리를 쟁취하는 데 많은 희생을 냈다. 독일 파씨즘을 격멸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쏘련 인민이였다. 사회주의는 쏘련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을 주었는바 그것은 전쟁 행정에서 독일과 그의 동맹국들의 세력을 릉가하였다. 사회주의 사회 제도와 국가 제도의 승리, 쏘련 무력의 승리는 완전히 합법칙적이였다. 이 승리는 파쑈 반동에 대한 사회적 진보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온갖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피를 흘렸고 자기의 생명을 바친 쏘련 인민의 수백만의 슬기로운 아들딸들을 가슴 깊이 다시 한 번 추억하게 된다. 사회주의 조국의 수호자들의 무비의 용감성과 자기 희생성, 공산당의 주위에 뭉친 단결력으로서 인류의 원쑤인 파씨스트들에 대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였는바 이 승리는 항구한 평화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투쟁의 어려운 위업을 대단히 용이하게 하였다.

쏘련 인민과 그의 무력은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을 고수하고 파쑈 무리들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달성한 것으로 뿐만 아니라 독일 인민도 포함한 구라파의 피정복 인민들에게 형제적인 원조의 손길을 뻗친 것으로서도 위대한 공훈을 세웠다. 베를린 트레프로브 공원에 건립된 해방 전사 기념비는 쏘련 인민의 이 승리와 위훈의 장엄한 상징이다. 이 웅장하고 훌륭한 쏘베트 조각 작품(예. 부체찌츠 작)에는 자기의 검으로 파씨즘의 표징인 갈구리 십자를 까버리고 인류의 미래를 구원한 새형의 군대인 붉은 군대의 영웅적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 기념비에 대한 한 쏘베트 시인의 다음과 같은 훌륭한 시가 있다.

이 경사스러운 날 베를린에는
길이길이 칭송 받을 쏘련 병사,
구원한 처녀애 품에 안은
기념비 섰네.

우리 영광의 상징인
위대한 내 조국의 이 병사,
어둠 속을 비쳐 주는 등대마냥
거연히 서서
온 세계의 평화 지키네

전 세계사에 찬연한 금자탑을 쌓아 올린 쏘련 인민의 승리는 영원히 빛날 것이다.

Ⅳ

위대한 조국 전쟁의 교훈들은 아주 중요한 전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다. 이 교훈들은 사회주의와 진보적 력량의 불패성을 여실히 확증하였으며 세계 제패를 야망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계획이 황당무계한 망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사회주의의 악독한 원쑤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제국주의 국제 반동은 두 차례에 걸쳐서 즉 무력 간섭 및 국민 전쟁 시기와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를 통하여 무력으로써 쏘베트 국가를 정복하려 하였으며 해방된 쏘련 인민에게 또다시 자본주의 노예의 멍에를 씌우려고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영웅적 쏘련 인민은 두 차례에 걸쳐 어려운 전쟁의 시련을 이겨내였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계승하였다.

반파쑈 련합국들의 공동 투쟁의 력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쏘련은 전쟁 시기에 벌써 전후 국제 발전의 주요한 과업으로서 반파쑈 련합 국들의 협조를 계속하며 그를 일층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쏘련의 발기에 의하여 해당한 공동 결정들이 채택되였고 엄숙한 의무들이 지워졌다. 그러나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숙한 협정들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바쁘게 이 결정들은 파탄되고 말았다.

국제적 협조를 파탄시킴에 있어서 주되는 역할을 논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팽창 정책이다. 이 팽창 정책에는 미국 독점체들의 본성인 세계 제패의 야망이 표현되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종말된 직후 당시의 미국 대통령 트루맨은 국회에 제출한, 1945년 12월 19일부 교서 《무력의 재편성》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승리는 미국 인민들에게 세계를 지도할 항시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여야 한다. 전 세계에 있어

서의 앞으로의 평화는 미국이 모든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고수할 결심에 충만되여 있는가에 달려 있다»(«Congressional Record», Vol. 91, Pt. 9, PP. 12398~12399).

1946년 3월 처칠은 미국 풀톤에서 대통령 트루맨의 참가하에 침략적인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에서 그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십자군 원정에로 앙글로색쏜 인민들을 호소하면서 이른바 «랭전»의 시초를 열어 놓았다. 풀톤에서의 처칠의 연설에 대하여는 1950년 3월에 심지어 레이버당 우익 지도자이며 당시의 영국 외상이던 비벤과 같은 악랄한 반공산주의자도 그것을 쏘련에 대한 «예방전»의 고리라고 불렀던 것이다.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자기들이 한 선언을 저버리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협조를 거절하였고 쏘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여 나토, 쎈토 및 기타 침략적 군사 블럭들을 조작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의 교훈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또 알 수도 없었다. 사회주의에 대한 계급적 증오로 하여 눈이 벌개진 이들은 비록 사회주의를 소멸하지는 못할망정 하다 못해 사회주의 국가 근로자들의 창조적 사업이라도 파탄시키려는 로선을 택하였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부르죠아지의 한 잡지는 워싱톤의 이 로선을 특징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제 2차 세계 대전 시기부터 미국 대외 정책의 목적은 세계를 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로 엄격히 갈라 놓으며 반공산주의 진영을 무장에로 동원하며 종국에 가서는 공산주의자들을 소멸하거나 그들을 아무런 가망도 없는 제 2차적 지위에로 밀어내는 것이다» («Monthly Review», March 1956, P. 433). 미 제국주의자들은, 영웅적 투쟁으로 세계 문명을 독일 파쑈즘의 파괴에서 구원한 그리고 많은 나라에 자유를 안겨 준 쏘련을 반대하는 «랭전»의 선포가 인민들의 단호한 반항에 부닥치리라는 것을 짐작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증스러운 중상을 일삼기 시작하였다. 제국주의 선전은 쏘련이 마치도 자본주의 국가들을 불의에 공격하려 한다는 듯이 떠벌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로씨야는 전쟁을 원하고 있다»는 이 추악하고 우둔한 중상은 쏘련 인민들이 히틀러 도배들에 의한 전쟁의 상처와 략탈 및 파괴의 막대한 후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긴장된 로력을 기울이고 있던 전후 시기에 나타났다.

그 후 제국주의 선전은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계속 악랄한 중상을 일삼아 왔다. 미국의 정부 출판물들이 쏘련을 중상함에 얼마나 황당한 허위를 날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미국 총 참모부의 력사부가 발간한 제 2차 세계 대전사의 한 구절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 전과 이후의 쏘련의 정책을 특징 지으면서 역선전적 훼방문의 작성자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자유 세계 정탐 기관들이 수집한 문건상의 자료들은 쏘베트 로씨야가 세계 제패를 계획하였으며 지금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여지 없이 증명하여 주고 있다. 모쓰크바에서 작성되여 출판된 군사 지도와 략도들은 인류 력사에서 가장 큰 음모를 드러내놓고 있다. 공식적인 공산주의 선언들은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공산주의의 모든 지도서나 출판물들은 인민들을 민주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전쟁에로 추동하기에 날뛰고 있다» (War in Korea and the Complete History of World War Ⅱ, Ed. by Francis Trevelyan Miller, Armed Services Memorial Edition, 1955, PP. K-1~K-2).

«대사기'군»인 게벨스의 수'법에 의하여 작성된 이러한 도발적인 허위 론거들은 세계 사회 여론을 기만하려는 것이였다. 펜타곤의 력사 위조자들은 그들이 마치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듯이 떠들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발표할 수는 없다고 하는 비방자들의 옛 수'법을 답습하고 있다. 실제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산주의 지도서나 출판물»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느 한 쏘련 사람도 결코 전쟁 선동자로 나서지 않았으며 나설 수도 없는 것이다! 쏘련을 방문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수만명 공민들—그 중에는

수천명의 미국인도 포함하여—이 이것을 똑똑히 인식할 수 있었다. 침략 지도나 략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들은 바로 미국 군벌들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미국 출판물에 자주 발표되고 있다. 미국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잡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뉴스 엔드 월드 리포트»는 교만하고 파렴치하게도 쏘련의 경내에 깊이 들어 간 미국측으로부터의 있을 수 있는 침략의 화살을 한두 번만 묘사하지 않았다. 이 잡지와 그리고 잡지 «콜리에르스» 및 기타 이와 류사한 출판물들은 출렬하게도 자기의 지상을 통하여 쏘련을 한두 번만 «소멸»하고 있지 않다. 례컨대 잡지 «콜리에르스»는 미국 비행기가 원자탄으로 모쓰크바를 폭격하는 환상 «오체르크»를 1951년에 자기의 지면에 실었던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과는 반대로 쏘련은 변함 없이 평화와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계속 투쟁하고 있다. 쏘련의 평화적 발기들은 국제 생활의 주요한 동인으로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발기들은 엔. 에쓰. 흐루쑈브의 력사적인 외국 방문들에서 더욱 명백히 나타났다. 특히 1959년 가을 흐루쑈브가 평화와 친선의 사절로서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가장 뚜렷이 나타났다.

미국이 전혀 그릇된 추측과 타산에서 출발하여 세운 쏘련에 대한 정책, 덜레스의 «힘의 립장에 선» 정책과 «전쟁 접경» 정책은 파탄되고 말았다. 이 정책의 작성자들은 쏘베트 사회주의 제도의 위력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랭전»을 선포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발전을 저지시켜 보려고 타산하였으나 결국은 완전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쏘련은 자기의 경제, 기술 및 과학 발전과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 향상에서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였는바 이 고지는 두 체계의 경쟁과 쏘련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불패의 통일을 파괴할 수도 없었으며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위력의 부단한 장성을 저지시킬 수도 없었다.

미국 력사학자 윌리암스는 워싱톤 정책의 패배를 확인하면서 자기의 저서 «미국 외교의 비극»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래의 력사가들은 랭전의 〈총 외교〉가 부메랑(고대에 사용되였던, 던지는 무기의 일종으로서 던진 자에게 되돌아 간다)의 작용을 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왜냐 하면 미국은 그들의 정강과 정책의 종국적인 결과로써 나타나리라고 굳게 확신하였던 세계와는 전혀 반대되는 현실이 10년 남짓한 기간에 나타났음을 보게 되였기 때문이다» (William A. Williams, The Tragedy of American Diplomacy, Cleveland and New YorK, 1959, P. 169).

쏘련과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 및 기타 평화애호 국가 인민들의 노력에 의하여 50년대 말에 이르러 대렬강들 간의 긴장성은 얼마간 완화되였으며 당면한 국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담의 길이 열려졌다. 그러나 평화의 원쑤들은 정세가 완화됨에 따라 더욱더 미쳐 날뛰였다. 엔. 에쓰. 흐루쑈브는 미국에서 돌아 온 후 이런 자들의 음모에 대하여 여러 번 경고하였다.

군비 경쟁으로 치부하며 미국 인민도 포함한 모든 인민의 의사를 거역하여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와 국가들 간의 관계 개선을 방해하려고 날뛰는 바로 이런 침략적 제국주의 계층이 1960년 봄에 미국 정책에서 우세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자들은 쏘련, 미국, 영국 및 불란서 정부 수뇌자들의 회의 파괴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미국 정부는 이 회의에 제기할 아무런 평화 제안도 준비하지 않았으며 수뇌자 회의에 대해서 심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고위급 회의가 파탄된 직후 워싱톤의 련합 참모부 참모장인 투와이닝 장군은 뻔뻔스럽게도 다음과 같이 떠벌렸다: «우리는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일은 결코 없었다»(1960년 5월 20일부 «쁘라우다» 참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군벌들은 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고위급 회의 전야인 1960년 5월 1일에 간첩 목적을 가진 군용 정찰기를 쏘련 령공에 침입시킴으로써 쏘련을 반대하는 직접적인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 도발 행위는 비단 고위급 회의를 파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조직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쏘련에 압력을 가하며 국제 정세를 흐리게 하고 세계를 «랭전»의 얼음으로 다시금 뒤덮으려는 목적도 추구했다.

이 사실은 대통령 아이젠하워와 국무장관 허터의 연설이 있은 후에 더욱더 명백하게 드러났다.

1960년 5월 5일 쏘련 최고 쏘베트 회의에서 한 엔. 에쓰. 흐루쑈브의 보고 및 쏘련 정부의 기타 조치들은 미국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조성된 정세하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위신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던 것이다. 그들이 만일 4렬강 수뇌자 회의의 성과적 진행과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를 념원하였더라면 쏘련 경내로 정찰기를 침입시킨 도발 행위를 규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국제법의 기본적 원칙마저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군용기의 파견과 쏘련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실시할 《국가 정책》이라고 성명하였다. 간첩 행위와 침략 행위 그리고 타국의 자주권에 대한 일찌기 류례 없는 침해는 미국 대외 정책의 로선으로 공인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고위급 회의는 평화 위업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었다. 고위급 회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행동으로 인하여 파탄되고 말았다. 따라서 쏘련 정부는 인민들을 기만하는 공모자로 되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시기까지 고위급 회의를 연기할 필요성을 성명하였던 것이다. 쏘련 정부 수석 엔. 에쓰. 흐루쑈브가 파리에서 취한 단호하고 확고한 립장은 미국 통치 계층의 로골적인 침략적 대외 정책에 대한,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정당하고 마땅한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대답이였다.

미 군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국가적》인 것이라고 부름으로써 그것을 마치도 전 민족의 정책으로 내세우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면서도 미 군국주의자들은 미국 인민이 다른 나라 인민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인민들의 근본적 리해관계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군수 산업 회사의 정책을 배척한다고 해서 나무라고 있다. 미국 자본가들 중에는 군수품 주문에서 어느 정도 치부하고 있으나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평화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매우 유력한 개별적 자본가들과 계층들도 있다. 이 계층들은 펜타곤의 행동을 로골적으로 규탄하여 나섰다.

전쟁 히스테리를 조장시키며 워싱톤의 독재에 무조건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미국의 침략 정책은 민족적 독립을 고수하려는 그리고 세계의 항구한 평화를 념원하는 자본주의 국가 인민들의 완강한 반항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계속 야기시키리라는 것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의 국가 활동가들은 벌써 몇 년전에 미 제국주의 침략 계층이 지껄이던 쏘련에 대한 비방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그들이 쏘련 인민에게 준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자주권에 대한 위협은 더욱 엄중해졌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쏘련이 《대규모의 불의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건전한 사고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쏘련이 불의 공격을 준비한다고 하는 이 미친 수작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미 제국주의자들은 히틀러 도배들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한때 히틀러 도배들은, 쏘련이 《침략을 선동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끼리 지껄이면서도 자기들의 강도적 침공을 《예방전》으로 묘사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자기의 교활한 기도를 은폐하며 쏘련을 중상하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쏘련의 평화 애호 정책을 말살할 수는 없다. 인민들과 근로 대중은 정부들의 정책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행동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제반 사건들과 사실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을 적라라하게 폭로하고 있으며 쏘련의 숭고한 평화 애호적 역할이 가지는 권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쏘련의 수도에서는 공산주의 로동 브리가다와 공산주의 돌격대의 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경쟁 선구자들의 전 련맹 회의와, 창조적 활동 문제들을 토의하는 기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수도들에서는 전쟁 계획을 토의하는 침략 뿔럭들의 회의가 련이어 진행되고 있다. 쏘련에서는 평화적 건설을 강화하며 기업소, 꼴호즈, 학교, 과학 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할 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나오고 있는데 서방에서는 군국주의자들과 복수주의자들이 웨치는 군비 경쟁에 대한 단말마적인 호소가 울려 나오고 있다.

로동자와 사무원들로부터 받는 세금의 페지와 단축된 로동일에로의 이행을 1960년대에 완성할 데 관한 결정은 쏘베트 국가의 평화적 지향을 실증하여 준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 지배층들이 국제 정세를 격화시켜야 할 필요는 어디에 있는가?고. 그 원인은 이 계층들이 《평화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은 평화 력량이 승리하는 경우에 군비 경쟁에서 얻는 거액의 리윤을 상실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평화적 경쟁의 조건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승리하게 될 것과 세계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과 그의 성과가 드디여 세계 자본주의 체계를 파멸에로 이끌어 가게 되리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때문에 미 제국주의 반동 세력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1960년 5월 고위급 회의가 파탄되였을 때 평화의 원쑤들이 그처럼 기쁨을 감추지 못한 것은 우연하지 않다.

《더는 평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표제하에 1960년 5월 19일에 발표한 론설에서 미국 부르죠아 신문 《뉴욕 포스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전체 국민 경제의 견지에서 볼 때 파리 회의의 파탄은 공업…에 타격을 줄 군사비의 축소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위안>을 준다. 지금 시장의 견지에서 보면 <흡족한> 결과의 하나는 군수 산업과 밀접히 련결된 회사들이 그 어떤 사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는 데 있다》 (《쁘라우다》, 1960년 5월 21일부 참조).

례컨대 영국 국회 상원에서 한 단디 경의 연설은 평화의 원쑤들이 인류의 앞에서 어떠한 씻을 수 없는 엄중한 범죄 행위도 감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0주년 기념일인 1957년 11월 7일에. 호전적인 단디 경은 반공산주의의 발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폭언하였다. 즉 그 자신과 영국 및 미국에 있는 그의 동료들은 《핵 전쟁으로 인하여 반 남아 소각된 세계에서 살아 남은 자유로운 사람들의 일부가 어차피 모든 것을 새로이 건설하게 될 새 세계의 전망을, 우리들 모두가 공산주의의 압박하에서 노예처럼 살게 될 색다른 자유 세계보다 더 훌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The Parliamentary Debates, House of Lords, Fifth Series, vol. CCVI, London,' 1958, PP. 172～173)는 것이다. 단디와 같은 자들이 공산주의의 면전에서 느끼고 있는 공포—이것은 사회의 점진적 발전에 대한 공포이며 력사의 론박할 수 없는 법칙 앞에서의 공포이다. 단디 경—이는' 핵 전쟁에 대하여 그리고 자본주의의 영구화를 위하여 지구상 인구의 절반을 소멸할 것을 망상하는 미치광이다. 그는 한때 식인종의 노래를 자기의 사상적 무기로 삼았던 히틀러 도배들과 한 피'줄을 이은 자이다. 노래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세계가 페허로 되겠으면 되라,
우리는 상관할 바 없네!

제 2차 대전 시기에 인민들은 파쑈의 야수성과 인간 증오 사상에 대한 인도주의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제국주의의 침략 세력들은 또다시 인민들의 운명을 희롱하면서 뒤흔들리기 시작한 자기들의 처지를 만회해 보려고 타산하고 있다. 미국의 반동적인 지배 계급은 자기의 도발적인 침략 행위로 하여 인류를 반대하는 악독한 범죄를 감행하고 있는 평화의 원쑤로서 전 세계 사회 여론의 규탄을 받고 있다.

초보적인 인간적 량심마저 저버리고 있는 이 자들은 성실하고 공개적인 평화 애호 정책을 실시하는 쏘련을 비방하려 날뛰고 있다. 쏘베트 사회의 향도적 및 지도적 력량인 쏘련 공산당은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의 지혜, 영예, 량심》(웨. 이. 레닌)이다. 자기의 운명을 영원히 공산주의와 련결시키고 있는 수천만의 근로자들이 우리 시대의 이 영예와 량심과 당의 현명하고 정확한 정책을 고수하기 위하여 굳건히 서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의 령도하에서 공산주의의 휘황한 건물을 건설하고 있는 쏘련 사람들은 쏘련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모욕적인 행동을 용허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국 정부는 쏘련에 압력을 가하며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려고 타산하면서 비밀리에 평화

를 반대하는 음모를 꾸며냈다. 미국 정부는 평화 력량을 약화시키며 국제 무대에서의 쏘련의 위신을 저락시키려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쏘련 정부와 그의 수석 엔. 에쓰. 흐루쑈브는 그들의 책동을 파탄시켰다. 엔. 에쓰. 흐루쑈브는 미국 정부의 제국주의적 정책을 폭로하였으며 이 정책의 완전한 파산상을 보여 주었다. 결과에 평화 력량은 강화되였으며 철저한 평화 투사인 쏘련의 위신은 전 세계 인민들의 면전에서 한층 더 높아졌다.

1960년 5월 파리에서 쏘련 정부 대표단이 취한 단호하고 견결한 립장은 전체 쏘련 인민의 지지를 받았다. 전국에서 진행된 수 많은 군중 집회들과 회의들에서 쏘련 사람들은 4렬강 수뇌자 회의를 파탄시킨 미제 침략 계층의 침략 행위를 저주로운 것이라고 락인하였으며 그리고 쏘련 정부 수석 엔. 에쓰. 흐루쑈브가 취한 립장을 열렬히 지지하였다. 고위급 회의를 파탄시킨 모든 책임과 온갖 저주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바로 쏘련에 대한 배신적인 침략 정책을 선포한 자들에게 있다.

서부 독일 군국주의자 및 복수주의자들과 미국과의 동맹은 미국 대독점체들의 침략적 목적에 복무하고 있다. 서부 독일 군국주의자 및 복수주의자들의 정책은 과거에 두 번씩이나 독일을 민족적 파멸의 구렁텅이에 끌어 넣은, 독일 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한 정책의 직접적인 연장이다.

두 세계 대전의 력사적 경험은, 군국주의 계층들이 독일을 또다시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말하여 준다.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리해하고 있다. 유명한 미국 법률가인 티. 테일러 장군은 독일 군국주의자들의 범죄를 분석하면서 뉴른베르그 공판에서 한 자기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만일 독일 군국주의가 다시 출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나치즘의 비호하에 출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독일 군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운명을 독일 군사력의 복구를 기대하는 그 어떤 인물이나 당의 운명과 련결시키게 될 것이다. 이들은 모든 것을 사전에 랭정하게 타산하고 있다. 그들은 어떠한 광신적인 사상이나 혐오한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침략을 갈망하고 있는 이들은 독일의 력량과 그에 의한 테로를 보급하기 위하여 온갖 범죄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뉴른베르그 공판》, 자료집 제 2권, 모쓰크바, 국립 법률 출판사, 1955년, 885페지).

지난 년간의 행정은 이 경고가 아주 정확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전 독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동부 지역에서는 민주주의적이며 평화 애호적인 력량이 력사의 교훈들로부터 필요한 결론들을 내리였다. 여기에서는 인민들의 의사에 의하여 독일 력사에서 첫 로농 국가이며 평화 애호적인 사회주의적 국가이며 사회주의적 민족들의 위대한 대가정의 동등한 성원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이 독일 국가는 복수주의 및 군국주의와 결정적으로 결렬하였으며 그와의 비타협적이며 원칙적인 공개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책—이는 쏘련 및 기타 국가들과의 평화 및 친선의 정책이다.

구라파에서 미국의 주요 침략 기지로 전변된 서부 독일에서는 전혀 다른 정책, 랭정하게 복수주의 전쟁을 준비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서부 독일에는 다시금 파씨즘의 추악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파쑈 국가의 후원과 그리고 구라파와 대양 건너편에 있는 그의 비호자들의 후원을 받아 1939~1945년 전쟁을 준비하고 도발한 바로 그 독점 계층들이 독일 련방 공화국에서 주권을 잡고 있으며, 독일 자본주의의 충직한 주구인 서부 독일 정부의 배후에 서 있다. 이 독점 계층들은 이전 파쑈 관리들과 장군들의 도움을 받아 자기의 군국주의 정책을 로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부 독일에서는 공산당이 금지 당하였으며, 민주 력량은 탄압을 받고 있으며, 평화의 지지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다. 새로운 《동방 원정》,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침공, 독일 동부 국경의 재심의,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을 반대하는 전쟁을 호소하는 호전적인 연설들이 울려 나오고 있다. 서부 독일의 재군국화가 실시되였으며, 그의 군대는 원자 및 로케트 무기로 장비되고 있으며, 구라파의 다른 나라들에는 군사 기지가 설치되고 있는바 독일 군국주의자들은 제 2차 세계 대전의 경험에 기초하여 이 군사 기지들을 침략의 교두보로 리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현 독일 제국주의는 제 2차 세계 대전을 야기시켰던 바와 같은 바로 그러한 길로 사태를 이끌어 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 발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영국, 불란서 및 미국의 자본주의 독점체들과 반동적 통치 계층이 파쑈 침략자들을 묵과해 주었고 자기 나라의 민족적 리익과 전반적 평화의 위업을 배반한 데 있었다. 현재 서부 독일의 침략 정책도 바로 그 제국주의 세력의 지지를 또다시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재생하는 독일 군국주의의 특별한 위험성은 바로 서부 독일 복수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발광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 세계 대전도 도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세계 인민들은 독일 파씨스트들이 파란을 무력 침공하기 위한 구실로 삼았던 히틀러 도당의 흉악한 날조 행위—독일 국경 도시에 대한 《파란 병사들》의 공격이 있었다고 하는 날조 행위—를 잊지 말아야 한다.

1940년 5월에 히틀러 도당은 화란과 벨기 항공대가 공격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으며 그리하여 이 중립국들에 대한 침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독일 도시 후라이부르그에 대한 파렴치한 폭격을 감행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제 1권 220~221페지와 잡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1959년 제 9호를 참조할 것)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다. 자기들의 평화적 동포들에게 파렴치하게 폭탄을 퍼부은 중폭격기 중대를 지휘한 것은 요제프 캄푸베르이다. 지금 이 전범자는 독일 련방 공화국에서 아주 중요한 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독일 련방 공화국의 전체 공군을 지휘하고 있다. 독일 제국주의자들은 당시의 조건에서 자기들의 도시를 고의적으로 폭격하였던 것이니 지금 그들의 수중에 원자 무기가 쥐여진 조건하에서 독일 제국주의자들이 제 3차 세계 대전 도발을 기도하면서 그 어떤 보다 더 교활한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자기들의 복수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부 독일을 원자 전쟁 마당으로 전변시키며 수천만의 독일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하려 하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의 년간에 평화 애호 인민들에게 유리하게끔 지구상에서는 거대한 력사적 전변들이 일어났다. 공산주의 건설과 국방력 강화에서의 쏘련의 거대한 성과,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형성과 강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계급의 지반의 강화, 식민지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는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의 강력한 앙양—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였으며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켰다. 오늘 평화 진영의 력량은 비할 바 없이 장성하였으며, 력량 대비에서의 우세가 평화 애호 국가들에로 더욱더 이행하고 있다.

국제 정세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들은 평화 옹호 투쟁에서 미증유의 전망을 열어 놓았다. 새로운 력사적 사실들을 심오히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일반화하며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는 현 시기 전쟁 방지의 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리론적 명제를 제기하였으며 그 후 제 21차 대회는 지구상에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기 전에도, 세계의 한 부분에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도 세계 전쟁을 사회 생활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리론적 명제를 제기하였다.

쏘련은 이미 위대한 조국 전쟁 이전부터 레닌적인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제 2차 세계 대전 전야의 국제 관계들을 분석해 본다면 전쟁이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의해 준비되고 도발되였다는 것, 그런 조건하에서도 쏘련은 전쟁을 방지하며 침략자들을 집단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쏘련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준비한 전쟁의 위험을 반대하며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에서 단독으로 싸웠다.

오늘에 와서는 거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강력한 쏘련, 10억 이상의 인구를 망라하고 있는 위대한 사회주의 진영,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 세계 각국에서의 광범하고 조직적인 평화 투사들의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평화 옹호 력량이 침략 세력 즉 군비 경쟁을 반대해 나서고 있는바 이 력량은 새 세계 전쟁 도발을 갈망하는 세력보다 훨씬 우세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평화, 군비 철폐, 각이한 정치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의 정책이 오늘날 특히 확고하며 시종일관하다. 현 조건하에서 새 세계 전쟁을 방지할 가능성에 대한 쏘련 공산당 제 20차 및 제 21차 대회의 결정들은

유일하게 정당하며 확고하다. 쏘련 공산당 제 20차 및 제 21차 대회의 문헌들에 표시된 견해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공감을 받고 있으며 또한 1957년 11월에 모쓰크바에서 있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선언과 64개 당 대표들이 서명한 평화 선언과 같은 중요한 문헌들에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지지를 받았다. 모쓰크바 회의 선언은,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침략 전쟁의 지반은 계속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현재 평화 력량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가능성으로까지 장성하였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선언은 《현 시기의 조건하에서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의 결정들에 의하여 가일층 발전된 두 제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레닌적 원칙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외 정책의 확고부동한 기초이며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의 믿음직한 기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평화적 공존의 방침이나 군비 철페를 위한 투쟁을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에서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으로부터 물러 서는 것으로 평가하는 일부 정치 활동가들의 경향과 그리고 현 조건하에서 새 세계 전쟁 방지의 가능성에 대한 쏘련 공산당 제 20차 및 제 21차 대회 결정들의 정당성에 불신임을 품게 하려는 지향은 잘못된 것이며 교조주의적이고 좌익-쎅트주의적인 것으로밖에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경향은 로동 계급의 창조적 가능성,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과 위력에 대한 불신임 그리고 자본주의에 비한 거대한 우월성을 더욱더 확신성 있게 보여 주고 있는 사회주의의 위대한 견인력에 대한 과소 평가에 의해 산생된 것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은 청소하고 건전한 사회주의적 사회 제도가 자기 세대를 다 산, 쇠퇴하는 자본주의적 사회 제도와 평화적으로 경쟁하는 행정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당과 쏘련 정부는 새 세계 전쟁의 방지, 평화, 군비 철페, 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 간의 공존을 위하여 앞으로도 시종일관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쏘련은 평화적 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평화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제국주의 반동의 도발적 음모를 경각성 있게 주시하고 있다. 쏘련 인민이 항상 견지하고 있는 고도의 혁명적 경각성의 의의는 현 조건하에서 특히 증대되였다. 엔. 에쓰. 흐루쑈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평화—이것은 사람들의 평온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평화가 실지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원쑤들이 만약 우리 나라나 혹은 사회주의 진영의 임의의 나라를 침공한다면 그 침략자에게 반격을 가하며 대응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평화의 전사들, 정당한 위업의 병사들이 항상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엔. 에쓰. 흐루쑈브, 로동자 사무원들의 세금 철페와 쏘련 인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기타 조치들에 대하여. 모쓰크바, 정치 서적 출판사, 1960년, 87～88페지).

이것은 모든 력사적 경험이 가르치고 있으며 위대한 조국 전쟁의 경험과 파씨즘에 대한 쏘련의 전 세계사적 승리의 경험이 가르치고 있다.

(쏘련 《꼼무니쓰트》 1960년 제 9호)

근로자 제 9호 (루계 178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 • 근 로 자 사　　인 쇄 소 •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 • 1960년 9월 15일　　인　　쇄 • 1960년　9월　10일

ㄱ—31499　　값 50전

서 적 안 내

조선 로동당의 혁명 전통

인민 무력의 조직과 강화 발전

4×6판, 예정 페지 50페지, 예정 값 10전,
발행 부수 100,000부, 발행 예정 9월

이 책은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확립된 인민 무력 건설에 관한 기본 원칙들 즉 인민 무력 조직에서의 계급적 원칙, 대원들에 대한 군사적 교육과 정치적 교양의 통일, 지휘관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 복종과 엄격한 군사 규률, 장비와 조직 형태 및 투쟁 방법의 부단한 개선과 발전, 군대의 건설과 활동에 있어서 공산당의 지도 원칙들이 저술되여 있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4×6판, 예정 페지 50페지, 예정 값 13전,
발행 부수 50,000부, 발행 예정 11월

이 책은 우리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하는 것이 자신을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기 위하여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흥미 있게 서술한 통속 서적이다.

책의 첫 부분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적으로 일하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다음 부분에서는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생활에서의 많은 실례들을 들어 서술하였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살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상 잔재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 책은 김 일성 동지가 《공산주의 교양에 관하여》에서 중요하게 지적한 문제의 하나를 취급한 것인만큼 우리 근로자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것이다.

이상 서적들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1960년 9월